

전북학총서
16

부흥백제국과 주류성

김병남 지음



전북학연구원

전북학총서
16

부흥백제국과 주류성



전북학총서
16

부흥백제국과 주류성



부흥백제국과 주류성

목차

006 발간사

008 들어가는 말

I. 부흥의 기반, 전북지역

- 015 1. 『삼국사기』에 보이는 마한
- 021 2. 산과 바다 사이에 산재한 소국가
- 026 3. 전북의 마한 소국
- 029 4. 전주·완주 지역의 실마리
- 035 5. 지반국과 백제 그리고 주류성
- 041 6. ‘국기영고(國基永固)’의 땅
- 047 7. 신라 중방 고사성을 변화시키다

II. 부흥세력의 태동

- 061 1. 백제 항복과 ‘흥망계절’의 의미
- 063 2. 점령군의 약탈과 황포
- 066 3. ‘외세에 대한 저항’이라지만
- 070 4. 저항의 근원적 계기와 공포
- 076 5. 신라와 백제는 지독한 원수 사이
- 080 6. 막대기를 들고도 벌떼처럼 일어나다

III. 부흥전쟁의 개시와 승리

- 089 1. 660년의 ‘사비상’ 탈환 노력과 실패
- 093 2. 부흥전쟁의 의미와 주도
- 095 3. 새로운 부흥전쟁의 중심지
- 098 4. 두량윤·고사비성의 위치
- 109 5. 661년 중방 고사성 일대의 각축
- 114 6. 두량윤·고사비성 전투의 여파

IV. 백제 부흥을 위한 대외적 노력

- 123 1. 661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 126 2. 승리의 파장, 권력 분열의 조짐
- 131 3. 도침 주도의 외교 교섭
- 133 4. 당 조정의 철수 움직임
- 138 5. 백제-당 밀착의 파장
- 143 6. 신라의 반격과 도침의 몰락

V. 부흥백제국의 수립과 실패

- 153 1. 엇갈리는 귀환 시점
- 157 2. 부여풍,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 165 3. 복신 주도 아래의 부흥백제국
- 168 4. 나당의 반격과 백제국의 위기
- 172 5. 주류성은 방어하고 싸울 장소
- 177 6. 피성은 '의식(衣食)'을 해결할 곳
- 181 7. 피성 천도의 주도 세력
- 183 8. 천도 실패와 풍왕의 정변
- 189 9. 주류성은 어디인가?
- 201 10. 백(촌)강 전투와 주류성의 함락

VI. 부흥백제국과 '전북지역'의 역할

- 211 1. 부흥전쟁 관련 지명 현황
- 214 2. 부흥전쟁기 관련 지명의 이해
- 217 3. 백제국 재건과 '전북지역'의 역할

- 227 참고문헌

백제는 고대 전북의 역사를 관통하는 국가입니다. 백제 왕궁의 터와 동양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지가 이를 대변합니다. 660년 백제의 멸망과 함께 백제의 부흥전쟁이 전개되는 지역이 전북인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후기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익산은 인문학적 요소인 불교를 확산하며, 왕궁터의 후원(後園)에서 알 수 있듯 예술, 건축 기술 요소를 발전시켰습니다. 백제의 역사에서 전북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백제 재건을 목표로 세운 백제부흥전쟁 중심이 전북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자는 ‘부흥운동’이라는 용어를 넘어서 ‘부흥국 수립’이라는 시각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합니다. 또한 저자는 부흥국 수립에 중요한 활동지인 주류성을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문헌사료를 통해 부안으로 비정하며 부흥백제국 수립을 위한 활동지역이 전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북학총서 『부흥백제국과 주류성』을 통해 백제의 부흥전쟁과 부흥국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전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대 전북의 역사에서 주요 변곡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만큼 부흥백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학자 E.H.carr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설명합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시대적 전환점 앞에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병남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역사를 품고있는 백제와 부흥백제국의 위치가 전북이었다는 사실이 도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간다. 필자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천착하고자 대학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93년이었다. 젊음을 무기로 밤과 낮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한국고대사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고, 이런저런 여러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한 것이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흥내 내듯 석사학위 논문을 재빠르게 해치우고, 곧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 이것저것 열심히 읽었으나 남의 생각과 유행을 따라가기 바빴다. 그 즈음 강의 과제로 처음 논문을 학회에 실을 수 있었던 것은 치기어린 공명심이었는지도 모른다.

2000년 전북대학교에서 한국고대사로는 처음 박사논문을 제출한 이래 본격적으로 50편 이상의 학술 논문과 몇 권의 공저를 냈다. 한편의 글쓰기를 끝내고 나면 무언가를 이룬 듯 벅찬 감흥에 빠져들곤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그 자체가 착각과 오만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글을 읽어보면 비문(非文)이 가득한 '쓰레기 더미 같다!'는 자괴감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거울로 쳐다보곤 하였다. 이럴 때마다 대학에서 차분히 연구할 기회가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 환경적 조건을

핑계 삼아 애써 자위(自慰)해 봐도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넘어서 모교에 자리 잡을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학술 연구를 차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찾아왔다. 그래서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들에 대해 지역민과 대중들에게 풀어 정리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흥백제국에 대한 관심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10여 편의 논문을 썼다. 필자가 보기에 서기 7세기는 시대 전환을 요구받는 시기였다. 자의든 타의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다자간 국가 관계는 새로운 질서 모색에 따른 충돌과 타협을 강요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당나라-왜국 등과 연동한 국제 질서의 틈바구니에서 국가 존속의 유무를 결정해야만 했다. 냉정한 현실과 타협을 통해 승기를 잡은 것은 신라였고, 백제는 반대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백제의 660년 7월은 구성원들의 삶에 공황 상태를 야기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외침으로 7월 12일에 수도가 함락 당하였고, 마침내 7월 18일에는 자국의 왕이 항복하는 사태를 목도하게 하였다.

고대국가 체제 하에서 왕의 항복과 도읍의 함락은 곧바로 왕권 변동이나 국가 멸망 자체를 의미하므로 학계는 이를 ‘백제의 멸망’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백제는 왕과 도성의 함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형태가 일정 부분 존속되는 상황이었다. 즉, 백제의 지방에는 침탈이 미치지 않았기에 자체적인 저항이 가능하였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국가 지속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백제의

부흥운동이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이에 최근에는 단순한 '운동'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부흥국 수립'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각은 고대 국가의 멸망을 전제로 한 관점이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주목하고 싶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수도인 한양을 함락하고 왕을 붙잡으면 조선이란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왜군이 미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관 항쟁의 결과 실패로 끝났다. 이를 백제의 상황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임진·정유 7년 전쟁 후 조선은 국가의 '재조(再造)'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백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필요는 없는 것일까? 역사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이란 법칙 아래 있더라도 유사한 사건과 사실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660년 7월부터 663년 10월까지 지속된 백제국 재건 노력의 역사적 전개를 새롭게 보고자 한다. 특히 주류성을 기반으로 왕위 계승의 복원과 함께 국가 수립 선포(662)의 의미를 한성 시기, 웅진 시기, 사비 시기에 이은 '주류성 시기'라 새롭게 진단하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흥백제국 수립의 중심인 주류성(周留城)의 의미에 대해 단순하게 접근하였다. 주류성이 갖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정치·경제적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만이 시대 상황에 제대로 도달한다. 지금처럼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역사적 실체와 별개로 주류성의 억지 추정을 지속한다면 역사적 교훈을 안개 속에 빠뜨린 채 방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련 사료와 연구 성과에 대해 재접근해 보겠다. 어찌 보면 과거 선학들의 노고 재탕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다시 보기’를 시도하는 것은 후학들의 필연이다. 부흥백제국과 관련해서도 이미 ‘크게 보기’의 입장에 서면 연구 성과들이 켜켜이 쌓인 상태이지만 ‘촘촘히 보기’를 통해 미묘한 지점을 재구성하여 사건과 현상에 다각적인 추정과 의미 부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단순한 ‘부흥운동’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흥전쟁’이란 관점에서 서서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의 시·공간적인 범위와 의의 및 한계를 다각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북 지역이 부흥백제국 수립에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았다.

필자는 본 저서가 교과서에 담지 못한 주류성과 전북지역의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부흥백제국과 주류성이 전북지역 역사와 문화의 태동,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사·문화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는 계기로 삼아 지역사의 자부심을 느낄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저서의 집필에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아끼지 않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린다.

2023년 12월

김병남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부흥의 기반,
전북지역



I. 부흥의 기반, 전북지역

1. 『삼국사기』에 보이는 마한

우리 고대사의 기초 자료인 『삼국사기』에도 마한(馬韓)이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초기 마한의 위치와 실상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다.

(-20) 봄 2월에 호공(瓠公)을 보내 마한(馬韓)을 예방하였는데, 마한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진한(辰韓)과 변한(下韓)은 우리의 속국(屬國)인데, 근래에는 공물을 보내오지 않았도다. 대국(大國)을 섬기는 예의가 이렇단 말인가?”고 말했다.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혁거세 38년)

(-19) 마한왕(馬韓王)이 죽었다. 누군가가 왕을 설득하여 “서한왕(西韓王)이 이전에 우리의 사신을 욕되게 했습니다. 지금 국상을 치르는 중이니, 그 나라를 정벌하면 쉽게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니, 왕이 “다른 이의 재난을 다행이라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짓이다”고 말하며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혁거세 39년)

(-9) 가을 9월에 왕이 사냥을 나가 신록(神鹿)을 잡아 마한(馬韓)에 보냈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10년)

(-6) 8월에 마한(馬韓)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遷都)를 알렸다. 드디어 경계를 그어 국경을 정하였으니, 북은 패하(溟河), 남은 웅천(熊川), 서는 대해(大海), 동은 주양(走壤)에 이르렀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13년)

(-1) 겨울 10월에 말갈(靺鞨)이 엄습하니 왕이 병사를 거느리고 칠중하(七重河)에서 맞아 싸웠다. 추장(酋長)인 소모(素牟)를 포로로 잡아 마한(馬韓)에 보내고 나머지 적은 물었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18년)

(6) 가을 7월에 (백제)왕이 웅천책(熊川柵)을 세우니 마한왕(馬韓王)이 사신을 보내어 “왕이 처음에 강을 건너왔을 때에 밭을 디딜만한 곳이 없어, 내가 동북(東北) 100리의 땅을 나눠주어 살게 하였다. 이는 왕을 후히 대우한 것이니, 마땅히 보답할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이제 나라가 완비되고 백성들이 모여드니 우리 적이 될 만한 자가 없다고 말하며 크게 성지(城池)를 설치하며 우리 영토(封疆)를 침범(侵犯)하니 그제 의로운 일인가?”고 꾸짖으니, 왕이 부끄러워 목책을 허물었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24년)

(7) 봄 2월에 왕궁(王宮)의 우물이 갑자기 넘치고, (어느) 한성인(漢城人) 집에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들어있다. 천문을 보는 관리(日官)가 “우물이 넘친 것은 대왕(大王)이 크게 흥할 조짐이고,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들인 것은 대왕이 옆 나라를 합칠 징조입니다”고 말하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드디어 진(辰)·마(馬)를 병탄(并吞)할 마음을 가졌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25년)

(8) 가을 7월에 (백제)왕이 “마한(馬韓)이 점점 약해지고 위와 아래[上下]의 마음이 다르니 그 기세가 오래 갈 수 없는데 혹시 남에게 병합되면 순망치한(舜亡齒寒)이라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니 다른 이보다 먼저 취하여 뒷날의 어려움[後艱]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

며 걸으려는 사냥한다면서 몰래 마한(馬韓)을 습격하여 드디어 국읍(國邑)을 병합하였다. 다만 원산(圓山)과 금현(錦峴)의 2성은 굳게 지키므로 함락시키지 못했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26년)

(9) 여름 4월에 2성이 항복하니 한산(漢山)의 북쪽으로 사민(徙民)하였다. 마한(馬韓)을 드디어 멸망시켰다. 가을 7월에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쌓았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27년)

(16) 겨울 10월에 마한(馬韓)의 장수인 주근(周勤)이 우곡성(牛谷城)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몸소 군사 5천을 거느리고 토벌하였다. 주근이 목을 매고 죽었으나 시체의 허리를 베고 그의 처와 자식을 모두 죽였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34년)

(18) 가을 7월에 탕정성(湯井城)을 쌓았고, 대두성(大豆城) 민호(民戶)를 나누었다. 8월에 원산(圓山)과 금현(錦峴)의 2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을 쌓았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36년)

(61) 가을 8월에 마한(馬韓) 장수 맹소(孟召)가 복암성(覆巖城)을 마쳐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탈해 5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의 초기 기록에는 마한이 나타난다. 우선 신라 혁거세 39년(서기전 19)에 ‘서한왕’이란 표현을 보면, 마한이 신라(진한) 서쪽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혁거세 38년(서기전 20)에는 마한왕이 신라 사신에게 “진한과 변한은 우리 속국(辰卜二韓爲我屬國)이다”고 하여 삼한(三韓) 중에 마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백제 온조왕 10년(서기전 9)에 따르면 마한과 백제 사이의 상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온조왕 13년(서기전 6)과 18년(서기전 1)을 보면

마한 우위의 상황은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 온조왕 13년처럼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결과를 마한에 통보한다던가, 온조왕 24년(6)과 같이 마한은 백제의 동정에 제동을 걸어 굴복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마한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된 듯 하다. 온조왕 26년(8)에 “마한이 점차 쇠약해지고 상하의 마음이 분리되는(馬韓漸弱 上下離心)” 모습은 현저한 대외 영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백제에게 중심지인 ‘국읍 병합[并其國邑]’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백제의 공세에도 “원산·금현 2성은 굳게 지키므로 함락시키지 못했다(圓山錦峴二城固守不下)”는 기록을 보면, 백제가 마한 전 지역을 병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후에도 각 지역의 소국들이 여전히 독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표 1]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마한 및 주변 소국 추정

연도	국명(지명)	관련 인물
온조 10년(-9)	마한	
온조 18년(-1)	말갈	추장 소모
온조 26년(8)	원산성	
	금현성	
온조 27년(9)	대두산성(?)	
온조 34년(16)	우곡성	주근
온조 36년(18)	고사부리성	
탈해 5년(61)	복암성	맹소

『삼국사기』는 진한 소국이나 변한과 관련된 국명들이 직접적으로 보이는데 반해 유독 마한이나 말갈의 소국명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료적 특성이다. 하지만 위의 [표 1]에 제시·추정하였듯이 원산·금현성, 우곡성, 복암성 등을 마한의 일부 소국으로 본다면 주근과 맹소도 이러한 소국의 지배자라 생각할 수 있어,¹⁾ 희미하게나마 경기·충청 일부에 존재하던 마한 소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건국 초기 백제가 수년 만에 마한 전체를 병합한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백제가 마한을 병합한 시기에 대해 고이왕(234~286)과 근초고왕(346~375) 때에서 찾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 조정은 한성 도읍기 주변에 존재하던 마한의 정치적 해체가 빨라야 3~4세기임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온조왕 13년에 나오는 초기 백제의 영역 확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패하는 예성강, 주양은 강원도 춘천 부근으로 본다. 다만 남방의 웅천을 경기도 안성·평택의 안성천²⁾이나 충남의 금강³⁾으로 다르게 파악하지만 이는 달리 말해 백제의 성장으로 마한이 경기 일대 뿐만 아니라 강원과 충청의 일부에서도 영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기 일대의 백제와 마한의 관계는 한강 하류 지역인 파주 갈현리⁴⁾, 김포 양곡, 운양동, 양촌, 학우리, 구래동과 함께 인천 운서동, 중산동, 연희동, 구월동, 동양동, 영종도 늘들, 검단 당하동 등의 마한 분구묘를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분구묘는 2세기 중반부터 5세기까지 이어지는데⁵⁾ 3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 4세기

1) 김덕원, 2021, 「백제 초기 소국의 존재와 실제-한강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314쪽.
 2)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247-248쪽.
 3) 최범호, 2010, 「백제온조왕대 강역확정 기사의 제설 검토」, 『백산학보』 87, 백산학회, 124쪽.
 4) 김기옥, 2012, 「한강하류역 마한 분묘군 일고찰」, 『경남연구』 7, 경남발전연구원, 57쪽.
 5) 김경화, 2022, 「인천-김포지역 분구묘와 마한」, 『한국학연구』 65, 인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69-271쪽.

의 인천 동양동 분구묘와 목관묘에 백제 토기의 유입 양상이 보이는 점 등을 연결하면 4세기 전반부터 분구묘 축조 세력이 서서히 해체됨을 알 수 있다.⁶⁾

한편, 한강 하류를 벗어난 경기도 남부 지역인 화성·오산의 마하리·화산동·발안리 권역에는 석곽묘, 석실분이 확인되는데 반해 수청동·요리 권역에는 주구토광묘와 분구묘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⁷⁾ 이것은 경기도 일대가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역별로 영향력이 균일하게 투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백제의 영향력이 침투하는 한편 여전히 마한 소국으로서의 독자성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고고학적 상황을 결합하여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마한 관련 기록을 해석하면, 단순히 온조왕 27년(9)의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馬韓遂滅)”라는 표현을 금과옥조처럼 맹신하는 것은 사료적 기초 분석이나 해석, 나아가 역사적 맥락에 대한 물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마한이 백제에 의해 해체·병합된 것을 짧은 시기에 압축한 것을 의미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삼국사기』에 보이는 마한의 실체는 백제 수도인 한성과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였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뜻할 뿐이다.

6) 송만영, 2021, 「한강 하류 분구묘 분포권 지역정치체의 동향과 성격」, 『송실사학』 47, 송실사학회, 56쪽.

7) 맹소희, 2017, 「한성백제기 화성·오산지역 고고학적 변화양상 연구-분묘유적과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56-64쪽.

8) 정동준, 2019, 「문헌사료로 본 백제의 마한 통합과정」, 『백제연구』 2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9쪽.

2. 산과 바다 사이에 산재한 소국가

『삼국사기』와 달리 마한에 대해 기록된 중국 측 기록을 근거로 마한은 경기, 충청, 전라도 일대에 산재한 54개의 지역 단위 정치체들이라고 파악된다. 그런데 『삼국사기』 초기의 마한 멸망 기록이 일부 마한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후 마한의 존속 여부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한(馬韓)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 있다. 그 북쪽은 낙랑(樂浪), 남쪽은 왜(倭)와 접하였다. ……백제(百濟)는 그 중 한 나라이다. 큰 것은 만여 호(戶), 작은 것은 수천 가(家)로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땅을 합친 나라(邦)가 4천여 리이다. …… 마한(馬韓)이 가장 커서 그 종족들이 함께 세워 진왕(辰王)으로 삼아 목지국(目支國)에 도읍하여 삼한(三韓) 땅의 왕 노릇을 하니 여러 국왕(國王)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었다. 『후한서』 85, 「동이 열전」 75, 한

마한(馬韓)은 서쪽에 있다. …… 각각 장수(長帥)가 있어서, (세력이) 큰 자는 스스로 신지(臣智)라 이름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라 하였다. 산과 바다 사이에 산재(散在)하며 성곽(城郭)은 없다. 원양국(爰襄國)·모수국(牟水國)·상외국(桑外國)·소석색국(小石索國)·대석색국(大石索國)·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신분고국(臣濱沽國)·백제국(百濟國)·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일화국(日華國)·고탄자국(古誕者國)·고리국(古離國)·노람국(怒藍國)·월지국(月支國)·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소위건국(素謂乾國)·고원국(古爰國)·막로국(莫盧國)·비리국(卑離國)·짐리비국(古離卑國)·신흔국(臣鬻國)·지침국(支侵國)·구로국(狗盧國)·비미국(卑彌國)·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고포국(古蒲國)·치리국(致利國)·염로국(冉路國)·아림국(兒林國)·사로국(駟盧國)·내비리국(內卑離國)·감해국(感奚國)·만로국(萬盧國)·벽비리국(辟卑離國)·

구사오단국(臼斯烏旦國)·일리국(一離國)·불미국(不彌國)·지반국(支半國)·
 구소국(狗素國)·첩로국(捷盧國)·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신소도국(臣蘇塗
 國)·막로국(莫盧國)·고랍국(古臘國)·임소반국(臨素半國)·신운신국(臣雲新
 國)·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일난국(一難國)
 ·구해국(狗奚國)·불운국(不雲國)·불사분사국(不斯瀆邪國)·원지국(爰池國)
 ·건마국(乾馬國)·초리국(楚離國)이 있다. 무릇 50여 국으로 대국(大國)은 1
 만여 가(家)이고, 소국(小國)은 수천 가(家)로 총 10여만 호(戶)이다. 『삼국지』
 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30, 한)

마한과 관련해서 현전하는 중국 기록 중 『후한서』는 서술 대상 시
 기를 기준으로 하면 『삼국지』보다 앞서지만 편찬 시기 상 『후한서』는
 진(晉) 태강(太康) 연간(280~289)의 『삼국지』보다 150여 년 늦게 나
 왔기 때문에 마한에 관한 정보는 『삼국지』가 우선한다. 이외에도 『진
 서』와 『한원』에 인용된 「위략」, 『통전』 「변방문」 동이목(東夷目) 등도 있
 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삼국지』의 찬술 연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기 1~3세기에 한(韓)이라 통칭되는 구조 속에 각기 마한,
 진한, 변한의 소국(小國)들이 한반도 내에 존재하였으며, 그 중 마한
 은 54개 소국이 기록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한과 관련된 또
 다른 기록들, 즉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의 염사치(廉斯讖) 관련 기
 록과 『후한서』의 소마시(蘇馬謨) 기록 및 『진서』 장화전(張華傳)에 등
 장하는 ‘마한 신미제국(新彌諸國)’ 등을 고려해 보면, 위에 열거된 54
 개 소국이 마한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⁹⁾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나
 라[國]’가 일어나고 없어진 흐름이나, 또는 상호 교류에 따른 채록의

9) 윤용구, 2019, 「마한 諸國의 위치재론」,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18쪽.

유무 여부도 염두에 두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삼국지』에는 마한이 “산과 바다 사이에 산재하여(散在山海間)”라고 표현하여, 소국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존속했음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여러 마을[邑落]이 결속하여 하나의 소국으로 발전하고, 소국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대국화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소국 상태에서 소멸되어 버리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런 정치체들의 형성과 발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규모는 작은 것이 대략 면(面)이 3~4개 합친 정도거나, 큰 것은 1개 군(郡) 단위로 이해된다. 또 인구는 대국이 1만 여 호, 소국이 수천 여 호라 기록되었는데, 대국을 백제 전신인 백제국(百濟國)과 마한 연맹의 영도국인 목지국(目支國)이라 한다면, 두 소국은 1만여 호 정도이고, 나머지 50여 국은 1,600호 정도의 소국이 되는 셈이다. 만일 백제국과 목지국 외에 한나해(韓那奚),¹⁰⁾ 신분고국(臣濱沽國),¹¹⁾ 신운신국(臣雲新國) 그리고 신미국(新彌國)¹²⁾ 등을 대국으로 보면, 소국의 규모는 더욱 떨어진다. 어쨌든 1가구 당 5인이라 추정하면, 대국은 5만 여 명, 소국은 7~8천여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한 54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이 미흡하지만 경기 지역의 한강, 충남북 지역의 금강, 전남 지역의 영산강, 섬진강 등 큰 강 주변을 기반으로 많은 수가 존속하였을 것이며, 전북 지역에서는 금강 하류와 동진강·만경강 유역에 소규모 정치체들이 존재하였다고 짐작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10) 『삼국지』 4, 『위서』 4, 삼소제기(三小帝紀) 4, 제왕(齊王) 방(芳), 정시(正始) 7년 4월.

11) 정재운, 2001, 『위의 대한정책과 기리영 전투』, 『중원문화연구』 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38쪽.

12) 노중국, 2011,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유역 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6, 백제학회, 13쪽.

[표 2] 『삼국사기』마한 중 전북 관련 위치 추정¹³⁾

국 명	비정 지명			
	정인보 ¹⁴⁾	이병도 ¹⁵⁾	천관우 ¹⁶⁾	박순발 ¹⁷⁾
소석색국	전북 순창	경기 서해의 섬	강화 교동	
대석색국	전북 임실	소석색국 부근	강화도	
고탄자국	전북 김제 금구		경기 양평지평	경기 양평
고리국	전북 정읍 고부	남양주	여주	남양주 진접
비리국	전북 군산 회미	전북 군산 회미면	충남 예산-덕산	전남 광양
점(고)비리	(비리국 중북)	전북 고부?	충남 홍성 결성	
신흔국	전북 군산 임피	대전	아산 온양	
염로국	전북 진안		전북 익산 함열?	전남 화순 능주
아림국	전북 익산 여산	충남 서천	충남 서천	충남 서천
사로국	전북 군산 옥구	홍성 장곡	논산 은진	홍성 장곡·청양 비봉
감해국	안성	전북 함열	전북 익산	천안 풍세·익산 함열
만로국	충북 진천	충남 보령 남포	전북 군산 옥구	전북 군산 옥구
벽비리국	전남 보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북내면	전북 김제	전북 김제
구사오단국	전남 장성	전남 장성 진원면	전북 김제 금구	전남 장성 진원
일리국	전남 화순 능주		전북 부안·태인	전북 익산 낭산
불미국	충북 단양	전남 나주	전북 부안·태인	충남 공주 신평
지반국	전북 부안		전북 부안·태인	전북 완주 화산
구소국	전남 담양		전북 정읍 고부	전북 정읍 고부
첩로국	충북 옥천		전북 정읍	전남 순천
모로비리국	전북 고창	전북 고창	전북 고창	전북 고창
신소도국	충남 태안	충남 태안	전북 고창 흥덕	충남 태안
막로국			전남 영광	
고랍국	황해 배천	전북 남원	전남 장성	전남 신안(섬)
임소반국	전남 무안	전북 군산 옥구	전남 광산·나주	전북 임실

13) 박찬규, 2013, 『문헌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소국의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4-5쪽;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 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98-99쪽.

14) 정인보, 1946, 『조선사연구』상, 서울신문사, 116-121쪽.

15) 이병도, 1976, 앞의 책, 262-266쪽.

16)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422-423쪽.

17)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126-128쪽.

신운신국	전남 나주	충남 천안	전남 광산·나주	
여래비리국	충남 논산 은진	전북 익산 여산	전남 화순 능주	전남 곡성
초산도비리국	전북 정읍	전북 정읍	전남 진도 군내면	전남 담양
일난국	전북 고창	-	전남 영암	전남 영암?
구해국	(구소국 중북)	전남 강진	전남 해남 마산	전남 장성
불운국	전북 남원 운봉	충남 공주서부	전남 보성 북내	
불사분사국	전북 전주	전북 전주	전남 순천 낙안	전남 순천 낙안
원지국	전남 나주 압해	-	전남 여수	전남 순천 주안
건마국	전북 익산	전북 익산	전남 장흥	
초리국	(초산비리국중북)	-	전남 고흥 남양	전남 고흥 남양
전북관련	16	10(11)	12	7(8)

위의 [표 2]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마한 소국이라고 판단된 곳은 각 연구자의 추정에 따라 8~16개 사이로 차이가 난다. 마한 소국의 위치 추정은 후대 지리지 관련 지명 기록 중에서 유사한 발음이나 표기와 연결하여 찾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서 실시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된 유적·유물이 존재하는 지역도 주목되었다.

하지만 소국의 명칭을 음운학적인 유사성만으로 추정하는 방식은 실제적인 확증이라 보기가 어렵기에 연구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상당히 날 수밖에 없다. 위의 [표 2]에서도 전북 지역 소국으로 견해가 일치하는 곳은 익산의 감해국, 김제의 벽비리국, 고창의 모로비리국에 불과하다. 이는 정확한 위치 추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며, 어려운 조건 아래 시도된 추정도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3. 전북의 마한 소국

현재까지의 문헌적 추정과 고고학적인 증빙을 감안하여 전북과 연관된 마한 세력으로 몇몇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금강 하구 일대의 군산 지역과 관련한 소국이다. 백제의 부부리현(夫夫里縣; 군산 회현)과 연관된 비리국(정인보, 이병도)을 필두로 만로국(천관우, 박순발), 신흠국·사로국(정인보), 임소반국(이병도) 등이 추정되었다. 고고학적으로도 군산 선제리에서 기원전 4~3세기 때에 해당하는 중국 동북 지역의 출토품과 연결된 청동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른 시기에 선진 문물을 지닌 세력들이 한반도 서남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토착 세력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어 마한 소국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군산에는 2~4세기 때의 마한 묘제인 미룡동 고분군, 3세기 중엽~5세기 초반에 걸친 조촌동 고분군의 토광묘가 있고, 또 대야면 산월리 유적에서도 마한의 분구묘, 주구묘, 옹관묘와 함께 마한의 주거지도 확인되었다.¹⁸⁾ 따라서 이런 유적들은 마한 소국의 활동과 연관된다.

다음 두 번째는 건마국(乾馬國)이다. 이는 익산의 옛 지명인 '금마저(金馬渚)' 즉, 금마로 추정하는 곳이다. 익산 지역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학적 자료는 2~4세기가 중심 연대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으로 송학동, 장신리, 사덕 등의 유적이 있는데, 이들은 대규모 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에 소규모 취락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심으로 문헌 상

18) 강유나, 2020, 「군산 지역의 고대 사회」, 『백제문화』 6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65쪽.

의 건마국(정인보, 이병도)과 감해국(이병도, 천관우) 등의 정치체가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⁹⁾ 건마국에 대해서는 신채호도 「조선상고사」에서도 익산 지역으로 동의하였다

세 번째로는 김제와 관련된 벽비리국(이병도, 천관우, 박순발)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백제 ‘벽골군(碧骨郡)’, 고사주(古四州)의 벽성현(辟城縣)과 벽골(辟骨), 『일본서기』 신공 49년 기록의 벽중(辟中)과 벽지산(辟支山)이란 지명과 연결된다. 그리고 김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저수지로서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벽골제 유적도 있다. 이 제방은 정읍 영원면 일대의 분구묘 축조 집단의 경제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따르면²⁰⁾, 김제, 부안, 정읍 등을 기반으로 풍요로운 마한 세력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구소국(狗素國)이다.

[표 3] ‘고사’ 관련 기록

내용	출전
8월에 원산(圓山)과 금현(錦峴)의 2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을 쌓았다.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36년
전주……고부군(古阜郡)은 본래 백제 고묘부리군(古妙夫里郡)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바꿨다.	『삼국사기』 36, 「잡지」 5, 지리 3, 전주
완산…… 고사부리군(古沙夫里郡)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백제
고사주(古四州)는 원래 고사부리로 5개 현 중 평왜현(平倭縣)은 원래 고사부촌(古沙夫村)이었다.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삼국유명미상지분
그 바깥에 5방이 있으니 중방(中方)은 고사성(古沙城)이다.	『주서』 49, 「열전」 41, 지역상, 백제
구소국(狗素國)	『삼국지』 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30, 한

19) 김규정, 2016, 「마한의 성장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2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89쪽.

20) 최원규, 2016, 「전북지역 마한·백제 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 18, 백제학회, 154쪽.

나라는 마한(馬韓)을 다스리고 땅은 구소(狗素)를 포괄했다.	『한원』, 『변이부』, 백제
인궤(仁軌)의 무리가 적어 인원(仁願)과 군사를 합쳐 사졸(士卒)을 쉬게 하였다. 황제의 조서로 신라(新羅)에게 출병하게 하였다. 신라왕 (김)춘추(金春秋)가 조서를 받아 장수 김흠에게 병사를 이끌고 (유)인궤 등을 구원케 하였다. 고사(古泗)에 이르니 복신(福信)이 요격하여 패배시켰다. (김)흠이 갈령도(葛嶺道)에서 달아나 신라로 돌아간 후 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였다.	『자치통감』 200, 『당기』 16, 고종 용삭 원년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布彌)·지반(支半)·고사읍(古四邑)이 스스로 항복하였다.……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벽지산(辟支山)에 올라가 맹세하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랐다.	일본서기 9, 신공 49년

위의 관련 기록들을 보면, '구소'는 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언급된 고사부리의 다른 표기로 생각된다. 정읍(고부)의 고대 지명은 고사부리 이외에도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묘부리(古眇夫里)·고사주(古四州)·고사부촌(古沙夫村), 신라 무열왕 8년(661)의 고사비성(古沙比城), 백제 의자왕 20년(660)의 고사(古泗), 중국 기록인 『주서』 「백제전」의 중방 고사성(古沙城), 일본 기록의 고사읍(古四邑) 등이 있다. 이 중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묘부리'는 '고사부리'의 오기로 보이므로 제외하면, 고부의 고대 지명은 '고사(古沙, 古四, 古泗)'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구소국의 '구(狗)'는 중국의 고대음인 ku, 북경음인 kou라는 발음이고, '소(素)' 또한 suo와 su로 읽혀 우리 한자음과 가깝다. 따라서 '구소'나 '고사'를 동일 지역의 다른 표기라면, 정읍(고부)은 백제의 '고사부리'가 되기 이전부터 마한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로는 고창의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 정인보, 이병도,

천관우, 박순발)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모량부리(毛良夫里)와 관계된 이 지역에는 5세기 초~6세기 전반까지 축조되는 봉덕리 1호분이 있다. 이것은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이 축조한 대형 고분보다도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형 고분 축조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을 생각하면 이 지역에 기반한 강력한 재지 세력이 상상된다. 더불어 봉덕리 출토 금동식리, 중국제 청자 등을 통해 백제 중앙과 깊숙한 관련도 짐작할 수 있다. 고창 지역은 백제가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리적 거점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고창 만동, 선동, 예지리, 남산리, 도산리, 증산 유적 등 3~4세기로 편년되는 주변의 분구묘 축조 세력까지 결부한 유력한 마한 소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²¹⁾

4. 전주·완주 지역의 실마리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익산의 인근인 완주(전주)와 관련된 소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불사분사국(정인보, 이병도)과 지반국(박순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반국은 부안(扶安)과 연관시키는 것이 확연하므로 이 견해에는 쉽게 동조할 수가 없다. 『일본서기』 신공 49년 기록에 언급된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의 지명 중 벽중이 김제에, 고사가 정읍에 해당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지반은 벽중(김제)과 고사(정읍)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므로 부안이 유력하다. 또 불사분사국도 『남제서』 기록에 등장하는 불사(弗斯)·불중(弗中)을 『삼국사

21) 김종엽, 2015, 「고창 봉덕리 1호분의 축조와 공간활용에 관한 검토」, 『미한·백제문화』 25, 원광대학교 미한백제문화연구소, 223-225쪽.

기』 지리지의 비사벌과 연결하여 전주로 파악하는 것이지만 경남 창녕의 비사벌을 전북 전주의 완산으로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므로²²⁾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전주·완주 일대와 연결된 임의의 마한 소국을 확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전라도 관련 지명 기록을 통해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노산주(魯山州)의 6현은 본디 감물아(甘勿阿)인 노산현(魯山縣), 본디 구지지산(仇知只山)인 당산현(唐山縣), 본디 두시(豆尸)인 순지현(淳遲縣), 본디 지마마지(只馬馬知)인 지모현(支牟縣), 본디 마지사(馬知少)인 오잠현(烏蠶縣), 본디 원촌(源村)인 아착현(阿錯縣)이다.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삼국유명미상지본)

위의 기록은 당나라가 백제를 정벌하고 설치한 옛 백제 지역 내 도독부 13현 중 노산주의 지명이다. 이 가운데 노산현(감물아현)은 전주 임피군 함열현(익산시 함라면), 당산현(구지지산)은 전주 금구현(김제 금구면)인 것은 확인된다. 또 지모현을 익산(금마)으로 보거나²³⁾ 순지현의 본래 지명인 두시를 두이현(豆伊縣)이라 본다면 전주 두성현(杜城縣 ; 완주 이서면)으로, 아착현의 본래 지명인 원촌(源村)을 신라 전주의 고명인 완산의 다른 호칭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²⁴⁾ 이른 시기부터 전주·완주 지역의 문헌적 토대는 가능하다.

이처럼 익산, 완주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경

22) 김병남, 2003, 『백제 동성왕대의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26-227쪽.

23) 전용신, 1993, 『한국고지명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47쪽.

24)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38쪽.

강 유역과 연관된 것이다. 강을 끼고 완주(전주)와 익산은 전통 시기 내내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이는 금마군의 속현인 옥야현(沃野縣)이 지금의 전북 익산시 시내와 오산면 지역이었던 바 본래 옥야현은 남쪽 만경강 너머의 이성현(김제 공덕면)과 함께 전주의 월경지였으나 1906년에 월경지(越境地)와 투입지(斗入地)를 정리하는 정책에 따라 ‘옥야 6면’이 익산군에 편입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⁵⁾

고고학적으로도 완주에서 발견된 상운리 유적의 1단계(기원전 2세기~기원 전후) 분구묘 형태가 익산 영등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구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유물 내용도 상통하는 바 이미 이른 시기부터 익산과 완주(전주) 일대의 관련성이 짐작된다. 아울러 주거 유적으로 완주 반고리·용흥리, 전주 송천동·장동·마전·성곡·평화동, 익산 사덕(射德) 유적 등이 조사되었는데, 송천동 유적에서는 방형계의 주거지 51기와 굴립식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토기가마 등 다양하고 많은 수의 유구와 유물이, 사덕 유적에서는 100여기 이상의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는 등 대규모 취락 유적의 발견은 당시 마한 소국의 기초로서 마을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²⁶⁾

아울러 상운리 유적의 3단계(3세기 중반~4세기 후반)에 이르면 분묘의 규모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소형의 환두도와 철검(鐵劍) 이외에도 철모(鐵矛)와 철촉(鐵鏃), 철창(鐵槍) 등의 무기류와 함께 각종 농공구류 등 대규모 철기류가 본격적으로 매장된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철의 확보와 철기 제작·분배의 주체는 대규모 취락을 중

25) 최병운 외, 2000, 『전북역사문화자료집』(삼국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 전라북도, 107-110쪽.

26) 김승욱 외, 2010, 『상운리』1, 전북대학교 박물관, 46쪽.

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로써 철제품을 매개로 주변 지역과 결속력을 높이면서 '중심 지역[國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²⁷⁾ 따라서 상운리 유적에서 500여 점의 철기류가 출토되었고, 인접한 익산 사덕과 전주 송천동·동산동 등지에서 초대형의 취락이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상운리와 그 주변 일대 즉, 전주·완주 지역에 마한 소국이 입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토대로 전북의 마한에 대해 이해하면, 소국들이 군산, 익산, 전주(완주),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 서부 지역 위주로 분포함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소식색국과 대석색국(정인보)를 각기 순창과 임실로, 임소반국(박순밭)을 임실로, 고랍국(이병도)·붉은국(정인보)을 남원도 보기도 했지만 다른 추정 연구자들과 지역적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은 이를 따르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록 우리 측 기록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경기·충청·전라도에 근거하였을 마한 50여 개 소국은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전의 정치 세력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적 고립을 벗어나 협력을 통한 독자적 대외 교류까지 나섰던 존재들이었다.

무제 태강(太康) 원년(280)과 2년에 그 주(主)가 빈번하게 사신을 보내 조공 방물을 바쳤고, (태강) 7년, 8년, 10년에도 또 왔다. 태희 원년(290)에는 동이 교위(東夷校尉) 하감(何龕)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전) 함녕 3년에도 왔고, 다음 해에 또 귀부를 요청하였다. (『진서』 97, 「열전」 67, 사이 마한)

마한(馬韓) 등 11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진서』 3, 「본기」 3, 무제 태강 7년)

27) 권오영, 1995, 「삼한 국읍의 기능과 내부 구조」, 『역사와 경계』 28, 부산경남사학회, 33쪽.

『진서』 무제본기(武帝本紀)에는 함녕 2년(276)~영평 원년(291) 사이에 동이 또는 마한이 여러 차례 조공·귀화·내부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조공한 대상이 동이(東夷) 8국, 17국, 6국, 9국, 10국, 20국, 5국, 29국, 11국, 2국, 7국, 11국이라 각기 숫자가 다르고, 또 동이절원(東夷絕遠) 30여국이라고도 나온다.

【표 4】『진서』의 동이(마한) 관계 일람표²⁸⁾

	시 기	대 상	출 전	비 고
①	276(함녕2)	동이(東夷)8국(2월) 동이17국(7월)	『진서(晉書)』3, 무제기(武帝紀)	
②	277(함녕3)	동이3국 마한(馬韓)	『진서』3, 무제기 『진서』97, 마한	
③	278(함녕4)	동이6국(3월) 동이9국 마한	『진서』3, 무제기 『진서』97, 마한	
④	(함녕연간)	마한왕	『통전(通典)』185, 마한	
⑤	280(태강1)	동이10국(6월) 동이20국(7월) 기주(其主; 馬韓主) 기왕(其王; 辰韓王)	『진서』3, 무제기 『진서』97, 마한 『진서』97, 진한	
⑥	281(태강2)	동이5국(3월) 진한(辰韓)등 5국 기왕(其王; 辰韓王) 기주(其主; 馬韓主) 동이5국(6월)	『진서』3, 무제기 『책부원구(冊府元龜)』968, 조공1 『진서』97, 진한 『진서』97, 마한 『진서』3, 무제기	
⑦	282(태강3)	마한20여 국 동이29국(9월)	『진서』36, 장화전(張華傳) 『진서』3, 무제기	오환교위 (烏桓校尉)
⑧	286(태강7)	동이11국(8월) 마한등 11국 기주(其主; 馬韓主) 기왕(其王; 辰韓王)	『진서』3, 무제기 『진서』97, 마한 『진서』97, 진한	

28) 이승호, 2012, 『3세기 후반 '진'고구려술선'인과 고구려의 대서진 관계』, 『한국고대사연구』67, 한국고대사학회, 323쪽; 정지은, 2019, 『3~4세기 백제의 동이교위와의 교섭과 주변세력 통합양상』,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4-25쪽.

㉑	287(태강8)	동이2국(8월) 기주(其主; 馬韓主)	『진서』3, 무제기 『진서』97, 마한	
㉒	288(태강9)	동이7국(9월)	『진서』3, 무제기	동이교위 (東夷校尉)
㉓	289(태강10)	동이11국 동이절원(絶遠)30여 국 기주(其主; 馬韓主)	『진서』3, 무제기 『진서』97, 마한	
㉔	290(태희원년)	동이7국(2월)	『진서』3, 무제기	
		모노(牟奴)등 6국(1-4월) 마한(馬韓主)	『진서』97, 비리등십국(裨離等十國) 『진서』97, 마한	동이교위
㉕	291(영평원년)	동이17국	『진서』4, 혜제기(惠帝紀)	동이교위

그리고 『진서』 사이전(四夷傳)에도 277~290년에 여러 차례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 나라 왕[其主]’이라 표현되는 존재도 표기되었다.

진 무제 함녕(咸寧) 중에 마한(왕)이 조공했다. 이로부터 삼한을 듣지 못했는데 모두 백제와 신라에게 병탄된 것이다. (『통전』 185, 『동이』 상, 변진)

그리고 위의 기록처럼 당시 중국에서는 마한과 백제 그리고 신라를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따라서 진 무제의 함녕(275~79) 연간에 금강 일대를 중심으로 유력한 마한 세력이 존재하였다면, 3세기 후반에는 금강 이남의 마한 소국들도 통합적인 관계를 모색하거나, 독자적인 대외 교역을 추진한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 고고학적 증빙인 토광묘와 분구묘 및 양이부호, 이중구연호 등이 산동반도에서 해로로 파급되었다고 본 것²⁹⁾도 이러한 교류의 관점에서 바라본 추정이다.

또한 이 시기 마한의 유력 정치 세력이 존재하였던 표식으로 한식

29) 임영진, 2017, 「마한토기의 기원 연구-분구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5, 호남고고학회, 74쪽.

(漢式) 동경(銅鏡)이 공주·부여·익산 등 금강 중·하류권에서 나왔고, 3세기 마한과 연관되는 토기인 양이부호(兩耳附壺)도 서남부 호남 지역에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일대를 마한의 중심지인 목지국으로 보기도 한다.³⁰⁾ 그러나 3세기 이후 충청도 지역은 서서히 주구토광묘가 사라지고, 거의 시기가 일치하는 영산강 유역 일대에서는 고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금강 일대가 백제의 압박과 진출에 버티지 못하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지반국과 백제 그리고 주류성

한편, 주류성의 기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반국(支半國)이란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명은 부안 일대가 백제의 건국 이전 시기부터 마한 소국의 하나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지반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존속하였는지는 확인할 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3세기 이후로도 마한 소국으로 존속하였던 것을 4세기 백제와 전북 지역의 관계 속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자.

(330) 처음으로 벽골지(碧骨池)를 만들었는데, 두의 길이는 1,800보였다.(『삼국사기』 2, 「신라본기」 2, 흘해이사금 21년)

30) 서현주, 2016, 「마한 토기의 지역성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50, 한국고대학회, 81쪽.

(329) 기축(己丑)년에 처음 벽골제(碧骨堤)를 쌓았는데 둘레가 ㄹ만 7026보요, ㄹㄹ가 166보요, 논이 1만 4070ㄹ였다.(『삼국유사』 1, 『왕력(王曆)』 1, 제16 결해이질금)

벽골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서 축조 시기는 신라 흘해왕 21년(330)과 20년(329)으로 나온다. 기록에 따르면 벽골제가 있던 김제 부근이 신라 영토였다는 말이 되나 당시 신라는 낙동강 이서에도 제대로 세력을 뻗치지 못하는 중이었다. 즉, 벽골제 축조 당시 김제 지역은 마한의 고토이자 백제의 활발한 전북 진출에 따른 영향 아래 놓여 있었으므로 ‘신라의 축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³¹⁾ 또한 마한에 대한 역사 기록도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벽골제는 일반적으로 백제 비류왕 29년(330)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³²⁾

벽골제의 축조 세력을 고비리국(정읍)과 벽비리국(김제)의 마한 연합 세력에 의한 것이라 보는 주장³³⁾도 있지만 이 시기 백제의 수리 축조 기술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다른 대안에 비해 여전히 유효한 인식이다. 『일본서기』 응신 7년(396)에 한반도에서 왜로 건너간 백제인을 비롯한 고려인·임나인·신라인들이 저수지를 축조하였는데, 『고사기』에는 이를 ‘백제지(百濟池)’라고 이름 지었다는 기록을 보면, 적어도 벽골제 축조 시기 전후로 백제가 제방과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백제가 김제 지역까

31) 김주성, 2015, 「벽골제의 축조와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2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72-273쪽.

32) 윤무병, 1976, 「김제 벽골제 발굴보고」,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77쪽 ; 노종국, 2015, 「한국고대 수리시설의 역사성과 의미」, 『신라문화』 45,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131쪽 ; 권정혁, 2022, 「벽골제 놀제 활동제의 기능 재검토」, 『호남고고학보』 70, 호남고고학회, 67쪽.

33) 최완규, 2016, 앞의 논문, 154쪽.

34) 노종국, 2010, 「백제의 수리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보』 4, 백제학회, 31쪽.

지 진출했다면, 부안 지역도 서서히 백제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백제는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금강 이남을 차지하고자 주변 마한 소국들과 끊임없이 경쟁하여 4세기 초에는 만경강 유역까지는 진출하게 되고, 다시 남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지반(부안)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369) 봄 3월에…… 곧 목라근자(木羅斤資)·사사노궤(沙少奴跪)[두 사람의 성(姓)은 알 수 없다. 단 목라근자는 백제 장군(將軍)이다.]에게 명하여, 정병(精兵)을 이끌고 사백(沙白)·개로(蓋盧)와 함께 보냈다. 모두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쳐 꺾트렸다. 이로 인해 비자발(比自伐)·남가라(南加羅)·녹국(碌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7국을 평정하고, 이어 병사를 옮겨 서쪽을 돌아 고해진(古海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마다례(沈彌多禮)를 도륙하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그 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가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회합하였다. 그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布彌)·지반(支半)·고사(古四)의 읍(邑)이 자연(自然)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백제왕 부자 및 황전별·목라근자 등은 공식적으로 의류촌(意流村)[지금의 주류수지(州流須祗)를 말한다.]에서 회합하였다. 서로 보고 기뻐하며 예를 후하게 하여 보냈다. 오직 천옹장언(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벽지산(辟支山)에 올라가 맹세하였다.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이때 백제왕이 맹세하여 “…… 지금 이후 천추만세 동안 끊임없이 무궁토록 항상 서번(西蕃)을 칭하며 춘추로 조공하리라”고 하였다. 곧 천옹장언을 데리고 도성 아래에 이르러 후하게 예우를 더하였다.([일본서기] 9, 신공 49년)

위의 기록은 『일본서기』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신공(神功) 49년이 서

기로 환산하면 249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록에서 나오는 ‘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는 각기 백제 근초고왕(346~375)과 근구수왕(375~384)으로 추정되므로 『일본서기』의 年代와 관련된 실 제성을 쉽사리 수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록의 해석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다른 『일본서기』의 내용과 연결하여, 위의 기록 자체가 4세기 근초고왕 때가 아니라 5세기 이후의 상황을 보여준다거나³⁵⁾, 백제 측 기록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아리타와케[荒田別], 카가와케[鹿我別] 등 왜국(倭國) 씨족(氏族)의 기록들이 『일본서기』 편찬 과정에서 실려서 사료적 신뢰도마저 불충분하기에 6세기 이후의 사실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³⁶⁾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도 내용 중에 등장하는 침미다례와 비리, 벽중, 포미, 지반, 고사 등의 지명을 마한과 연결할 경우 여전히 영산강 일대에 대형 옹관묘가 존재하는 가운데 백제의 석실분은 5세기 말~6세기 초에나 확인되어 백제의 전라도 일대에 대한 복속이 4세기인지 의문을 제기되었다.³⁷⁾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세기를 전후하여 전라도 지역의 분묘군에 백제의 위세품이 보이며, 비록 소수이지만 백제 토기의 요소도 나오는 점 등으로 보아 백제가 4세기 중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³⁸⁾을 간과할 수 없다. 위의 기록에서도 ‘벽지산’과 ‘고사산’이란 지명은 김제·정읍과 연결할 경우 이미 4세기 초반에 백제

35)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59쪽 ; 이근우, 1997,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59-60쪽 ;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106쪽.

36)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한국고대사학회, 107쪽.

37) 임영진, 2010,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백제학보』 3, 백제학회, 41쪽.

38) 서현주, 2013,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한성백제박물관, 133쪽.

가 전북 지역에 진출한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남만 침미다례 또한 전남 서해안 일대의 정벌을 의미한다.³⁹⁾ 근초고왕의 정벌이 '전면적인 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의 정도 차이와 그 지역에 대한 지배 편제가 '즉각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과정의 문제일 뿐 적어도 4세기 후반에 전북 지역과 백제가 결합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삼국사기』 근초고왕 24년(369) 11월의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기치는 모두 황색을 사용하였다.(大關於漢水南 旗幟皆用黃)”는 기록이 백제 정통성의 발원처를 공유함과 동시에,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패권 장악이란 성과를 포괄하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 선언이라는 견해에 주목하면⁴⁰⁾, 이 시기 백제-마한-가야-왜국으로의 연결 체계 성립이 이후 백제가 갖는 이 지역의 '연고권'에 대한 시발점이라 추정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의 기록을 보면, 근초고왕 24년에 백제 목라군자 및 사사노궤군이 낙동강 일대의 비자발(창녕), 남가라(김해), 안라(함안), 탁국(창원), 다라(합천), 탁순(대구), 가라(고령)를 평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정군은 다시 서진하여 고해진에 다다른 후에 침미다례(강진·해남)를 공략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왜 연합군과 별도로 근초고왕과 왕자 귀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움직이자,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이 항복하였다고 나온다. 읍(邑)을 국읍(國邑) 정도로 생각한다면 5읍은 지역 거점으로 추정되며, 김제부터 고창 흥덕 일대 사이에 위치한 주요 도시 즉 김

39) 정재윤, 2022, 「문헌 속 호남 지역의 마한과 백제」, 『호남고고학보』 72, 호남고고학회, 190쪽.

40) 나용재, 2022, 「근초고왕 24년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검토」, 『동양학』 8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7쪽.

제, 부안, 정읍 고부, 고창 흥덕 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남의 끝인 침미다래가 함락되자, 거리상 다소 떨어진 전북의 지반(부안)이나 고사(정읍) 등이 스스로 항복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사·지반·벽중 등의 지역과 침미다래의 관계가 긴밀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반 항복한 각 소국들은 단순한 교류만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적인 친밀 관계였으며, 백제의 공격을 받은 침미다래의 지원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남북 마한 소국들의 밀접한 상관 관계 유추가 이 시기까지 마한의 일원으로서 부안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상 ‘벽지산·고사산 맹세’는 단순히 백제와 왜의 맹약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백제의 마한 정벌 과정에서 왜의 군사적 원조를 받아냄으로써, 이의 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맹약의 의례로 보인다. 그러나 백제왕의 맹세 내용은 왜가 아닌 마한으로 치환해서 이해해 볼 여지가 있다.⁴¹⁾ 이 당시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 지역은 정벌이 아니라 항복 대상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의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정벌한 지역과 스스로 항복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강경과 온화이다. 그렇다면 항복한 지역과 자연 항복 의례 절차를 지역 안에서 시행하면서 마한인들에게 천명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가 왜의 서번이 되기로 맹세했다’는 내용은 오히려 ‘마한이 백제의 서번(西蕃)이 되기로 맹세했다’는 것을 이후 『일본서기』 편찬 과정에서 변환된 것이라 추정함이 백제의 마한 점

41)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1, 일지사, 108쪽.

령과 항복이란 기록의 문맥상 이해가 논리적으로 좀 더 연결된다.⁴²⁾

한편, 위의 기록에는 근초고왕 부자 인솔의 군대와 목라근자 등의 군대가 합류한 곳을 ‘의류촌’이라 하였는데 세주(細註)에는 ‘지금의 주류수지’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백제왕이 벽지산(辟支山)과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원정군의 승리 의식을 거행했다고 나온다. 이 벽지산과 고사산이 각각 김제와 정읍으로 추정되므로, 의류촌은 인근에 소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류촌을 달리는 주류수지라 한 것으로 보아 ‘주류(州流)’를 ‘주류(周留)’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주류수지’가 곧 ‘주류성’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6. ‘국기영고(國基永固)’의 땅

이처럼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의 정벌군이 최종 합류한 지역이 ‘주류수지’이었다. 그런데 향후 백제의 부흥전쟁 중심지가 주류성인 점을 생각하면, 비록 기록의 부재로 300여 년의 간격을 가지지만 주류성이란 지명이 갖는 중요성이 예상롭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주류성의 위상에 대한 인식 재고가 매우 필요하다.

(370) 여름 5월에 천웅장언(千熊長彦)과 구저(久氏) 등이 백제로부터 이르렀다. 이에 황태후(皇太后)는 기뻐하며 구저에게 “해서(海西) 제한(諸韓)을 이미 그대 나라에 주었는데 지금 무슨 일로 급박하게 다시 왔는가?”라고 물어보

42) 지원규, 2022, 『백제 오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66쪽.

니, 구저 등이 아뢰기를 “천조(天朝)의 큰 은혜가 멀리 아국(弊邑)에까지 미치지
니 우리 왕께서 기뻐 춤추며(歡喜踊躍)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고 하였다. (『일본서기』 9, 신공 50년)

(371) 이 해에 천웅장언에게 구저 등을 따라서 백제국에 파견하며 이로써 대
은(大恩)을 내려 “…… 해서(海西)를 평정(平定)하여 백제에 하사하고 지금 또
두텁게 친선을 맺어 영원히 충애를 내린다……”고 말하였다. (『일본서기』 9, 신
공 51년)

(372) 가을 9월 정묘삭 병자에……이에 손자인 침류왕(枕流王)에게 이르기를
“…… 해서(海西)를 우리에게 준 길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틀이 영원히 단단해
졌다”고 하였다. (『일본서기』 9, 신공 52년)

백제의 확장과 고사·지반·벽중 등의 복속에 대해 『일본서기』에는
“해서의 제한을 이미 그대 나라에게 주었다(海西諸韓 既賜汝國)”거나
“해서를 평정하여 백제에 주었다(平定海西 以賜百濟)”는 말로 나타난
다. 왜국이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
를 배제하고, ‘제한(諸韓)’이란 부분에 집중하면 ‘해서제한(海西諸韓)’
을 “한반도 서남해의 제한(諸韓)”이고, ‘평정해서(平定海西)’를 근초고
왕 24년(369)의 남방 정벌로 복속한 지역이라고 보면, 이 사건이 백제
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쉽게 짐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인지 근초고왕이 “너무 기뻐 날뛰(歡喜踊躍)” 정도였다고 하거나
근초고왕이 손자에게 “해서(海西)를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틀
이 영원히 단단해졌다(海西而賜我 由是 國基永固)”고 회상한 것이다.

이처럼 근초고왕 때 복속된 전라도의 ‘여러 한(諸韓)’은 백제국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처였다. 이에 백제는 적극적인 영역 편입을 추진하였다. 근초고왕 때 전라도 지역 북쪽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백제의 해양 교역로 확보와 연관된다. 따라서 전북 지역은 백제 내에서 경제·군사·해양적인 중요도가 한층 배가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웅진·사비시대를 거치면서 전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져 금마(익산)가 사비를 대체할 수도로서 물망에 오르고, 고사성(정읍 고부)은 중방(中方)으로서 지방 편제의 중핵적인 위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주류성(부안) 지역도 활발한 해외 교역 장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 같다. 이 시기와 연관된 죽막동 제사 유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3세기 후반 마한 토기인 원저단경호가 보이고, 4세기 말~5세기 초의 백제 토기인 직구광견호 등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백제와 부안의 연관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백제 주도의 제사 거행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5세기 말~6세기 전반의 토제마(土製馬)나 중국 청자도 발견되었고, 여기에 가야계 토기와 석제 모조품, 나아가 왜국과 연관된 스에키[須惠器] 등도 있다. 이것은 결국 죽막동 유적이 마한에서 백제로의 전환, 다시 백제와 중국, 가야, 왜국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 백제의 마한 지역의 지배 확인, 고대 항해 기술의 발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곳임을 뜻한다.

이 죽막동 유적 아래에는 호남 서해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서해의 큰 바다와 바로 연결한 격포항이 있는데, 당시 격포는 부근을 항해하는 배들이 반드시 거쳐 갈 해양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기항하기 적합한 곳은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만(灣)인 경우

가 많다. 목선(木船)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드나들 포구의 좋은 조건은 ①후미저 있으며 섬·곶(串)·사주(砂洲)에 의해 파랑으로부터 보호받고, ②바닥이 부드러운 모래·개흙으로 이뤄져 배 밑바닥이 파손될 우려가 적으며, ③바닷물과 민물이 끊임없이 교류하여 유해 생물이 배 바닥에 달라붙지 않고, ④하물(荷物)을 내리고 신는데 편리한 지형을 갖추며, ⑤조석(潮汐)을 이용해 드나들기 편리하며, ⑥내륙과 연결되는 양호한 교통로가 확보되어야만 한다.⁴³⁾

이 시기 백제 선박은 길이가 25~28m 정도, 흘수선의 선폭은 3m이며, 총배수량은 40~50톤 정도로 추정된다. 또 선방(船舫) 장치를 이용해 2척의 배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100톤 가량의 적재량을 수용하고 항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가졌다. 이런 백제 배의 기술이 일본에 전수하여 7세기 중엽 견당사선박인 ‘백제박(百濟舶)’의 이용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⁴⁴⁾

한편, 백제의 대외 교류에 어떤 항로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기록은 없다. 다만 근래 3세기 후반 ‘마한주(=백제왕)’와 신미제국의 대중국 교섭이 대방군, 낙랑군을 거치는 연안항로로 이미 이뤄지고 있었기에⁴⁵⁾, 백제 또한 황해 연안 항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 근초고왕 때 동진에 처음 사신을 보낸 이후 중국 남조와 꾸준히 교류를 전개한 사실로 보건대 백제와 남중국의 교섭이 ‘화성-덕적군도-황해도 남부-산동반도’의 항로로 이뤄졌으리라 추정된다.⁴⁶⁾

43) 김낙중, 2016, 『서남해안 일대의 백제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검토』,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76쪽.

44) 박순발, 2016, 『백제의 해상교통과 기항지』,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21쪽.

45) 임동민, 2018, 『“진서” 마한 교섭기사의 주체와 경로』, 『한국고대사학회』 89, 한국고대사학회, 35-36쪽.

46) 임동민, 2020, 『백제와 송의 교섭 배경과 항로』, 『역사와 현실』 117, 한국역사연구회, 215쪽.

이와 관련하여 후기 신라시대에 중국으로 가는 항로는 2개였다. 하나는 중국 산둥반도로 직항하는 당은포(唐恩浦)로였고, 다른 하나는 전남 나주(羅州) 회진면-강희(江淮) 지방으로 가는 통로였던 점과 유사하리라 추측된다. 신라 말의 항로는 영암 구림→흑산도→홍도→가거도→영파의 코스가 주로 이용되었고, 『고려도경』에는 서궁 일행이 영파→흑산도→낙월도→위도→식도→군산도 순의 코스를 이용하였던 것이 확인된다.⁴⁷⁾

5세기의 경우 부안의 죽막동 유적과 더불어 신안 안좌도, 해남 외도, 완도 청산도 등에서 가야계나 왜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6세기 이후에는 부안의 위도, 신안 압해도, 장산도, 임자도, 비금도, 안좌도, 지도 등지에서 백제계 고분과 산성이 축조되어, 이 시기에 백제가 서남해 연안해로를 주도하기 위해 섬에 거점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류성을 포함하는 일대 지역은 공주와 부여로 들어가는 바닷길[海上路]의 길목으로써 중국이나 가야·왜 등의 사절선(使節船)이 빈번하게 드나들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죽막동에는 소위 ‘통일 전쟁’ 직후의 유물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이곳을 국가 제사 체계 안에 재편성시키지 않았음을 뜻하는데, 이는 그만큼 백제에 의해 중요시되었던 제사 장소[祭場]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백제의 멸망과 더불어 그것의 생명도 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강봉룡, 2006, 「신라 말-고려시대 서남해지역의 한중 해상교통로와 거점포구」, 『한국사학보』 23, 고려사학회, 387-390쪽.

이처럼 고고학적인 죽막동 유적과 문헌 기록의 주류수지(주류성) 지명을 통해, 지반(支半, 부안) 지역은 근초고왕(346~374) 이래 백제의 대외 창구로서 활발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죽막동과 함께 근래에 동진강 하구의 가야포(加耶浦)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⁸⁾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와 창북리 일대로 동진반도 염창산 부근에 해당하는데 대가야를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 및 전북 동부의 가야계 소국들이 중국과 국제 교류를 할 때 이용하던 국제 교역항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부 부안 주민들이 무작정 추종하는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야포는 부안 읍내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포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이 ‘가야포(可也浦)’는 『호구총수』(1789)에 염소면 가야곶리(可也串里)라고 나타나며, 현재 ‘가야개’는 사라졌어도 최근까지 ‘왕개(往-)’라는 혼합형 지명으로 전해져 왔다.⁴⁹⁾ 따라서 이 지명이 곧바로 ‘가야(加耶)’라는 고대 국가체와 연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야포(可也浦)’란 지명을 표기함에 같은 음가(音價)의 다른 한자 표기인 ‘가야포(加耶浦)’(『동여도』, 1857)로 기재되었더라도 『증보문헌비고』(1908)에 여전히 가야포(可也浦)라 기재된 것을 보면 관찬 문서에는 공식적인 지명 표기를 ‘가야(加耶)’가 아닌 ‘가야(可也)’로 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만일 가야포를 가야국과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더욱 세밀한 실체와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특히 고고학자들이 강조하는 관련 유적이 가야포라고 명명된 지역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48) 광장근, 2012, 「새만금해역의 해양문화와 문물교류」, 『도서문화』 3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7-28쪽.

49) 최기인, 2016, 「부안의 옛길을 따라-상술재 넘어 염소로와 가야개-동진개」, 『부안이야기』 14, 부안역사문화연구소, 98-105쪽.

나와야만 가능한 주장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언어유희적 놀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이것은 가야(加耶) 제국(諸國)과 무관한 지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의 유사성을 맹신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은 단순하지 않으며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사료 분석과 고고학적 증빙의 교차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지 않은 주장의 남발은 결국 지역사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7. 신라 중방 고사성을 변화시키다

사람들은 쉽사리 '삼국통일'이라는 말에 머리를 끄덕인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주입시킨다. ①삼국 통일로 우리 민족 문화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②통일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외부(당) 세력을 힘으로 물리쳤으며, ③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키고 전통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고구려·백제·신라의 세 나라가 합쳐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을까? 모두 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가 되어서 사이 좋게, 아름답게 살았을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북에 있었던 백제라는 나라 사람들은 신라국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지식은 전수자의 편익에 의해 재단된다. 흥부네 가족이 '보은포 박씨'를 켜서 얻은 어마어마한 재물로 과연 행복이 지속되었을까? 암행어사 이몽룡이 '어사 출도'를 외치고 성춘향을 구해낸 이후 들은 부부로 백년해로 했을까? 단순한 권선징악적 전래 동화에도 우

리는 그 이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물며 역사적 진실 앞에서는 언제나 통쾌한 결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늘날의 우리는 당시의 자세한 기록이 남지 않아 쉽사리 짐작할 수 없지만 백제의 멸망 후 백제 사람(유민)에 대한 신라의 지배 방식의 일단을 살펴봄으로써 어렵פות이 당시 상황을 추측해볼 수는 있다. 다시 말해 신라가 인재 등용 면에서 백제인, 고구려인에게 취한 행동을 통해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하려 했는지를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 통일이 가져다주는 환상과 오류를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표 5] 백제인의 신라 관등 수여 기준

백제 관계(官階)		신라 관계			
관계	관계명	관계	중앙관계명	지방관계	지방관계명
2	달솔(達率)	10	대나마(大奈麻)	4	귀간(貴干)
3	은솔(恩率)	11	나 마(奈 麻)	5	선간(選干)
4	덕솔(德率)	12	대 사(大 舍)	6	상간(上干)
5	한솔(杆率)	13	사 지(舍 知)	7	간(干)
6	나솔(奈率)	14	길 사(吉 士)	8	일벌(一伐)
7	장덕(將德)	15	대 오(大 烏)	9	일척(一尺)

백제 부흥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당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인 문무왕 13년(673)에 제정된 관등 수여 기준표이다.⁵⁰⁾ 신라가 백제인에 대한 대우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신라 사회에 편입될 경우 백제 사람이 받는 최고 관등은 10품 대나마였다. 신라에서 관등제와 신분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대나마는 '서울 사람(王京人)'이면 5두품

50) 『삼국사기』 40, 「잡지」 9, 관직 하, 백제인위(百濟人位).

출신자의 승진 상한선이었고, 지방인이면 진촌주(眞村主)는 5두품, 차촌주는 4두품의 대우를 받았다.⁵¹⁾ 따라서 이 기준대로라면 백제의 2품 관등 출신 중 특혜를 받아 신라 수도인 서라벌에 거주하더라도 진골은 고사하고 6두품도 아닌 5두품이나 그 이하 신분으로, 그리고 지방에 거주해도 5두품인 진촌주나 4두품의 차촌주의 신분이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8품~16품의 관등을 가진 백제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말이다. 이는 부흥전쟁에 실패하고 신라에 완전히 병합된 후 패망국 백제인에 대한 처우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백제 지역에 이주하여 보덕국을 세운 고구려인에 대한 신라의 대우는 조금 달랐다. 안승의 보덕국은 금마저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고구려 유민을 백제 거점 지역인 익산 지역에 동원한 것은 신라의 이이제이(以夷制夷)적 유민 지배 정책과 연관된다.⁵²⁾

[표 6] 고구려 보덕국인의 신라 관등 수여 기준

고구려 관계		신라 관계	
관계	관계명	관계	중앙관계명
3	주 부(主 簿)	7	일갈찬(-吉澗)
4	대 상(大 相)	8	사 찬(沙 澗)
5	위두대상(位頭大兄)	9	급벌찬(級伐澗)
6	종 대 상(從 大 相)		
7	대 형(大 兄)	10	대나마(大奈麻)
8	유 상(儒 相)		

51) 『삼국사기』 33, 잡지 2, 색목.

52) 이미경, 2015,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 대구사학회, 11쪽.

9	적 상(狄 相)	11	나 마(奈 麻)
10	소 상(小 相)		
11	소 형(小 兄)	12	대 사(大 舍)
12	제 형(諸 兄)	13	사 지(舍 知)
13	선 인(先 人)	14	길 차(吉 次)
14	자 위(自 位)	15	오 지(烏 知)

우선 보덕국의 고구려인이 받은 신라의 최고 관등은 7품의 일길찬으로, 백제인보다 3등급이나 높았다.⁵³⁾ 원 고구려 지역도 아니고 신라 항복 후 옛 백제 지역 금마저(익산)에 살면서 본래 6품관을 가진 사람을 백제인보다 높은 6두품 신분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신라가 편입된 백제인과 고구려인 사이에도 차별을 두었음을 뜻한다. 통일은 되었으나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희망보다는 시련의 굴레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인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며, 전면적인 신라인으로 융합시킬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삼국은 각각 지배층 사이의 신화나 제사 체계는 물론 언어라든가 행정 체계 등이 서로 달랐던 데다가 누적된 적대감까지 가미돼, 동족이 아닌 경쟁세력일 뿐이어서⁵⁴⁾, 신라 사람들이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피정복인으로 다스렸던 것이다.⁵⁵⁾

따라서 전쟁 이후 백제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피지배층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백제 유민에 대한 신라의 관등 수여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배층에 국한된 조치였다. 백제의 일부 지

53) 『삼국사기』 40, 「잡지」 9, 관직 하, 고구려인위(高句麗人位).

54) 박노자, 2010, 「거꾸로 보는 고대사」, 한겨레출판, 102쪽.

55) 이종욱, 2002, 「신라의 역사」 2, 김영사, 58쪽.

배층이 기존의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신라 사회에 안착한 것과 달리 대다수를 차지하던 피지배층은 더욱 열악해진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고된 삶을 맞이해야 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는다. 소위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부터 피지배층은 급속한 사회적 몰락 현상을 보였다.

법사(法師) 진정(眞定)은 신라인이다. 중이 되기 전에는 군졸이었는데 집이 가난해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부역을 하는 틈틈이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서 홀어머니를 모셨다. 집안에 재산이라고는 단지 다리 부러진 솔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삼국유사』 5, 『효선』 9, 眞定師 孝善雙美)

신라 화엄조의 개조인 의상 대사(625~702)의 제자였던 진정 법사의 이야기인데 가난한 정도가 재산이라곤 “다리 부러진 솔 하나 뿐(折脚一鐺而已)”이라 한다. 그의 활동 상황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시기로 추정되는데 살림살이가 매우 곤궁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대부분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케 한다.⁵⁶⁾ 신라 지역은 전장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으므로 백제 지역 보다는 양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전국인 신라의 피지배층도 궁핍한 삶에 놓였음을 감안할 때, 패전 당사자인 백제 유민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을 것이다. 장기간의 전쟁에 수반된 농업 생산의 파괴, 노동력의 감소, 농지의 황폐 등으로 백제 지역의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을 지속시켰을 것이다.⁵⁷⁾

56) 한준수, 2023, 『7세기 후반 신라의 지배질서 정비와 여제 유민의 대응』,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19쪽.

57) 김용섭, 2019, 『한국고대농업사』, 지식산업사, 226쪽.

따라서 신라로서는 생산력의 파괴를 회복시키고, 피정복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백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배질서 구축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친신라적인 지배층의 편입 등 인적·사회적 구조의 변화 유도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지리적·행정적 구조의 개편을 추구하였을 것이다.

물론 백제 멸망(660) 직후 전북 지역을 비롯한 백제의 옛 땅은 곧바로 신라의 차지가 아니라 당나라군의 점령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른바 도독부 체제가 설치된 것이다.

나라에는 본래 5부, 37군, 200성, 76만 호가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웅진(熊津)·마한(馬韓)·동명(東明)·금련(金漣)·덕안(德安)의 5개 도독부를 나누어 설치하고 각기 주·현을 통솔케 하였으며, 우두머리[渠長]를 뽑아 도독·자사·현령을 삼아 다스리게 했다.(『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

무릇 5도독·37주·250현을 설치하고, 호(戶) 24만·구(口) 620만을 각각 편호(編戶)하여 정리하니 모든 오랑캐의 풍속이 바뀌어졌다.(『대당평백제비문』)

당의 도독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라와 당이 동맹을 추구하던 무렵(649)부터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면 양국의 유민이 저항할 것이고, 신라는 이를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김춘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춘추가 당 태종의 의도를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수용하였던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는 것이다.⁵⁸⁾

어쨌든 백제 정벌 당시의 영역에 대해 위의 『삼국사기』에는 ‘5부 37군 200성’이라 하였고, 「대당평백제국비명」에는 ‘5도독부 37주 250현’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5부는 맥락상 수도의 행정 구획인 부(部)가 아니라 광역 지방 행정 단위인 방(方)을 의미한다. 따라서 멸망 당시 백제는 5방 37군 200성의 행정 체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옛 백제 땅을 대상으로 계획한 당의 지배 구조는 5도독부 37주 250현이었다. 「대당평백제비문」에는 ‘660년 경신년 8월 15일에 건립하였다(顯慶五年歲在庚申八月己巳朔十五日癸未建)’고 새겨져 있다. 즉, 백제의 항복 의례를 거행한 8월 2일로부터 1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도독부-37주-250현이라는 행정 체계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정벌 이전부터 백제에 대한 기미 지배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의 5도독부 설치가 실제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 보다는 오히려 당이 백제 땅을 5도독부-37주-250현의 기미부주로 편제하여 지배하겠다고 선포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⁵⁹⁾ 백제 말기 지방 통치 체제와 관련하여 위의 『삼국사기』 「백제본기」 이외에도 『삼국유사』 「태종춘추공」, 『구당서』·『신당서』 「동이열전」 등에는 5방-37군-200성이라 한 반면 「대당평백제비문」에는 5도독부-37주-250현이라 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의자왕 즉위 후 꾸준히 진행된 영토 확장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서였으며, 부흥세력에게 호응한 200여 성을 고려하면 나머지는 나·당군이 장악한 숫자라고 보기도 한다.⁶⁰⁾

58) 김덕원, 2022, 「나당동맹의 전개 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33-134쪽.

59) 방향숙, 1994, 「백제고토에 대한 당의 지배체제」,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321쪽 ; 조재우, 2017, 「「유인원기공비」의 해석과 당조의 백제고토 지배방식」, 『사림』 61, 수선사학회, 119쪽.

60) 김영관, 2013, 「대당평백제국비명에 대한 고찰」,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6쪽.

이처럼 당의 5도독부 체제는 백제 고지 각지에서 발흥한 부흥군 세력으로 인해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비록 탁상 계획에 불과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5방(方)-5도독부(都督府)’ 및 ‘37군(郡)-37주(州)’의 상응 관계로 볼 때, 당이 기존에 있던 백제의 ‘5방 37군’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5도독부 37주’ 체제를 구축하려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그 분포 범위는 곧 멸망 당시 백제의 전체 영역을 의미한다.⁶¹⁾

이처럼 부흥백제국이 실패하고 중방 고사성 지역은 당령(唐領) 고사주로서 명맥을 이어갔다. 당은 옛 백제 땅을 직할 영역으로 삼고자 1도독부 7주 51현 체제로 재편하는 과정(664~665)에서 7주로 편제하였다. 즉, 동명주(충남 공주), 지심주(충남 예산 대흥), 노산주(익산 함열), 사반주(전남 영광), 대방주(전남 나주 다시면), 분차주(전남 담양), 고사주를 두었다. 이 고사주는 평왜(정읍 고부·부안 백산), 대신(정읍 칠보), 벽성(김제), 좌찬(고창 흥덕), 순모(김제 만경)⁶²⁾의 5현을 거느려 대략 현재의 부안·정읍·김제·고창 지역으로 전북 서해안 일대의 모든 지역이 해당하는 것⁶³⁾으로 보아 백제의 지역 거점인 중방 고사성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61) 박종욱, 2019, 『660년 백제의 영역과 가야고지』, 『백제학보』 29, 백제학회, 65-66쪽.

62) 최병운, 2000, 앞의 책, 129쪽.

63) 김주성, 2016,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중방성』, 『백제문화』 5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47쪽.

[표 7] 중방 고사성 지역의 분화

당령 고사주	지리지 4 백제	지리지 3 신라	현재 위치
평왜현平倭縣 (고사부촌古沙夫村)	고사부리군	고부군	정읍 고부
	개화현	부령현	부안
	흔랑매현	희안현	부안 보안
좌찬현佐贊縣 (상두上杜)	상칠현	상질현	고창 흥덕·성내·신림
대산현帶山縣 (대시산大尸山)	대시산군	대산군	정읍 칠보
	빈굴현	빈성현	정읍 태인
	정촌현	정읍현	정읍시내
	아서이현	아서현	김제 금산
벽성현辟城縣 (벽골辟骨)	벽골군	김제군	
	수동산현	평고현	김제 용지·백구
	내리아현	이성현	김제 청하·공덕
	무근촌현	무읍현	
순모현淳牟縣 (두나지豆奈只)	두내산현	만경현	김제 만경·진봉

그런데 문무왕 10년(670)에 시작된 나·당 전쟁에 따라 문무왕 11년에는 옛 백제 지역의 당 세력을 축출함에 따라 비로소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이처럼 신라 병합 후 백제 지역은 신문왕 5년(685)까지 신라식의 4주(사비·완산·발라·청)와 3소경(금관·서원·남원) 아래에 군현으로 편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삼국사기』 「지리지」 3에는 “본래 백제의 〇〇군·현(本百濟 〇〇郡·縣)”으로 기록된 곳은 모두 35군 105현이, 「지리지」 4의 백제 군현 중 말미에 부기된 날이군(奈已郡; 경북 영주 일대)을 제외하면 37군 104현이다. 비록 신라가 정리한 ‘기록’이지만 ‘본래 백제 군·현’ 37군에 주목하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재된 백제 군현은 총 37군

104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신라의 지배 아래 지방 통치 제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면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옛 백제 지역은 신라가 당군까지 몰아내고 차지한 이후에 다시 ‘신라식 통치의 확립’이란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신라는 지방 중심지인 중방 고사성과 부흥전쟁의 거점인 주류성 등 백제의 유구성과 전통성을 강하게 간직한 지역에 대한 변모를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안, 정읍, 고창, 김제 등 전북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고사주의 저항 의식을 해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격의 대산군, 고부군, 벽골군 등으로 재편하면서 ‘백제 의식’의 변질을 시도하였다고 추측된다. 다만 고부와 부안은 신라식 지방 행정 체계 내에서도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은 고사성과 주류성의 긴밀성이 상당 기간 존속되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긴밀성이 마한 소국 시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면 부흥 세력이 고사성과 함께 주류성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I. 부흥세력의 태동



II. 부흥세력의 태동

1. 백제 항복과 '흥망계절'의 의미

백제 부흥전쟁의 발생 배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하나는 멸망한 왕조를 부흥시키려는 창의(倡義) 정신의 발로이다.⁶⁴⁾ 즉, 잠시 중단된 왕조를 다시 일으켜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660) 원군을 요청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들었다. '부위계절(扶危繼絕)'은 향전(恒典)에 나타나 있다. 『일본서기』 26, 제명 6년 10월)

(660) 목책을 세우고 영채를 이어 유진군(留鎭軍)을 공격해서 포위하였다. 운계(雲梯)로 굽어보고 지도(地道)로 환히 들여다보며, 돌을 던지고 화살을 날리는 것이 유성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밤낮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아침저녁으로 세력을 믿고 침범하면서 스스로 '흥망계절(興亡繼絕)'이라고

64)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83-85쪽.

일컬었다.〔당유인원기공비〕

(665) 유순한 자는 받아들이고 배반하는 자는 정벌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도이고, ‘흥망계절(興亡繼絶)’은 옛 성현의 공통된 가르침이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5년)

위의 기록처럼 부흥군의 봉기는 ‘위기를 도와 끊어진 것을 잇는다(扶危繼絶)’, ‘망한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잇는다(興亡繼絶)’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중 『일본서기』의 기록은 백제 복신의 부여풍(풍장) 귀환 요청에 대한 답변 글에 나오는 내용으로, ‘위급함을 돕는다’는 것은 왜의 백제 구원 조치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기록은 신라 문무왕과 웅진도독 부여웅의 회맹문에 나오는 것으로, 주체는 당나라이다. 즉, 당의 법도가 순응하면 받아들이고 배신하면 정벌하는 것이며, 당의 의지에 따라 망한 것을 일으키고 왕통이 끊어진 것도 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백제 땅이 그들의 영향력 아래 존속되는 지역으로 남기려는 정책적인 판단과 추진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인원기공비」는 도침·복신 등이 사비 주둔 당군을 공격하면서 스스로 ‘망한 것을 흥하게 하고 끊어진 것을 잇는다(興亡繼絶)’는 의식을 퍼트렸다고 볼 수 있게 한다. 당시 부흥 세력은 사비 주변을 포위하기 위해 목책과 영채 늘어놓은 채 당군을 압도하였다. 또 운제(구름사다리), 포차(발석차) 등의 공성 장비 동원, 땅굴 파기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전개 중이었다. 나아가 진중에 ‘백제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부흥 세력 사이의 연대를 굳히고 적

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백제 부흥 세력은 창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형식적인 고사성어가 아니라 ‘백제국을 새롭게 세우자[興亡繼絕]’는 실제적 현장 구호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부흥전쟁이 점차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 아래 진화하였음을 보여준다.

2. 점령군의 약탈과 횡포

두 번째는 백제를 점령한 나·당 연합군의 과격한 행태에 따른 반응이다.

(660) 현경 5년에 소정방이 백제를 쳐 평정하자 (후치)상지는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이때 소정방이 백제왕 및 태자 용 등을 사로잡고는 군사를 풀어 약탈한 탓에 장성한 자들이 대부분 죽었다. (후치)상지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드디어 좌우 10여인과 본부(本部)로 도망쳐 와 달아났던 (무리를) 불러 모아 함께 임존산(任存山)에 성책을 쌓고 굳게 지키니 열흘 만에 귀부한 자가 3만 여인이었다. (소)정방이 군사를 보내 공격하니 (후치)상지가 죽을 각오로 싸우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막아 싸우니 당군(唐軍)이 크게 패하였다.(『구당서』 109, 「열전」 53, 후치상지)

(660) 고종 현경 5년에 이르러 소정방(蘇定方)에게 칙령을 내려 10도(道)의 강병과 병선 1만 척을 거느리고 백제(百濟)를 크게 깨뜨렸다. 그리고 그 땅에 부여도독부(扶餘都督府)를 두어 유민[遺氓]을 불러 모으고 중국관리[漢官]가 다스리게 하였으나 냄새와 맛이 같지 않아[臭味不同] 배반한다는 말이 자주 들리자 마침내 그 사람들을 하남(河南)으로 옮겼다.(『삼국사기』 46, 「열전」 6, 최치원)

우선 『구당서』 흑치상지전의 기록은 당 현경 5년에 소정방이 의자왕의 항복을 받은 후 사비성을 약탈한 것을 보여준다. 이때 당군은 사비성에 난입하여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며 젊은이들을 죽이는 등 갖은 행패를 벌였을 것이다. 이처럼 점령에 따른 재산 탈취, 부녀자 폭행, 인명 살상 등은 피지배민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 이렇게 되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결집시킨다면 왕조의 부흥까지도 도모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자체가 확실한 성공의 보장이 아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구당서』 기록만 놓고 볼 때에는 백제 평정(7월 18일) 이후 항복한 흑치상지가 당 정벌군의 파괴, 약탈, 살인 등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임존산으로 도망친 것으로 나오므로, 당군의 행태가 어느 정도 계기로 작용하였음은 짐작이 가능하다.

또 『삼국사기』 최치원전 기록은 백제민과 당군 사이에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내재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백제를 멸망시킨 후 당이 사비성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중국인 관료들로 다스리려 했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당인과 백제인 사이에 생활 문화와 풍습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냄새(臭)와 맛(味)이 다르다(不同)”는 것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 결국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을 따르도록 강요하면 그것이 저항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 역사상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당군이 정복자로서 우월의식을 가

지고 백제민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갈아뭇개는 등의 행위를 상정하고,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백제민들이 빈번히 항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⁶⁵⁾

한편, 점령군의 약탈·횡포와 함께 백제민의 봉기에 영향을 상당히 끼친 것으로 볼 상황은 또 존재하였다.

(660) 8월 2일에 술자리를 크게 벌려 장병을 위로하였다. (무열)왕과 (소)정방 및 여러 장수는 당(堂) 위에 앉고, 의자(왕)과 아들 용은 당 아래 앉혀서 때로 의자왕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百濟) 좌평(佐平) 등 군신(群臣)이 목매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7년 8월 2일 기록은 나·당 연합군의 전승 축하연에 백제왕 의자와 아들 부여용을 마루 아래에 앉히고 승전국 장수들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 패망국의 왕이 당하였던 치욕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바 당시 의자와 함께 끌려온 백제 신료의 오열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이런 사실을 보거나 들은 자들에게 의분의 감정이 생겨 곧 점령군에 대한 저항의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의자왕은 웅진방령이 일으킨 반란에 붙잡혀 항복한 점을 생각하면 의분의 감정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자왕 말기 정치 구도의 변화에 따라 권력에서 배제된 기성 귀족과 지방 세력이 왕권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660년 전쟁 과

65)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82쪽; 김영관, 2005,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86쪽.

정에서는 계백의 5천 결사대나 기벌포 방면 파견 병력 외에는 병력 동원이 어려웠다가 멸망 후 200여 성에서 부흥군에 호응한 점⁶⁶⁾을 고려하면 저항의 계기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이처럼 점령군의 횡포와 약탈, 백제민과 점령군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갈등적 요소, 그리고 백제인 스스로의 자존 의식 등이 부흥운동을 일어나게 한 요인들로 지적된 점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일리가 있고, 일정 정도 수공이 가는 분석이다. 이러한 논리는 얼마 되지 않는 사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지만 '점령군에 대한 저항'이라는 도식적인 논지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록 나·당 점령군의 약탈과 횡포라는 관점에는 동의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외세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이다.

3. '외세에 대한 저항'이라지만

당의 백제 침공과 이후 통치 상황, 또 준비가 미흡한 채 진행된 백제 주둔군의 양상을 보면, 당 점령군의 약탈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었으리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다.

(660) 9월 3일에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이 병사 1만으로 사비성(泗沘城)에 머물며 지키고, (신라) 왕자(王子) 인태(仁泰)와 사찬(少飡) 일원(日原)·급찬(級飡) 길나(吉那)가 병사 7천으로 돕게 하였다. (소)정방은 백제왕 및 왕족

66) 정동준, 2015, 『백제시대 망국의 리더십』, 『내일을 여는 역사』 58,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156쪽.

·신료(臣寮) 93인, 백성(百姓) 1만 2천인을 끌고서 사비(泗水)에서 배를 타고 당(唐)으로 돌아갔다.『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기록에 따르면 당은 백제 항복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반이 지난 9월 3일에 본국으로 철군하였고, 군대는 오직 사비성 방어하기 위해 1만을 주둔한 상태였다. 이 정도 병력은 한 지역을 방어할 정도이지 타 지역을 공격하거나 점령할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앞선 『구당서』 흑치상지전에 근거한 당군의 점령·약탈은 제한적인 행위로, 당 주력군이 떠나는 순간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당 주둔군이 의욕적으로 주변을 공격한다고 해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 여적(百濟餘賊)’이라 표현된 자위체들이 해당 지역에서 저항하면서 주변 세력과 연계해 반격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주둔 거점인 사비성마저 위협에 빠지고 만다.

한가하게 베개를 높이 베고서 서로 창끝을 다투지 않았고(閑然高枕 不與爭鋒)……적들이 오랜 날들을 헛되이 보내 힘이 다하고 기세가 쇠락하니(賊等曠日持久 力竭氣衰)……(『당유인원기공비』)

위의 기록처럼 당 주둔군은 전투를 벌이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부흥 세력이 쇠락하기를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그러므로 『구당서』 흑치상지전에 언급된 당군의 사비성 약탈·횡포를 과장하여 백제 전역의 봉기 원인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7년 8월 2일의 굴욕적인 항복 의례에 감정 이입되어 분노가 촉발되었고, 이것이 전 백제민의 저항으로 확산되

었다고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반드시’라는 입장에서는 긍정을 표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당시 항복 의식에 끌려가 눈물을 흘린 군신(群臣)은 위의 태종무열왕 7년 9월 3일 기록처럼 소정방이 본국으로 회군할 때 모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당유인원기공비」에는 이들을 “왕 부여의자와 아울러 태자 융 및 좌평·달솔 이하 700여인”이라고 하였고, 「대당평백제비문」에서는 “왕 부여의자 및 태자 융 그 외 왕(자) 여효 등 13인, 아울러 대수령 대좌평 사탁천복(沙託千福), 국변성 이하 700여인”이고 나오는데, 『일본서기』 제명 6년 10월 기록에는 “백제왕 의자, 그의 처 은고와 아들 융 등과 신하 좌평 천복, 국변성, 손등 등 모두 50여 명이 가을 7월 13일에 소(정방) 장군에게 사로잡혀 당나라로 끌려갔다”고 적었다. 따라서 660년 8월 2일의 나·당 연합군이 거행한 전승 축하연과 항복 의식에 따른 백제왕의 수도 상황이 지역의 자위조직체들에게 얼마마한 감흥이나 감정을 일으켰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있다.

백제 항복 이후 당으로 끌려간 왕족·대신과 백성들, 신라와 당에 투항한 세력, 고구려·왜로 망명한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는 백제 땅에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백제의 피지배층이겠지만 백제 땅에서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었다.

그 외 수령(首領) 고로도(古魯都)·꺠봉무꺠(꺠奉武꺠)·부여생수(扶餘生受)·연이보라(延爾普羅) 등은 모두 당군에 참여시켜 공을 세우고 귀순하니 혹은 대꺠에 들이고 혹은 꺠꺠꺠에 들이니 그 지역 전체 유민(遺民)이 예전과 같이 편안히 여꺠다.(『유인원기공비』)

백제를 항복시킨 후에도 당은 백제 전역을 점령하지 못한 채 실제적으로는 사비와 웅진을 장악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5도독부 체제는 백제의 지방 조직을 그대로 받아들여 5방(方)을 5도독부 체제로 전환하는 형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비와 웅진을 관할하는 웅진도독을 제외한 나머지 도독-자사-현령도 거의 백제 ‘지배층[渠長]’이었다. 이렇게 당이 발탁한 우두머리는 흑치상지와 함께 고로도, 부여생수, 연이보라 등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660년 7월 18일에 백제 의자왕이 당에 항복한 직후 백제의 상황은 수도인 사비성을 비롯한 일부만이 점령당했지만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다. 신라군 역시도 사비성에 머무르는 당군과 마찬가지로 백제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고, 단지 신라군과 전투가 벌어졌던 탄현·황산벌, 당군의 공격로인 기벌포에서 사비성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일부 거점만을 함락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나·당 연합군이 점령한 사비도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향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당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지위를 보장 받고, 지역의 주민들도 “예전과 같이 편안(安堵如舊)”하게 살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위의 기록은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부 지역인 사비성에 대한 당군의 약탈, 항복한 왕의 치욕으로 느끼는 의분 등의 요소만으로 당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백제 땅의 선택이 반드시 부흥전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계기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4. 저항의 근원적 계기와 공포

백제 부흥전쟁의 발생 계기를 당 점령군의 횡포·약탈, 즉, ‘외세의 침탈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라는 개념과 결부하려면 더욱 명쾌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의 백제 지역 지배가 오로지 사비성 주변 고수(固守)에 불과한 상황에서 점령군의 횡포와 약탈을 백제 전 지역인 5부, 37군, 200성에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 봉기가 일어난 배경에는 당과는 별개로 피해를 끼칠 만한 직접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백제민의 의식이 내재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실체가 지속되거나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봉기 원인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기록을 새롭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660) 이날(2일) 모척(毛尺)을 붙잡아 목 베었다. 모척은 본래 신라인(新羅人)으로서 백제(百濟)로 도망한 자인데 대야성(大耶城)의 검일(黔日)과 함께 성이 함락되도록 모의했기 때문에 목 베는 것이다. 또 검일을 잡아 (죄목을) 세어 “네가 대야성에서 모척과 모의하여 백제 군사를 끌어들이고 창고를 불 질러 없앴으로써 온 성 안에 식량을 모자라게 하여 싸움에 지도록 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요, 품석(品釋) 부부를 억박질러 죽였으니 그 죄가 둘이요, 백제와 더불어 본국(本國)을 공격하였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이다”고 말하고, 이에 사지를 찢어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나머지 백제적(百濟餘賊)은 남잠(南岑)과 정현(貞峴)□□□성(城)에 웅거하였고, 또한 좌평(佐平) 정무(正武)도 무리를 모아 두시원악(豆尸原嶽)에 주둔하면서 당과 신라인을 노략질하였다.

26일에 임존대책(任存大柵)을 쳤으나 병사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

고 단지 소책(小柵)만 쳐서 깨뜨렸다.『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8월)

앞선 『구당서』 흑지상지전 현경 5년(660) 기록에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의 왕 및 태자 용 등을 사로잡고는 군사를 풀어 약탈한 탓에 장성한 자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나온다. 이는 당 점령군의 약탈로 사비도성 인근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시비성의 실상이 인근에 급속도로 퍼졌다면 매우 심각한 파장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7년 8월 2일 기록에는 신라군도 대대적인 보복 행위를 취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위 기록은 신라의 대야성 함락(642) 때 백제에 투항한 내부 배신자를 처벌한 특수한 사례라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백제민 입장에서 보면 신라의 행위는 당군의 약탈과 똑같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구당서』 흑지상지전처럼 당군의 공식적인 약탈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사실은 없지만 ‘왕 및 태자 등을 사로잡고 군사를 풀었다’고 한 것을 보면, 7월 18일에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한 이후 자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군과 함께 진주한 신라군도 이런 행위를 빙자하여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련의 약탈·살인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공적·사적인 약탈과 보복 행위가 적어도 8월 2일까지 이뤄졌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흑치상지의 도주도 이러한 현실과 연계되어 있다. 처음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을 거느리고(率所部)’ 항복하였던 흑치상지마저도 점령군의 횡포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좌우 사람 10여

명과 더불어 임존산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도주가 당군에 대한 공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라인에게 받는 압박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기록에 당이 5도독부를 편제하면서 “우두머리를 뽑아 도독·자사·현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擢渠長 爲都督 刺史縣令以理之)”고 한 것을 보면, 투항한 흑치상지는 적어도 ‘풍달군장’을 보장받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군의 사비성 약탈에 놀라 달아났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8월 2일에 있는 의장왕의 항복 의례를 보면서 백제의 위상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와 함께 검일의 죽음 중에 나오는 ‘신라 공격’에 대한 죄목이 주는 두려움이 겹치면서 달아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 공략은 오랜 원한을 갚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처음부터 백제 정벌을 대야성(大耶城) 패배에 대한 복수로 여겨 단지 김춘추 가문의 명예 회복으로 생각하였다.

(660) 7월 13일에 의자왕의 아들 용(隆)이 대좌평 천복(千福) 등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니 법민(法敏; 문무왕)이 용을 말 앞에 끌어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전일에 너의 아버지가 내 누이를 무고히 죽여 옥중에 묻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가슴이 아프고 골치를 앓게 하였다. 오늘 너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고 꾸짖으니 용이 땅바닥에 엎드려 말이 없었다.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681) 7월 1일에 내가 어지러운 시기에 태어나서 때로 전쟁을 당하게 되었다. 서쪽을 치고 북쪽을 정벌하여 강토를 평정하였으며 반역자를 토벌하고 떨어진 자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데 없이 안정시켜 위로는 종묘의 유고(遺顧)

를 위로하고 아래로는 부자(父子)의 오랜 원수를 갚았다.『삼국사기』 7, 「신라 본기」 7, 문무왕 21년)

태종무열왕 7년(660) 7월 13일 기록은 나중에 문무왕이 되는 신라 왕자 법민(法敏)이 사비성(泗沘城)을 함락시킨 후 항복하러 나온 백제 왕자 융(隆)을 꾸짖는 내용이다. 김법민이 “전일에 너의 아버지가 내 누이를 무고히 죽여 옥중에 묻었다”고 한 것은, 642년에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하고 성주 품석(品釋)과 그의 아내인 김춘추의 딸을 죽인 사건을 말한다. 이때 김춘추는 “이를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박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로 슬퍼했으며, “대장부로서 어찌 능히 백제를 병탄하지 않겠는가(嗟乎大丈夫 豈不能吞百濟乎)”라고 다짐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춘추는 백제를 치고자 고구려·왜 등에 구원병을 청하려 갔지만 실패하였다. 그래서 나·당 관계의 성립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바로 신라 김법민이 백제 부여웅에게 퍼부은 매몰찬 발언이었다.

그런데 21년이 지난 후에도 문무왕은 자신의 유조(遺詔)에 “부자의 오랜 원통함을 되갚았다(報父子之宿冤)”고 밝혔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8년(668) 11월에도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묻고 원흉들을 처단하니 나라의 운명이 태평하게 되었다(問罪於百濟高句麗 元兇伏罪 國步泰靜)”거나 문무왕 9년 2월 21일 하교(下敎)에 “본래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원히 전쟁을 없게 하고 몇 대에 걸쳐 쌓인 깊은 원한을 갚았다(本欲平定兩國 永無戰鬥 雪累代之深讐)”고 한 기록들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라의 백제 정벌은 민족적 차원의 통일 의식 때

문이 아니라 ‘가문의 복수’라는 입장⁶⁷⁾이 강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춘추와 함께 통일의 주역이라 불리는 김유신도 그의 열전에 17살 때 고구려, 백제, 말갈 ‘삼국을 병탄할 마음(并三國之心)’을 가졌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통(統)’이 아니라 ‘병(并)’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3국은 ‘통합’의 대상이 아닌 ‘병탄’·‘평정’의 대상이었음이 확인된다.⁶⁸⁾ 일통 의식과 관련하여 문무왕 9년 하교의 ‘兩敵既平’, 문무왕 11년의 대왕보서 중 ‘始平兩國’ 등 국가 차원의 의식이나 공식 문서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 사실만 언급할 뿐이었고, 삼한일통 의식은 9세기 중반에 이르러 출현한다.⁶⁹⁾

그렇기 때문에 검일의 죄에 대해서 ‘백제 군사를 끌어들여 싸움에 지도록 한 것’, ‘품석 부부를 억박질러 죽게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의 ‘백제와 더불어 본국을 공격한(與百濟來攻本國)’ 죄목이 특히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검일은 백제 투항 이후 대신라전에 투입된 것을 짐작된다. 특히 신라 장수로서 최일선에서 활약했던 경험이 역으로 대신라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검일 개인에게만 한정한다면 신라인으로서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에 대한 추상같은 형벌 집행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본국 공격’이란 구절은 상황에 따라 신라를 공격한 백제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의자왕 시기 빈번히 이루어진 신라 공격을 감안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검일

67)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167쪽 ; 김영관, 2005, 앞의 책, 90쪽 ; 박승범, 2014, 『7세기 전반기 신라 위기의식의 실상과 황룡사9층목탑』, 『신라사학보』 30, 신라사학회, 310쪽.

68) 윤경진, 2014, 『삼한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신라의 천하관』, 『동방학지』 1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5-209쪽.

69) 윤경진, 2014, 『신라 통일의 금석문에 나타난 천하관과 역사의식-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 고찰』, 『사림』 49, 수선사학회, 205-209쪽.

에게만 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삼국 전쟁기에 죽은 인물로 25명이 언급되었다. 그 중 왜에게 죽임을 당한 석우로(昔于老)와 박제상(朴堤上), 나·당 전쟁 중에 죽은 소나(素那), 고구려와의 싸움 중에 죽은 설계두(薛屬頭)와 필부(匹夫), 보덕국 토벌 중에 죽은 빽실(逼實)과 김영운(金令胤)을 제외한 귀산(貴山), 추항(籌項), 찬덕(讚德), 해론(奚論), 부과(夫果), 취도(騷徒), 눌최(訥催), 반굴(盤屈), 관창(官昌), 김흠운(金歆運), 예파(穢破), 적득(狄得), 보용나(寶用那), 비녕자(丕寧子), 거진(舉眞), 합절(合節), 죽죽(竹竹), 용석(龍石) 등 18명(72%)은 백제와의 전투 중에 죽었다.⁷⁰⁾

(642) 사지(舍知) 용석(龍石)이 죽죽(竹竹)에게 “지금 병세(兵勢)가 이러하니 틀림없이 보전할 수 없다. 항복하고 살아서 뒷날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니, (죽죽이) “그대의 말이 맞으나 내 아버지가 나를 죽죽이라 이름 지은 것은 추운 날씨에도 시들지 말며 꺾일지언정 굽히지 말라는 것이니 어찌 죽음이 두려워 항복하여 살고자 하겠는가?”라 대답하고 힘을 다해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용석과 함께 죽었다. 왕이 이를 듣고 슬퍼하며 죽죽은 급찬(級飡)에 용석은 대나마(大奈麻)에 추증하며 그 처자식(妻子)에게 상을 주고 왕도로 옮겨 살게 하였다. (『삼국사기』 47, 「열전」 7, 죽죽)

(660) 관장(官狀)[혹은 관창(官昌)이라고도 한다]이……다시 적진(敵陣)으로 가서 맹렬히 싸웠다. 계백(階伯)이 붙잡아 머리를 베고 말안장에 매달아서 보냈다. (아버지) 품일(品日)이 그 머리를 잡자 흐르는 피에 옷소매를 적셨다.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7월 9일)

70) 김병남, 2004, 「신라의 삼국통일 의식과 그 실제」, 『한국사상과 문화』 24, 한국사상문화학회, 165쪽.

위의 기록처럼 죽죽과 용석은 직접적으로 대야성에서 전사하였다. 백제 정벌이 진행되던 660년 7월 9일에는 16세의 관창도 죽었다. 이처럼 격렬한 싸움의 연속이었던 양국의 상황에서 비록 백제가 항복했다 하더라도 신라가 민족적인 차원의 통일 의식에서 백제인들을 쉽사리 수용할 감정적인 정화(淨化)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국 모척과 검일의 죽음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일을 죽인 이유 중 “백제와 더불어 본국을 공격(與百濟來攻本國)”이란 표현은 단순히 그에게만 해당하는 사항도 아니다. 그것은 ‘본래 신라를 배신하고 백제로 투항하여 이후 신라를 공격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라와 전쟁을 치른 백제인들에게 적용할 조항도 된다. 비록 단 하나의 사례지만 직접적으로 항복 의례와 동일한 날에 모척과 검일이 처단되었다. 더군다나 다음의 문장이 곧바로 “나머지 백제적(百濟賊)은 남잡과 정현□□□성에 근거하였고, 또 좌평 정무는 무리를 모아 두시원악에 주둔하면서 당과 신라인을 노략질하였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구당서』의 흑치상지가 느낀 ‘공포와 두려움(恐懼)’의 실체는 당군의 약탈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적대국이었던 신라의 보복에 더욱 민감하였던 것이 강하지 않을까 한다.

5. 신라와 백제는 지독한 원수 사이

기록에 따르면 신라도 스스로 항복해온 백제인을 회유하고 포섭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660) 11월 22일에 왕이 백제에서 돌아와 논공행상을 하여 …… 백제인(百濟人)도 함께 재량에 따라 임용(任用)하였는데 좌평 충상(忠常)·상영(常永)과 달솔 자간(自簡)은 일길찬의 위(位)를 주어 총관(總管)의 관직에 두고, 은솔(恩率) 무수(武守)는 대나마의 위를 주어 대감(大監)의 관직에 두고, 은솔 인수(仁守)도 대나마의 위를 주고 제감(弟監)의 관직에 두었다.『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661) 9월에 백제 달솔(達率) 조복(助服), 은솔 파가(波伽)와 무리가 항복하였다. 조복은 급찬의 위를 주고 고타야군(古陀耶郡) 태수(太守)를 내렸으며, 파가는 급찬을 주었다. 둘 다 밭과 집, 옷 등을 하사하였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원년)

우선 무열왕 7년(660) 11월 22일 기록은 백제 항복 후 신라로 돌아와 행한 논공행상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백제인 좌평 충상·상영, 달솔 자간은 7관등의 일길찬과 총관직을 제수 받았으며, 은솔 무수는 10관등의 대나마와 대감, 은솔 인수는 대나마와 제감의 직을 수여 받았다고 나온다. 좌평 충상·상영은 계백이 거느린 백제군이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패배하면서 포로가 된 자들이었다. 이때 좌평 충상·상영과 함께 20여명이 포로로 잡혔던 바, 위의 관직을 받은 자들은 아마 이들 중에 포함될 것이다. 이들이 임명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소위 통일 전쟁이 격화되는 중에 신라 영토 안의 지방인에게조차 군 지휘관직이나 태수직을 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항복한 백제인에 대한 조치들은 파격적이다.⁷¹⁾ 그렇다면 이들은 포로가 된 이후 아마도 사비성 함락이라든가 항복

71) 하일식, 2001, 「삼국통일후 신라 지배체제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23, 한국고대사학회, 110쪽.

후 부흥세력들을 평정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좌평 상영은 나·당 연합군 방어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당과 싸울 것을 주장하던 좌평 의직의 의견과 반대로 신라 먼저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시킨 장본인이다. 이 상영과 충상이 계백과 함께 결사대로 출전하였다가 포로로 잡힌 후 신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까닭은 신라와 내통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유신 열전에는 진덕왕 2년(648)의 옥문곡 전투 후 김유신이 사로잡은 백제 장수 8명을 품석 부부의 유골과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신라인의 해골을 남겨 두어 유익할 것이 없으니 보내자(羅人骸骨 留之無益 可以送之)”고 주장한 인물이 바로 충상(忠常)이었던 사실과 그의 항복을 결합하면 대우를 받을 빌미는 충분하였다. 이외에도 649년 석토성 등 7성 함락 시 자신 항복하였다가 풀려난 좌평 정복(正福), 655년의 좌평 임자(任子)와 조미압의 관계 등도 친신라적인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실제로 무열왕 8년(661) 2월부터 개시된 부흥 세력의 사비성 공격에 대해 신라는 대당(大幢) 장군 품일(品日) 이하 일단의 구원군을 편성하였는데 이때 아찬 충상(忠常)이 참전하였다. 또 문무왕 원년(661)에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신라에게 군대를 요청하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하는 정별군을 일으켰을 때 충상은 상주(上州) 총관의 한 사람으로, 자간은 하주 총관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이 군대는 백제 부흥군이 웅산성에 웅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행로를 바꿔 웅산성을 포위·함락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웅산성과 함께 우술성(雨述城)이 함락 당할 당시 스스로 항복한 것이 바로 위 문무왕 원년(661)의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 등이었다.

이처럼 신라 또한 자신들에게 투항해 온 일부 백제 세력들은 활용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제 세력들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사람으로 당과 신라의 대병(大兵)을 대적하여 나라의 존망(存亡)을 알기 어렵다. 내 처자식[妻孥]이 노비가 될까 두려우니 살아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흔쾌히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마침내 다 죽었다.〔삼국사기〕 47, 「열전」 7, 계백)

위의 기록은 계백이 황산벌로 출정하기 전에 집안 식구를 죽이면서 한 말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 처자식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모두 죽이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계백 또한 ‘본국을 공격(來攻本國)’하였던 주요 인물이었기에 살아있었다면 치욕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일에게 적용된 죄목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더불어 신라와 백제의 대립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상황임은 익히 아는 바이다.

(671) 신라와 백제는 누대(累代)에 걸친 깊은 원수 사이인데 지금 백제의 상황은 따로 자립(自立)하여 나라를 세울 만하니 백년 이후 (우리) 자손(子孫)이 반드시 먹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문무왕 11년에 설인귀가 보낸 글에 대한 답서 중 일부에는 백제가 항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의 기미체제 아래서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신라의 우려감이 여실히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를 두고 지독한 원수 사이(新羅百濟累代深讐)”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언제나 서로 “먹혀 없어지고 말 것(必見吞滅)”을 두려워 한 것이다.

이처럼 침예한 대립을 뚫고 승리한 신라였기에 당시 상황은 승자의 여유를 보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바다를 건너온 이민족인 당은 승리에 따른 보상책으로 군사들의 사비성 약탈을 승인한 정도였지만 신라는 오랜 기간 지속한 백제와 전쟁 과정에서 누적된 과거의 원한을 풀려고 하였고,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백제인들에게 더욱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6. 막대기를 들고도 벌떼처럼 일어나다

패망한 백제의 지역 세력에게는 점령군인 당의 횡포 못지않게 신라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였다. 당군의 약탈과 신라의 보복에 공포를 느낄 자들은 사망으로 ‘도망치거나 달아났을(亡逸)’ 것이다. 그리고 더욱 안전한 곳을 찾아 ‘각기 군영을 두고 있던(各營一所)’ 임존성, 구마노리성, 두시원악 등을 향하였다. 『구당서』에 임존산에 성책을 세우고 단단히 지키자 10일 사이에 귀부한 자가 3만여 명이나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제의 자위조직체들은 언제쯤 형성되기 시작하였을까?

이에 서부 은술 귀실복신(鬼室福信)은 격분하여 임사기산(任射岐山)[혹본은 북임서리산이라고 한다]에 웅거하였고, 달솔 여자진은 중부 구마노리성[혹본에는 도도기류산이라 한다]에 웅거하여 각각 한 곳에 군영을 만든 후 흠어진 군졸들을 불러 모았다. 무기는 이전의 싸움에서 모두 다 써버렸다. 그래서 막 대기를 손에 쥐고 싸웠다. 신라의 군사가 패하면 그 무기를 빼앗았다. 이렇게 하여 백제병이 용맹해지면서 당도 감히 공격해 오려고 하지 않았다. 복신 등은 백제의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왕성을 지키고 있다. 국인이 존경하여 좌평 복신, 좌평 자진이라고 말한다. 오직 복신만이 영명하고 용맹한 위세를 발휘하여 이미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일본서기』 26, 제명 6년 9월)

세력이 강성해지자 이에 반역을 도모하니 곧 가짜 승려 도침(道琛)과 가짜 한술 귀실복신이 있어 민간에서 나와 그 수괴가 되었으니 반란세력[狂狡]를 불러 모아 임존(任存)을 점거하고 별떼처럼 주둔하고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이름을 빌리고 지위를 훔쳐 모두 장군이라 칭하였다. 성읍을 무너뜨리며 점차 중부(中部)로 들어와 우물을 틀어막고 나무를 베어냈고 집을 무너뜨리고 농막을 불살랐으며 지나는 곳마다 잔혹하게 죽여 살아남은 자들이 거의 없었으니 흉악한 위세가 이미 드러나 사람들이 모두 위협에 놀려 복종하였다. 『당유인원기공비』)

여러 기록들을 조합해서 보면 백제의 자위조직체들이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었다. 우선 『삼국사기』 무열왕 7년(660) 8월 기록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이 항복한 7월 18일로부터 약 보름만인 8월 2일의 나·당군 전승 축하 잔치 후에 남잡과 정현성, 좌평 정무의 두시원악 등이 봉기하였다. 『삼국사기』 무열왕 7년 8월 기록은 문맥의 전개 상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월 2일에 '주연을 크게 베풀어 장병을 위로하는(大置酒勞將士)' 부분 → 같은 날(8월 2일)에 모척과 검일을 죽이는 부분 → 남잡·정현 등과 두시원악 좌평 정무의 봉기 부분

→ 8월 26일 임존성 공격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8월 2일 이후에서 26일 이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봉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백제여적(百濟餘賊)’이란 부분이다. ‘나머지 백제도적’ 또는 ‘백제의 남은 무리’ 정도로 해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나머지(餘)’ 도적이란 표현은 나·당군의 공격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거나 항복하지 않은 무리이고, 이럴 경우 남잠·정현□□성에 ‘근거(據)’하고, 무리를 모아 두시원악에 ‘진을 친(屯)’ 좌평 정무는 8월 2일 이전부터 성을 지켰던 것이 된다. 아울러 당군의 약탈을 고려하면 이미 7월 18일 이후부터 자위조직체들은 분산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만 한다. 이 남잠·정현 등과 두시원악의 백제유민 결집을 부흥전쟁의 발생 시점으로 하고, 8월 2일 이전에도 유민들이 활동하였으므로 7월 18일에서 8월 2일 사이로 보기도 한다.⁷²⁾ 하지만 이것은 부흥전쟁이라기 보다는 당의 약탈과 신라의 보복에 대한 자위적 활동의 성격이 강했다.

더군다나 도침·복신·흑치상지의 임존성과 달솔 여자진의 구마노리성 등이 군사들을 모우고 있었다고 나온다. 이에 나·당군은 웅거 세력들 중 무리의 규모가 가장 큰 임존성을 8월 26일에 공격하였으나 병사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정방은 임존성 공략이 실패한 지 딱 7일 만에 본진과 함께 당으로 돌아가 버렸다. 단지 점령한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 당과 신라군 1만 7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당장

72) 김영관, 2005, 앞의 책, 97쪽.

에는 더 이상 백제 지역을 점령을 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저항세력[餘賊]’들은 ‘도망쳐 흩어진 것을 모우고(鳩集亡逸)’, ‘흩어진 군졸들을 불러 모았던(誘聚散卒)’ 것이다. 이 ‘백제병들이 용맹해지면서 당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百濟兵翻銳 唐不敢入)’된 것이다. 그리고 「당유인원기공비」처럼 스스로 장군이라 칭할 정도로 조직력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항세력[餘賊]’의 평가가 사뭇 다르다. 『일본서기』는 복신이나 여자진을 마치 백제의 구원자처럼 서술한 데 반하여 「당유인원기공비」는 흡사 잔인무도한 괴수(魁首)로 묘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록들을 조합해보면 복신·도침·흑치상지·여자진·정무 등으로 대변되는 백제 자위조직체의 위상이 서서히 변모함이 감지된다.

『일본서기』 제명 6년 9월 기록에 따르면 처음 봉기하였을 때는 무기가 없어서 막대기를 쥐고 싸웠고, 패배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사용할 정도로 빈약하였다. 그러나 용맹이 더해지면서 당군도 감히 함부로 못할 정도의 위세를 가지게 되었다. 「당유인원기공비」는 “우물을 틀어 막고 나무를 베어내고, 집을 무너뜨리고 농막을 불살랐다(堙井刊木 壞宅焚廬)”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전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당군의 입장에서는 ‘잔혹하게 죽이는 것(殘滅)’이지만 반대 측의 입장은 전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당서』 흑치상지전에는 임존성을 공격했던 ‘당군(官軍)이 대패(敗績)’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어찌됐든 ‘흉악한 위세(凶威)’라 할지라도 당군도 감히 공격해 오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될 정도로 복신 등의 세력은 확대되어 ‘국인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나이가 위의 기록을 결합해보면, 복신 등의 세력과 여자신의 세력이 상호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 임존성의 복신과 ‘중부’ 구마노리성의 여자진이 “각각 한 곳에 군영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복신 등의 세력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점차 중부로 들어왔다(隳城破邑 漸入中部)”고 하였으므로 ‘중부’를 여자진의 중부 고마노리성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과 함께 여자진이 합류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9월 23일의 사비성 공략 이전에 백제 자위조직체들 사이에 연계가 이뤄져 비로소 분산적이고 고립적인 일개 지역별 자위조직체에서 벗어나 광역의 백제 부흥전쟁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른 시기 당과 신라를 상대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적인 부흥전쟁에서 벗어난 것은 8월 26일의 ‘임존성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임존성에서 정규군 대신 부흥군이 나·당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한 첫 싸움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임존성 세력과 구마노리성 세력의 연계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9월 23일 사비성 공략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의 부흥 세력은 직접적으로는 당의 약탈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에는 신라의 보복 행위 또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의외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전쟁에서 갑작스런 패배를 안게 된 백제인의 상황은 한편으로 8월 2일 나·당군의 전승 축하연 겸 백제의 항복식에서 끌려온 여러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莫不鳴因流涕)’고 할 정도로 치욕적인 것이었지만 그보다는 관습적으로 이루어

진 승리자의 대규모 약탈과 그에 수반된 살육 그리고 더하여 오랜 기간 잠재되어 있던 이웃 적대 국가의 보복 행위가 더해지며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자들은 스스로 모여서 자위체를 조직하였지만 그런 자위체 즉 ‘백제여적(百濟餘賊)’들은 고립적으로 존재하였다. 이 단계에서 자위조직체들의 활동을 부흥전쟁으로 부르기에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부흥전쟁의 단초는 복신과 도침으로 대변되는 임존성 세력이 나·당군의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위세를 발휘하게 되었고, 중부의 여자진과 연계하면서 비로소 고립·분산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는 데에에서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연계된 자위체들이 바로 임존성, 구마노리, 두시원악 등이었고, 나아가 남잠·정현□□성·왕흥사잠성·이례성 및 20여 성 등도 크게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8월 26일 임존성 전투와 구마노리성의 연계 시점이 비로소 백제 부흥세력의 결집과 부흥전쟁의 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부흥전쟁의 개시와 승리



Ⅲ. 부흥전쟁의 개시와 승리

1. 660년의 '사비성' 탈환 노력과 실패

660년 7월 18일에 나·당 연합군은 백제 수도인 사비를 함락시키고, 웅진으로 도주했던 의자왕의 항복까지 받아냈다. 왕의 공식 항복으로 백제는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백제의 모든 지역이 점령당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왕도 함락과 왕의 생포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660년 9월 3일에 의자왕과 왕족 및 신하 93명·백성 12,000명을 포로로 하여 사비성(부여)을 떠나 당으로 회군하였다.

『자치통감』 「당기」 현경 5년(660) 11월 기록에는 나·당군의 사비 공략으로 항복하여 당나라 낙양까지 포로로 잡혀 왔던 의자왕 등을 풀어주었다고 나오는데, 『구당서』 백제전에 당의 수도[京師]인 낙양에 와서 며칠 만에 죽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660년 11월

에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의자왕은 사비성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자리에서 신라군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다시 660년 9월 3일에 사비성을 출발하여 11월 1일에 당의 낙양성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2달 가까이를 바닷길과 육로를 전전하며 쌓인 피로가 누적되어 병이 생겼을 것이다. 적의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과정에서 겪은 수모와 좌절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더하여 마지막에는 당연히 처형되리라 짐작했기에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였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은 목숨을 재촉하기에 충분한 지경이었다.⁷³⁾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황해를 건너 당나라군이 13만이었고, 여기에 신라군은 5만이 별도로 출병하였다. 나·당군은 모두 18만이란 압도적인 군세를 통해 백제 수도를 순식간에 무너트렸다. 하지만 당의 궁극적인 동방 정벌 방향이 고구려였기에 백제 정벌 주력은 곧바로 철수시켰던 것이다. 신라군 역시 삼년산성으로 물러났다. 그러므로 백제 지역에는 유인원이 1만의 군사로 백제부성에 주둔하였고, 신라에서는 보조군으로 7천을 지원하는 정도여서 사비도성 함락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소요 사태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의 ‘대군이 돌아간 후(大軍廻後)’에 복신 등은 곧바로 부흥군을 일으켜 백제부성인 사비성 탈환을 위한 거병을 단행하였다. 당시 백제군은 당 본진이 모두 철수하고 나·당 주둔군 1만 7천명만이 남았던 사비성을 660년 9월 23일부터 공격하였다. 금강의 서쪽(江西)인 임존산의 3만 세력과 주변 구마노리의 여자진, 두시원악의 정무 등이 합세하였다. 부흥 연합 세력은 나·당 주둔군의 본거지

73) 김영관, 2009, 『의자왕의 압송과정과 당에서의 행적』, 『백산학보』 85, 백산학회, 139쪽.

인 사비성(백제부성)⁷⁴을 포위하며 조금씩 전진하여 우선 성 바깥의 목책을 깨뜨리고, 주둔군의 군량을 모두 빼앗는 등의 성과를 거둔 후 다시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유인원 휘하의 나·당 주둔군은 겨우 방어하는 수준이었으나 부흥군은 오히려 사비(부여) 주위 4곳에 성을 쌓아 포위망을 강화하였고, 이례성 등 주변 20여 성까지 부흥군 측에 호응하자 당군은 더욱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삼년산성의 신라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부흥군이 사비성을 포위한 지 보름 만인 10월 9일에 신라는 무열왕이 다시 태자 법민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사비성으로 가기 위해 이례성(논산 연산)을 먼저 공격하여 10월 18일에 떨어뜨리고, 10월 30일에는 사비남령 주둔 부흥군을 공격하여 물리친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사비성의 강 건너에 있던 부흥군의 왕흥사잠성을 함락시켜 위급함을 구했다.

(660) 다시 양식(糧食)을 운반해 드디어 1만 당군[漢兵]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위기를 면하도록 하였으며, 주둔[留鎮]하며 굶주린 군대가 자식을 서로 바꿔 먹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그런데 당시 신라군의 목표는 부흥군의 궤멸이 아니라 당군의 식량 지원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열왕 7년(660) 9월 23일에 부흥군이 사비남령 주변에 4~5책을 세웠다고 나오고, 문무왕 11년에도 “부성 근처 4곳에 성을 쌓았다(府城側近四處作城)”고 하였으므로, 무열왕 7년 10월 30일에 공격한 사비남령의 군책과 왕흥사잠성은 4책성(柵城)

74) 김수미, 2006, 「백제부성의 실체와 웅진도독부 체제로의 전환」, 『역사학연구』 28, 호남사학회, 34쪽

중의 일부일 것이다. 『당유인원기공비』의 끝부분에 “柵二城 時屬窮 冬 □□□□”이라 적은 것을 보면, 사비성 일대 부흥군 포위 시설 중에 함락된 것은 2개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660년 10월에 신라가 보낸 구원군은 백제 부흥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단지 고립된 나·당 주둔군에 대한 군량 지원에 필요한 응급조치였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신라의 움직임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포위된 사비성의 뚫고자 신라군이 부흥군을 친 바로 다음날인 660년 11월 1일에 칠중성을 고구려가 공격하여 성주인 필부를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필부는 20여 일을 싸우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고구려는 아마도 10월 10일에 칠중성을 공격한 것이 된다. 신라 무열왕이 사비성에 고립된 나·당군을 구원하러 간 바로 다음날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것이다. 비록 고구려가 상대해야 하는 주적은 당이었지만, 백제가 망한 상태에서 신라가 당과 공동 군사행동을 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신라의 북변인 칠중성을 공격함으로써 신라의 방어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⁷⁵⁾ 이처럼 칠중성 소식은 신라군을 더욱 제한적으로 만들어 11월 7일에 왕흥사잠성을 깨뜨린 후 곧바로 부대를 정비하여 11월 22일에 철수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660년 9월 23일에 개시된 부흥군의 사비성 공격은 10월 30일과 11월 7일에 신라 원군의 사비남령 군책과 왕흥사잠성 함락으로 주춤거렸으나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부성 주변의 목책 일부를 지켜 얼마든지 사비성의 빈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부흥군의 주된 전투가 사비남령, 왕흥사잠성 등 사비성 주변에서 일어난

75) 정호섭, 2023,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과 고구려의 대응」, 『선사와 고대』 72, 한국고대학회, 487쪽.

것은 나·당 주둔군을 축출하여 백제 도성을 수복하는 것이 백제국을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 부흥전쟁의 의미와 주도

백제 부흥 세력이 각처에서 일어난 배경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복신·도침·정무·여자진 등은 나·당 침략군을 물리치고 왕통을 계승하면 국가는 존속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흥전쟁은 국가 멸망에 따른 ‘새로운 창업’이라기보다는 위험한 국가적 상황을 ‘바로잡아 수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할 수 있다. 왕이 사라진 이후인 660년 9월 23일에 수도를 탈환하고자 노력하고, 다시 10월에는 왜국에 부여풍의 왕위 계승에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 생각의 연장선인 것이다.

백제 부흥전쟁의 개시와 종말을 볼 때 중요한 것은 660년 7월 18일에 백제 왕 의자가 항복한 순간부터 부흥을 도모하려는 백제 세력은 새로운 왕권 수립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부흥전쟁’은 바로 그러한 행동의 일단일 뿐이다. 외부 침략에 대한 저항 즉, ‘아’와 ‘비아’의 투쟁이란 근대적 관점에 몰입되었기에 외세 축출 움직임, 실패, 망국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을 꾀하고자 한 기저, 즉 왕통 복원과 국정 연속이라는 내부 정치 행위란 점에서 ‘부흥전쟁’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통치 체계가 갑자기 붕괴된 상황에서 주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행동하던 백제인들은 조건만 허용된다면 얼마든

지 몽칠 수 있었다. 『삼국사기』 무열왕 7년(660) 8월 2일에 남잠성, 정현성, 두시원악 등은 나·당군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체(自衛體)였다. 이들은 당장 국가 재건이나 왕위 계승 같은 정치적 행동을 취할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임존산 웅거 세력은 달랐다. 당이 보기에 그들은 ‘반역을 도모’할 뜻을 품은 자들로, 무리 규합을 위해 ‘미친 듯이 날뛰며’ 노력하였다. 여기에 일시 항복하였던 흑치상지의 무리까지 합류하며 세력이 더욱 커졌다. 더군다나 세력을 해체하고자 공격한 당군을 물리치면서 백제인의 기대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 제명 6년 기록에 복신과 여자진이 함께 언급된 것을 보면, 그들은 일본에 사신이 도착한 9월 이전에 이미 연계 상태였다. 각기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라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합 자체가 더욱 커다란 세력의 전제 조건이다. 이 상황에서 백제 부흥전쟁의 선도 내지 헤게모니는 복신과 도침으로 대변되는 임존산 세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삼국사기』 열전을 보면 흑치상지도 부흥전쟁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의자왕 항복 이후 당나라에 투항한 전력이다. 이는 백제 부흥 세력이 힘을 얻을수록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강대한 힘을 구축하였더라도 그는 임존성과 함께 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백제를 열어 갈 리더로서 역할을 펼치기에는 힘든 처지였다. 흑치상지의 항복이 의자왕의 권유와 당군의 시한부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도 하지만⁷⁶⁾, 663년에 다시 투항하여 임존성을 공략한 것을 보면 그의 ‘타고난 처세술’이 타당할 지

76) 이도학, 1999,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98쪽.

도 모른다.⁷⁷⁾

이것은 정무도 마찬가지이다. 기록대로 정무가 백제 좌평직을 수행하였다면, 당시 그는 국정 담당자 중의 하나로 나·당의 침공에 따른 백제 중앙정부의 대응 실패와 무관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그가 부흥전쟁 초기에 수뇌부로 활동하게끔 하였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부흥 세력을 움직일 정점에 있을 수 없게 하였다.

결국 부흥전쟁은 도침과 복신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여자진이 정점의 일부를 차지하고 다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무와 흑치상지 등이 참여하는 세력이 연합하면서 점차 조직과 체계를 갖춰 나갔고, 이러한 자신감을 근거로 대외적으로는 왜국에 사신을 보내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려고 피하는 한편 새로운 왕위 계승자를 추대하여 백제의 '계속'을 실행하려 했던 것이다.

3. 새로운 부흥전쟁의 중심지

부흥 세력은 나·당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중심지의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660년 7월에 사비도성이 나·당군의 공격으로 함락된 후 부흥 세력이 재 수복하려고 한 것은, 바로 도성을 탈환하여 백제국의 지속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사비성은 여전히 나·당군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전쟁은 탄력을 받아 처음 금강 서쪽(江西)의 임존산을 근거로 전개하던 것을 넘어 점점

77) 이성범 역(도야마 미쓰오 저), 2002, 『우리가 몰랐던 왜군의 백제파병 이야기-백촌강전투』, J&C, 135쪽.

[그림 1] 김정호의 '동여도.(규장각 소장)



부흥 세력은 수도 사비성의 수복이 늦어지자 새로운 중심지로 정부를 옮기려 하였다. 유력한 후보지로 금마(익산), 고사(정읍 고부), 피성(김제) 등이 주목되었지만 결국 주류성(부안)이 선택되었다.

금강 동쪽으로 확대해 나갔다. 따라서 부흥전쟁이 일부 거병 세력에 불과하다는 시선을 넘어 폭넓은 지역에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백제는 이와 관련

된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200여 년 전에 고구려의 침공(475)으로 한성을 유린당한 후 간신히 웅진으로 천도하여 국가를 재건한 일이다. 따라서 660년에 사비성이 함락되고 왕이 잡혀간 상황은 다시 새로운 국가 재건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중심지 또한 모색하게 하였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곳은 침략에서 비껴나 있던 금강 이남이었다. 사비에서 남쪽으로는 백제 무왕이 수도로 준비했던 금마저(익산)가 있었고, 광역 행정 체계인 중방 고사성도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초기부터 거점인 임존성이 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성은 조직

을 꾸릴 일시적 거점은 가능하나 항시적인 중심 역할은 부족한 면이 있다. 사비(부여)에 계속 나·당군이 주둔하는 한 임존성은 북쪽의 신라 남쪽의 당군을 제어해야 한다. 부흥 세력은 이미 660년 10월에 부여풍의 귀환을 요청하였다. 이러면 새롭게 즉위할 왕과 국정을 운영할 장소는 안전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임존성은 당군과 신라군이 남북으로 공격하면 곤장 어려움에 처한다. 또 다시 ‘의자왕의 재판’이 도래할 수 있게 된다. 부흥 세력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흥전쟁의 성패는 새로운 백제 정부의 안정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을 통해 민심 안정을 기하고, 부흥전쟁에 대한 여론과 호응을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안정된 남쪽 지역을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합법적 정부의 구성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한 지원은 침략군 축출이란 대전략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인 것이다.

사비성의 함락으로 금강 유역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외 교류 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가까이에 항구 기능을 수행할 지역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남쪽 지역은 임존성보다는 당장 지원을 받을 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교섭에도 유리한 고사성, 공주·부여로 이어지는 해상로의 길목이자 대중국·대왜 사절선이 드나들던 부안 죽막동 유적⁷⁸⁾ 등과 같이 항구를 확보할 강점을 지녔기에 부흥전쟁의 새로운 중심지로 각인되지 않았을까 한다.

결국, 도침·복신 등의 부흥 주도 세력은 사비성의 수복이 조기에 실현되지 않자 대당 투쟁의 지속과 함께 장기적인 근거지이자 수도의

78) 우재병, 2010, 『백제 서해안지역 죽막동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왜인의 흔적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33, 한국고대학회, 292-293쪽.

기능을 수행할 차원에서 중방 고사성 일대를 주시하였던 것이다.

4. 두량윤·고사비성의 위치

660년 9월 23일에 개시된 백제 부흥 세력의 사비성 주둔군 포위전은 10월 30일에 신라군이 일부 포위진을 깨트리면서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면서 사비성 탈환은 661년 봄에 재개되었다. 아래의 기록들을 통해 661년 2~4월 사이 당·신라와 백제 부흥 세력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된 전투 상황을 알 수 있다.

㉓ 이때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은 백제부성(百濟府城)을 지켰다. 도침(道琛) 등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였다. 대방주자사(帶方州刺史) 유인궤(劉仁軌)가 문도(文度)를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고 지름길로 신라군을 발동하여 함께 약속하여 유인원을 구하고자 싸우면서 나아가는데 향하는 곳마다 모두 함락시켰다. 도침 등은 **웅진강구(熊津江口)**에 2책을 세우고 관군을 막았다. 유인궤는 신라병(新羅兵)과 함께 사망에서 공격하니 적들은 물러나 목책으로 달려 들어갔으나 물에 막히고 다리가 좁아 물에 빠져 죽거나 전사한 자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도침 등은 이에 유인원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나 **임존성(任存城)**을 지켰고 신라병사(新羅兵士)도 양식이 다 떨어져 돌아갔다. 이때가 용삭(龍朔) 원년 3월이었다.〔『구당서』 열전 동이 백제〕

㉔ 봄 2월에 백제 잔적(殘賊)이 **사비성(泗沘城)**을 공격하였다. 왕은 이찬(伊飡) 품일(品日)을 대당(大幢) 장군으로 임명하고, 잡찬(迺飡) 문왕(文王)·대아찬 양도(良圖)·아찬 충상(忠常) 등으로 하여금 돕게 하였다. 또한 잡찬 문충(文忠)을 상주(上州) 장군으로 임명하고, 아찬 진왕(眞王)으로 하여금 돕

게 하였으며, 아찬 의복(義服)을 하주(下州) 장군, 무홀·육천 등을 남천(南川) 대감, 문품을 서당(誓幢) 장군, 의광을 낭당(郎幢) 장군으로 임명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3월 5일, 충도에 이르자 품일이 휘하의 일부를 나누어 **두량윤(윤(尹)을 이(伊)라고도 한다.)성** 남쪽에 먼저 가서 진지를 만들 곳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백제인(百濟人)은 우리 진영이 정돈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갑자기 나와 불의(不意)의 급습을 해왔다. 우리 군사들이 몹시 놀라고 궤멸하여 패배했다. 12일에 대군이 **고사비성(古沙比城)** 밖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두량윤성(豆良尹城)**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6일 동안 이기지 못하였다. 여름 4월 19일에 군대를 돌려서 대당·서당을 앞세우고, 하주군을 가장 뒤에 따라오게 하였다. **빈골양(賓骨壤)**에 이르렀을 때, 백제군(百濟軍)을 만나 싸웠으나 패퇴(敗退)하였다. 사망자는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군수품을 많이 잃었다. 상주·낭당은 **각산(角山)**에서 적을 만나 진격하여 이기고, 백제 둔보(屯堡)에 따라 들어가 2천 명을 참살하였다. 왕은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김순, 진흥, 친존, 죽지를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가시혜진(加尸兮津)**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가소천(加召川)**까지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 왔다. 왕이 여러 장수가 대패[敗績]한 책임을 물어 정도에 따라 벌을 주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

㉔ (현경) 6년에 이르러 복신(福信)의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의 동쪽 땅을 침범하여 빼앗았으므로, **웅진(熊津)**의 당군[漢兵] 1천 명이 적의 무리들을 공격하러 갔다가 적에게 격파당하여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 싸움에 패한 이후 웅진에서 군사를 요청함이 밤낮 계속되었는데, 때마침 신라에는 전염병이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청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워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주류성(周留城)**을 포위하려 갔으나 적이 (우리)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달려와 공격하여 많은 군사와 말을 잃고 이득 없이 돌아오게 되니, **남방제성(南方諸城)**이 일시에 모두 배반하여 복신에게 속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㉕ (용삭 원년 3월) (유)인케의 무리가 적어 (유)인원과 군사를 합쳐서 사졸

을 쉬게 하고 (고종에게) 표를 올려 신라와 합쳐 도모하기를 청하였다. 신라 왕 춘추(春秋)가 조서를 받고, 장수 김흠(金欽)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유)인궤 등을 구원케 하였다. 고사(古泗)에 이르자 복신(福信)이 요격하자 패배하였다. (김)흠이 갈령도(葛嶺道)에서 달아나 돌아오니 신라는 감히 다시 출병하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

하지만 위의 기록들은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

우선 첫 번째는 백제 부흥 세력이 660년에 이어 사비성을 다시 포위 공격한 것은 661년 2월인 것은 확인된다. 그런데 웅진강구 싸움과 두량윤·고사비성 전투를 따로 이해하면, 같은 시기에 신라군은 2개의 군사 작전에 투입된 것이 된다. 또 두량윤·고사비성 전투도 신라 진격로가 양 방향이었다고 볼 경우 신라는 군사적으로 3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비록 웅진강구 전투는 3월, 두량윤·고사비성 전투는 4월 19일에 끝난다는 부분만 주목하면 별개의 작전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는 추측도 제기될 수 있지만 두 전투의 시작점이 모두 3월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인 문제와 군사 작전 문제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두량윤성, 주류성, 고사비성의 상관관계 문제이다.

[표 8] 두량윤(이)성 관련 기록

내용	출전
열이현(悅己縣) 달리는 두릉윤성(豆陵尹城)이라고도 하며 두곶성(豆串城) 또는 윤성(尹城)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백제 웅천주

부여군……윤성(尹城)은 본래 백제 열이현인 것을 경덕왕이 개칭하였다. 지금의 定山縣이다.	『삼국사기』 36, 「잡지」 5, 지리 3, 웅주
정산현은 본래 백제 열이현[달리는 두릉윤성이라 불린다]으로 신라 경덕왕 때 열성으로 이름을 고치고 부여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사』 56, 「지」 10, 지리 1, 공주
본래는 백제의 열이현이다[달리는 두릉윤성이라 불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8, 정산현, 건치연혁
두량윤성(豆良尹城)은 지금의 정산이고, 고사비성(古沙比城)은 미상(未詳)이다.	『동사강목』 4 上, 辛酉
두성현(杜城縣)은 본래 백제 두이현(豆伊縣)인 것을 경덕왕이 고쳤다. 지금의 이성현(伊城縣)이다.	『삼국사기』 36, 「잡지」 5, 지리 3, 전주
두이현[달리는 왕무(往武)라 불린다.]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백제 완산

일반적으로 두량윤성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열이현과 연결시킨다. 열이현이 두량윤성=두릉윤성이라는 인식은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도 사료 ⑥의 『삼국사기』 무열왕 8년(661) 기록을 거의 전제하면서 두량윤성은 정산이나 고사비성은 알 수 없다고 고증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 「지리지」로부터 이어진 일련의 기록들을 근거로 오늘날의 충남 청양군 정산면(定山面)에 있는 계봉산성⁷⁹⁾을 두량윤성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더 나아가 사료 ⑥의 ‘고사비성(古沙比城)’을 백제 도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옛 사비성’의 한자 표기인 고사비성(古泗泚城)의 잘못된 표기⁸⁰⁾라고 보았다. 즉, 열이현=두릉윤성(정산)에서 사비(부여)까지 30리이고, 웅진(공주)까지는 50리인 점을 고려하면, 두량윤·고사비성 전투 직전에 벌어진 웅진강구 전투 후 사비성

79) 노도양, 1979, 『백제 주류성고』, 『명대논문집』 12, 명지대학 출판부, 8쪽.

80) 심정보, 2020,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 주류성』, 『스러져간 백제의 함성-한국사 최초의 국권회복운동 ‘백제부흥운동’』, 주류성, 95쪽.

바깥에 신라군이 주둔하고 정산을 공격하는 것이 거리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여 최근에도 더 나아가 당시 신라군의 목표는 두량윤성이었기에 통상 군사학적으로 공격 주둔지에서 목표까지의 1일 행군 거리(12.7km)를 감안할 때 청양과 공주 사이가 12km인 점을 들어 고사비성을 공주로 추정하기에 이르렀다.⁸¹⁾

그러나 이러한 두 논리의 근거는 모두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에 옛 ‘고’자를 붙여 고사비성(古泗泚城)으로 표기하면서 고사비성(古沙比城)이라 오기(誤記)했다고 보는 데에 있다. 전자는 사비성에 ‘고’자가 붙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공주도 백제의 옛 수도이므로 그렇게 붙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같은 사료 ⑥에는 ‘사비성(泗泚城)’과 ‘고사비성(古沙比城)’을 분명 다르게 표기하였다. 『삼국사기』가 아무리 후대의 편찬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건을 전하는 기록 내에 서 두 지명을 오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까? 『동사강목』도 비록 고사비성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도 ‘사비성’과 ‘고사비성’은 별개로 적었다. 만일 『삼국사기』가 잘못 기록한 것이라면 안정복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록의 오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사비성(古沙比城)과 사비성(泗泚城)은 엄연히 다른 성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삼국사기』 「지리지」의 열이현이 바로 두량윤성이라고 확정하는 것에 좀처럼 수긍하기가 어렵다.

전투의 전개 상 두량윤성을 청양 정산면으로 보고 사료 ⑥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백제의 남은 적들이 사비성을 공격해 왔다. 임금이……구원하게 하였다”고 한

81) 이재준, 2017,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255-256쪽.

것은 바로 사료 ㉑에 유인원이 주둔한 ‘백제부성에 대한 포위’를 푸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료 ㉒처럼 ‘당군은 쉬게 하고(休息士卒)’ 대신에 신라군이 두량윤·고사비성 전투를 치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량윤성이 충남 정산이라면 신라군은 너무 큰 군사 작전 반경을 갖는다. 사료 ㉓에는 661년 3월 5일에 신라 전초 부대가 두량윤성 남쪽에서 백제인의 습격을 받았고, 3월 12일에 신라 대군이 고사비성(정읍 고부) 밖에 진을 치고 두량윤성을 공격하였다고 나온다. 그런데 두량윤성이 충남 청산이라면 신라군은 고사비성 밖 본진에서 출발하여 우선 동진강을 건너고, 또 만경강을 지나서 다시 논산천을 거친 후에도 또다시 사비(부여)와 웅진(공주) 사이의 금강을 건너야만 두량윤성에 도달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을 낳고 만다.

따라서 661년의 전투에 나타나는 두량윤성은 사료 ㉒의 ‘고사’, 사료 ㉓의 ‘고사비성’과 연계해서 찾아야만 한다. 이때 주목할 표현이 위의 <표 8> 『삼국사기』 지리4의 백제 웅천주 지명에 두량윤성을 달리 ‘윤성’이라 불렀다는 것과 사료 ㉓에 두량윤을 달리는 ‘두량’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다. ‘두량윤성’의 줄임말이 ‘윤성’이라면 ‘두량’의 줄임말은 ‘이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 8> 『삼국사기』 지리3 전주의 속현인 백제의 ‘두이현’이 ‘이현(伊縣)’이라고 불렀기에 신라에서 이성현이라 개명되었다⁸²⁾고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또 『삼국사기』 지리4 백제 완산에는 두이현의 지명을 ‘왕무(往武)’라고도 적었다. 전형적인 한자(漢字) 지명인데 이러한 지명은 당나라가 백제 고지에 설치한 1도독부, 7주, 51현 가운데에 여럿이 보인다. 즉,

82) 정재윤, 2002,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 정책-완산주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8, 국사편찬위원회, 146쪽.

고사주 5현 중의 ‘평왜(平倭)’현, 지심주 9현 중의 ‘용화(隆化)’·‘평이(平夷)’현, 노산주 6현 중 ‘당산(唐山)’현, 도독부 13현 중에 ‘인덕(麟德)’·‘귀화(歸化)’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 인덕은 당 고종 때의 연호로서 664년이 원년이고, 665년까지 사용하였다. 663년에 나·당군이 백강 전투에서 승리하여 주류성을 함락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지명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는 대체로 664년 무렵이라 추정된다.⁸³⁾ 이럴 경우 ‘왕무’라는 지명 개정도 이와 연관된다.

따라서 고사성(평왜)이나, 거물성(용화) 등이 부흥전쟁과 관련된 주요 지명이었음을 염두에 두면 ‘왕무’라 개정된 두이현 또한 두량이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⁸⁴⁾ 이렇게 완주 이서면(두이현)을 상정하면 북으로 금마군(전북 익산)이, 남서쪽으로 고사성(정읍)과 쉽게 연결되어 661년 3~4월에 벌어진 두량윤·고사비성의 싸움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부흥전쟁 당시 상황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 신라가 설치한 완산주의 군사적인 비중이 높은 것과도 연결돼 설득력을 더한다.⁸⁵⁾

결국 백제 부흥전쟁기의 주요 지명인 고사성이 현재의 전북 정읍(고부)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661년 당시 고사비성 전투에 함께 등장하는 두량윤성 또한 그 주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 또한 명확하고, 이와 함께 등장하는 다른 지명들도 그 위치를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우선 사료 ⑥에 보이는 빈골양은 경우 다음과 연관이 있다.

83) 전덕재, 2021, 『삼국사기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180쪽.

84) 김병남, 2012,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한국학』 35, 한국학중앙연구원, 292쪽.

85) 이효환, 2022, 『백제부흥운동 전개 과정을 통해 본 주류성 위치 비정』, 『백제연구』 7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43쪽.

빈성현(斌城縣)은 원래 백제 빈굴현(賓屈縣)이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하였다. 지금의 인의현(仁義縣)이다. 『삼국사기』 36, 「잡지」 5, 지리 3, 전주 대산군

즉, 백제 때 빈굴현이 바로 빈골양의 이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통일신라 시기 전주 대산군은 오늘날의 정읍시 동부, 칠보면, 산내면, 북면 동부, 옹동면, 태인면 남부 일대⁸⁶⁾를 말한다. 그리고 빈굴현을 현재의 정읍시 정우면 일대⁸⁷⁾로 보거나 아예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의 산성⁸⁸⁾으로 보기도 한다.

각산(角山)의 경우는 아래에서 보듯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와 있어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는 없는 형편이다.

【표 9】 각산성 관련 기록

내용	출전
각산성(角山城)……진현성(眞都城), 고울부(高鬱府), 갈령(葛嶺), 지라성(支羅城)[혹은 주류성(周留城)이라고도 한다], 대산책(大山柵)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삼국유명미상지분
봄 2월에 각산성(角山城)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신라가 동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삼국사기』 27, 「백제본기」 5, 무왕 6년

하지만 백제 무왕 6년(605) 2월에 쌓은 각산성과 연계하여 일찍부터 대신라 방어용 산성⁸⁹⁾으로써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의 성미산에 소재한 성미산성⁹⁰⁾을 주목하였다. 이 산성은 둘레 518m의 테포식 석축

86) 최병운 외, 2000, 앞의 책, 103쪽.

87) 정구복 외, 1997, 앞의 책, 318쪽.

88) 전영래, 1990, 『백제최후 항쟁사연구』, 전주문화원, 126쪽.

89) 최범호, 2017, 「완산주 설치와 관련한 전주의 지정학적 배경」, 『전북사학』 51, 전북사학회, 46쪽.

90) 전영래, 2003, 『전북 고대산성조사보고서』, 전라북도한서고대학연구소, 115쪽; 김수태, 2010,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80쪽; 박종욱, 2013, 「602년 아막성 전투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203쪽; 이장웅, 2018, 「신라 진평왕 시기 백제 관계와 서동 설화」, 『신라사학회』 44, 신라사학회, 223쪽.

성인데 2007년에 실시된 부분 발굴에서 사비시대의 각종 토기와 5부명(部銘) 도장기와 79점이 나왔다.⁹¹⁾ 따라서 사료 ㉔의 신라 무열왕 8년(661) 4월에 고사비성(古沙比城; 정읍 고부)에서 퇴각하는 신라군의 경로가 빈골양(賓骨壤; 정읍 정우)→각산(角山)→가소천(경남 거창 가소)⁹²⁾→가시혜진(加尸兮津; 경북 고령 우곡의 낙동강 포구)⁹³⁾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감안할 때 임실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음 세 번째는 복신 등은 왜 두량이(완주)·고사비(고부)·주류성(부안) 일대를 주목했을까? 지금까지 백제 주류성의 위치 추정에 집중하며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 만약에 부흥 세력의 최종 목적이 백제 재건(再建)이라면 가장 기본은 왕의 웅립과 왕도(王都) 선택이다. 새로운 왕은 부여풍으로 추대된 상태였다. 따라서 그의 귀환 전에 최소한의 거처 확보가 필요하였다. 수도 이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웅진은 차치하더라도 사비(부여)나 금마(익산) 등은 험준한 산속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류성(우금산성)의 위치는 비록 방어에 유리할지 몰라도 국가 경영의 기능성 면에서 매우 불리하였다.

주유(州柔)는 전지(田地)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니 농잠(農蠶)할 땅이 아니요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이곳에 있으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피성(避城)**으로 옮기는 게 좋다. 피성은 서북에는 고련단경(古連旦溍)의 물이 떠를 두르고, 동남쪽에는 깊은 진흙의 큰 제방이 있어 방비하기 좋다. 사망에 눈이 있어 도랑이 파여 있다. 비가 잘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것이 삼한(三韓)에서 가장 기름진 곳이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12월

91) 서지은 외, 2009, 『임실 성미산성』, 전북문화재연구원·임실군, 130-134쪽.

92) 최병문 외, 2000, 앞의 책, 59쪽.

93)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도서출판 온샘, 194쪽.

위의 기록은 662년 12월의 피성 천도 과정 중 복신과 부여풍 등이 논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피성은 ‘깊은 진흙의 큰 제방이 있다’란 표현으로 보아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여풍과 복신의 알력에도 불구하고 큰 견해 차이가 천도가 이뤄졌다. 이것은 당시 백제인들도 ‘삼한에서 가장 기름진 곳’으로 인식하였음을 뜻한다.

이처럼 사비성 수복이 늦어짐에 따라 부흥 세력의 관심은 새로운 수도로서 기능할 지역의 확보와 정부 구성 계획의 수립이었다. 그 후보지는 당연하게도 사비성 이남 지역이었고, 금마(익산), 고사(정읍 고부), 피성(김제) 등 중방 고사성 일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류성(부안)은 험준한 산세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비상시에 왕실과 정부가 대피할 공간의 기능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부흥전쟁이 백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못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수도의 기능을 주류성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은 당과 신라도 수집 가능한 정보였기에 ‘주류성의 함락’을 부흥전쟁의 종결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여겼다. 그래서 사료 ㉔처럼 주류성을 포위하였다거나, 문무왕 3년 기록에 두릉·윤성·주류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여 모두 항복시켰다는 기록들이 재차 반복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료 ㉕에 나오는 ‘웅진강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소정방 열전과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기록에는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이 진입한 기벌포를 ‘웅진강구’나 ‘웅진구’라 표현하였다. 이에 백제에서 부를 땀 ‘백강’, 당에서 부를 때는 ‘웅

진강'이란 입장에서 금강 하구를 가리킨다고 보았다.⁹⁴⁾ 그리고 나아가 유인궤 자신이 고구려 전선에서 수군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던 경험과 연관시켜 신라 수군과 함께 금강 하구인 '웅진강구'에서 백제 부흥군과 싸워 이긴 후 수로를 통해 사비성으로 진격한 것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61년 2~4월에 전개된 과정을 보면 다소 의문이 발생한다. 유인궤의 전임자인 왕문도는 백제 지역을 관할하는 도독으로 임명되었으나 660년 9월 28일에 삼년산성에서 신라왕과 회담하던 중에 급사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독인 유인궤가 오기 전까지 그의 시신과 호종 군사는 여전히 신라 지역인 삼년산성에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이 왕문도 휘하 무리가 660년 10월에 신라의 사비성 구원 때 함께 따라가 유인궤의 사비성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머물러 지키던 굶주린 군사들이 자식을 서로 바꿔 먹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불안정한 지역으로 움직이려 했을까하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독이란 통수권자의 사망으로 명령 계통이 사라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 대국인 당의 관리와 군사가 소국인 신라의 지휘 아래 이동한다는 것도 쉽사리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왕문도의 시신과 호위군은 움직이지 못하고 새로운 본국의 명령권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이럴 경우 새로 부임하는 유인궤의 행선지는 웅진이 아니라 삼년산성이었을 것이다. 공식 임무의 기본은 관직과 업무의 인수인계로부

94) 서정석, 2004,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백산학회, 222-226쪽.

터 비롯된다. 따라서 유인궤는 휘하 무리와 함께 곧장 금강 입구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당항성에 내린 후 직산 - 진천 - 청주를 거쳐 삼년산성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⁹⁵⁾ 그리고 전임자의 관인(官印) 인수와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임무를 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가 ‘웅진’이었을 것이다. 전임 왕문도의 직위가 바로 ‘웅진도독’이었고, 동시에 사비성의 당군을 구원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웅진강은 공주 부근을 흐르는 금강이고, 백강은 부여 부근을 흐르는 금강의 명칭이란 견해⁹⁶⁾처럼 사료 ㉔의 ‘웅진강구’는 웅진 부근에서 찾아야만 한다. 즉 웅진 근방의 강어귀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웅진강구라 한 것이지만 만일 금강 하구였다면 당연히 ‘백강구’라 불러야 했을 것이다.

5. 661년 중방 고사성 일대의 각축

앞에서 언급한 웅진강구 및 고사비·두량윤성 전투 기록의 합리적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 661년 2~4월에 전개된 나·당군과 부흥군 사이의 공방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한다.

부흥군은 661년 2월 초에 두 번째 사비성 탈환을 시도할 무렵 새롭게 백제를 관할할 도독으로 유인궤가 도착하였다. 그는 도독 관인과 업무를 인수받고자 왕문도의 시신이 안치된 지역으로 움직였다. 삼년산군에서 새로운 도독으로써 유인궤는 기존 왕문도의 무리를 통

95)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28쪽.

96) 김영관, 2007, 『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44쪽.

솔하고(사료 ㉓), 곧바로 신라 김춘추에게 군사를 동원하라는 조서를 전달하였다.(사료 ㉔) 당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군사를 징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군대가 출동한다.(사료 ㉕) 부흥군을 진압하기 위해 신라는 중앙과 지방의 정예 부대를 11명의 장군에게 움직이게 하였고, 여기에 지원 부대도 김(흠)순 등 4명의 장군에게 맡겼다.(사료 ㉖)

[표 10] 661년의 신라 진압군 편성 예상표

부대명	주둔지	장군명	병력수	합계	지원병 (30%)	총계
대당	왕경	김품일	1,500	6,000	4,950	21,450
		김문왕	1,500			
		김양도	1,500			
		부여총상	1,500			
서당		문품	1,500	1,500		
낭당		의광	1,500	1,500		
상주	경북 구미 선산	문충	1,500	3,000		
		진왕	1,500			
하주	경북 경산	의복	1,500	1,500		
남천주	경기 이천	무염	1,500	3,000		
		육천	1,500			
구원군	왕경	김흠순	1,500	6,000	1,800	7,800
		진흠	1,500			
		천존	1,500			
		죽지	1,500			
총계			22,500		6,750	29,250

신라의 군사 편제상 장군 1명당 약 1,5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보면⁹⁷⁾, 백제 부흥군 진압을 위해 동원된 병력 수는 약 22,500명 정도였고, 여기에 치중병 즉 전투지원병 30%를 더하면 총 군세는 약 3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660년의 백제 정벌 때의 5만에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당시 김유신 등의 5만은 정예병이었고, 별도로 왕이 머물던 금돌성에는 후방 지원 부대를 포함하면 약 6~7만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고사비성 전투(661)의 신라군은 동원 가능한 군사력의 절반 정도였다. 하지만 웅진 도독부에 주둔한 보조부대, 고구려 침공 대비 군대 등을 제외하면 동원 가능 한계 병력이었다. 660년 동원 부대에는 구체적인 편제가 보이지 않았지만 661년의 신라군은 조직적인 군단 편성이 보이는 점은 신라의 군사 조직이 체계적으로 진전되었음을 보여줘 더욱 효율적인 군대였을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유인궤의 당병은 처음부터 숫자가 적었으므로(사료 ㉔) 사비성에 고립된 유인원을 구원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신라군을 징발하여 상황을 타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당 중앙 정부는 백제의 도독부 존립에 관심을 별로 없었다. 왕문도가 660년 9월 28일에 사망하였음에도 새로운 도독을 임명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 고구려 정벌 때 실수로 백의종군하던 유인궤를 웅진도독이 아니라 임시 대방주 자사라는 직함을 주어 백제에 파견한 것이다. 이 시기 사비성의 유인원이 도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수도 있지만 결코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유인원이 정식 웅진도독이 된 것은 662년 7월 이후였다. 이처럼

97) 이상훈, 2011,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 역사교육학회, 184-187쪽.

당은 백제 땅을 지배할 여력과 의지도 없었다. 오로지 고구려 원정에 관심을 기울였음은 여러 사료들이 보여준다.

따라서 부흥군의 포위로부터 사비성을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신라의 몫이었다. 『삼국사기』 무열왕 7년(660) 10월 9일에 부흥군 공격 시 ‘태자 및 여러 군을 거느렸다(率太子及諸軍)’고 나오고, 11월 22일의 논공행상 때에는 중·하급 유공자와 투항한 백제인에 대한 포상만 실시하였다. 이것은 무열왕과 태자 등은 수도(경주)로 귀환하였더라도 여전히 ‘제군(諸軍)’은 삼년산성 인근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되어, 진압군의 손쉬운 조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유인궤의 주도하에 당과 신라군은 661년 2월에 웅진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를 들은 부흥군도 군대를 나누어 웅진 쪽을 대비하도록 이동하였고, 도침 등이 주도하여 웅진강 어귀에서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인궤와 신라군의 사면 일시 공격으로 1만여 명이 죽는 대패를 당하였고, 도침 등의 웅진 방면군은 퇴각하여 임존성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승기를 잡은 유인궤와 신라군은 곧바로 사비성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복신 등 나머지 사비 포위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황상 북에서 남하하는 신라군으로 인해 임존성으로 합류하지는 못하고 남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한다.

사비성 입성 후 유인궤는 유인원과 합류하여 당군을 쉬게 하였지만(사료 ㉔), 신라군은 복신 등의 부흥군을 쫓아 두량윤(이)성과 고사비성까지 진군하게 된다.(사료 ㉕) 이때 선두 부대인 대당군의 일부가 3월 5일에 두량이성에 먼저 진입하여 곧바로 진영을 구축하지 않자

부흥군의 기습을 받게 된다. 이런 부흥군의 신라군 공격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라 본군은 부흥 세력의 거점인 중방 고사성 일대에 도착해 고사비성 밖에 진을 치고 3월 12일부터 전투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이때 신라군은 백제의 두량이성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고사비성(사료 ㉔), 그리고 중심 거점인 주류성(사료 ㉓)에 대한 공격도 시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군은 분산된 공격으로 말미암아 대군을 동원하였는데도 승리를 거둘 수 없었고, 결국 군량미가 다 떨어졌다.(사료 ㉑) 이에 신라군은 4월 19일에 군사를 돌려 물러나려 하였고, 회군 길목인 빈골양(賓骨壤)에서 부흥군을 다시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빈골양(정읍 태인)의 백제군은 신라 선봉 부대(대당·서당 등)를 보낸 후 후미의 하주군을 공격하였다. 군대가 움직일 때 선봉에는 대체로 정예병이, 후미는 치중병이 편제된다. 부흥군의 신라 후미 습격은 병장기와 물자를 획득할 목적이 컸다.

이러한 부흥군의 타격에 전의를 상실한 신라군은 회군을 강행하였고, 다시 각산(角山)에 이르러 공격을 받게 된다. 각산에서 기다리던 부흥군은 신라 상주군과 낭당군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강히 저항하는 신라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흥군이 패배하고 말았다. 승세를 탄 신라군은 각산의 둔보(屯堡)에 진입하였고, 부흥군은 2천 명이 참수되거나 포로가 되는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각산 싸움은 치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부흥군의 사상자만 언급되었지만 2천이란 숫자가 내포하는 바는 금강 이남으로 확산된 부흥전쟁의 성세와 함께 동원 가능한 전투원의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나온 대로 부흥 세력을 진압하려던 신라군은 고사비(정읍 고부)→빈골양(정읍 태인)→각산(임실) 순으로 후퇴하였다. 진압의 실패 뿐만 아니라 퇴각 결정은 신라 조정을 놀라게 하여, 김흠순 등이 이끄는 구원 부대를 조직하여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원군이 가시혜진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가소천까지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다.

가소천은 경남 거창 가조면을 거쳐 황강의 합천댐으로 흘러드는 가천(加川)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시혜진은 대구(달성군)와 경북 고령군 사이의 낙동강 연안으로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가혜성(加兮城)’·‘가혜진(加兮津)’이라 나오는 곳이다. 신라가 낙동강을 넘어 서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군사 요충지이었다. 이로 보면 신라군은 각산(임실) 이후 남원→함양→거창→달성·고령 순으로 퇴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63년 2월까지 거열성(경남 거창 거열산성), 거물성(전북 남원·장수 접경의 거시물성), 사평성(전북 임실 신평면) 등은 부흥군의 일원이었다. 이럴 경우 661년에 임실→남원→함양→거창 순으로 퇴각하였을 신라군이 거열성 관내의 가소천에 도달했을 뿐인데도 구원 부대는 가시혜진을 넘지 않고 되돌아갔을까? 이것은 달리 말해 복신의 부흥군 세력이 신라군의 퇴각이라는 승기를 잡고도 추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과 연결되는 것이다.

6. 두량윤·고사비성 전투의 여파

이에 필자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661년 4월에 고

사비성에서 퇴각하는 신라군이 모두 가소천(경남 거창 가조면) 방향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군대는 달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당시 신라군은 대당·서당·낭당의 왕경군과 상주·하주·남천주 지방군으로 구성되었다.〈표 10〉 이들은 당의 요구로 삼년산성에서 출발하여 웅진강구에서 전투를 벌인 후 다시 남하하여 고사성 일대에서 부흥군과 공방을 벌이다가 퇴각 완료는 낙동강 유역의 가시혜진(달성·고령)이었다. 기록으로 보아 퇴각하는 부대는 대당-서당-낭당·상주-하주군 순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남천주군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무염과 육천을 남천대감으로 삼았다는 기록만 나올 뿐 다른 군에 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라 수군을 거느리고 웅진강구로 가 유인궤의 당군과 합세하여 별도로 움직였다고 추정할 견해가 있다.⁹⁸⁾ 하지만 조금은 다른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5월) 압독주(押督州)를 대야(大耶)에 옮기고 아찬 중정을 도독으로 삼았다. 6월에 대관사(大官寺) 우물이 피가 되고, 금마군(金馬郡) 땅에 피가 흘렀는데 넓이가 다섯 보(步)였다. 왕이 죽었다.〔삼국사기〕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

기존에는 무열왕의 사망과 금마군의 재변을 연관시켜 무열왕과 익산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무열왕이 부흥군 토벌을 독전하다가 익산에서 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다.⁹⁹⁾ 하지만 이보다는 대관사와 금마군의 이변과 무열왕의 죽음은 연계된 사건이라 보기에 는 미흡

98) 김영관, 2005, 앞의 책, 137쪽.

99) 이도환, 1997, 『세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235쪽.

하다. 오히려 금마군에서 벌어진 군사적 접전이란 부분에 주목하여 이 당시 사건의 전개를 추정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남천주군인 것이다.

즉, 661년 4월의 신라군 총퇴각 때 남천주군은 별도로 고사성 일대에 남아 부흥군을 견제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한 각 부대의 주둔지<표 10>을 보면, 대당·서당·낭당(왕경), 상주군(경북 구미 선산), 하주군(경북 경산)은 동쪽의 가소천(경남 거창 가조면)~가시혜진(달성·고령)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남천주군(경기 이천)은 북쪽 방향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료 ⑥에 보이는 '남천대감(南川大監)'의 대감은 바로 대대감(隊大監)을 이른다. 남천정(南川停)의 대대감(1인)은 기병을 거느렸다. 그런데 661년의 신라군에는 “무홀·욱천 등을 남천 대감으로 삼았다(武歟旭川等爲南川大監)”고 하여 적어도 2인 이상이 대대감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당시 신라군에 기병을 보강하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시 남천주군은 본래 의도보다 강화된 군사력이었다고 추정된다.

물론 신라군이 고사비성에서 퇴각이 결정되었을 때는 남천주군도 함께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빈굴양(정읍 태인)에서 부흥군에게 패배를 당하였을 때 아마도 신라군 수뇌부는 안전한 철수를 위한 작전의 변경이 필요하였다. 사료 ⑥에는 사비성을 공격하던 부흥군을 ‘백제잔적(百濟殘賊)’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유독 빈굴양 싸움에서는 “백제군을 만났다(遇百濟軍)”고 기록하였다. 이는 이전과 다른 정규 백제군을 의미할 수 있다. 사비나 웅진과 연관된 동방·서방·북방군은 와해되었지

만, 중방이나 남방의 군사는 보존되었다면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신라군이 퇴각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다. 따라서 남은 백제군이나 복신 등의 부흥군 등에 대응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이 아닐까? 이럴 경우 기병 위주인 남천주군이 최적의 별동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동력을 최대한 살려 백제 지역을 전전하며 시선을 어지럽힌다면 부흥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천주군이 움직이는 사이 신라는 중요한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다. 신라군의 퇴각과 거의 동시인 5월에 압독주(경산)를 대야(경남 합천)로 옮겼다. 비록 부흥군 토벌에는 실패하였지만 백제의 남쪽을 견제하기 위해 압독주를 경북 경산에서 낙동강 이서인 경남 합천으로 옮김으로써 유사시 즉각적인 신라군의 부흥전쟁 타격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한편 남천주군의 거점(경기 이천)을 고려할 경우 퇴각 방향은 만경강을 건너 논산 연산을 거쳐 삼년산군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퇴각하는 도중 다시 위의 기록처럼 6월에 금마군을 들이친 것은 아닐까? 금마(익산)는 무왕 이래 신라와의 대결에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고¹⁰⁰⁾, 제석사, 미륵사 등은 신성한 불사리가 봉안되는 등 백제 왕실의 존엄성을 고양시키는 곳이었다.¹⁰¹⁾ 아울러 도침이 복신과 더불어 백제 부흥군의 중추를 이루었던 배경이 승군(僧軍)이었다면¹⁰²⁾ 대관사나 미륵사 등은 도침에 우호적인 세력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면 “대관사 우물이 피가 되고, 금마군 땅

100) 정재윤, 2009, 「미륵사 사리봉안기를 통해 본 무왕-의자왕대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45쪽.

101) 김상현, 2009,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17쪽.

102) 노종국, 2003, 앞의 책, 104쪽.

에 피가 흘렀다(大官寺井水爲血 金馬郡地流血)”는 것은 신라군에 대한 금마(익산) 일대 부흥군의 저항, 신라군(남천주군)과 부흥 승군(대관사) 사이에 참변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혈이 난자한 사태는 결국 부흥전쟁 시기 금마저(익산)가 중요한 중심지로 부각하지 못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향후 사실상 고구려의 재건을 의미하는 보덕국¹⁰³⁾이 되는 수모의 원인 중 하나라 볼 수도 있다.

661년에 재개된 부흥군의 2차 사비성 공략은 나·당군의 공세로 웅진강구에 대패하면서 실패하였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라군의 공세로 660년의 정벌에서 비껴나 있던 두량이성(전북 완주 이서), 고사비성(전북 정읍 고부), 주류성(부안 우금산성) 등의 고사성 일대가 싸움터가 되었다. 부흥군을 진압하고자 했던 신라군의 공세는 실패하였고, 퇴각이 결정되면서 오히려 지역별 부흥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신라군은 빈굴양(정읍 태인)에서 백제군에게 패배를 당하자 군사를 나누어 대당·서당·낭당(왕경 주둔), 상주군(선산), 하주군(경산) 등은 입실→남원→함양→거창을 거쳐 동쪽으로 퇴각하는 동안 기병 위주의 남천주군이 여러 지역을 어지럽히며 부흥군의 움직임을 견제하였다. 그 결과 복신 등 부흥군이 퇴각하는 신라군을 추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열성, 거물성, 사평성 등 신라군이 퇴각하는 부군의 지역별 부흥군도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남천주군은 금마(익산)의 천재지변이란 형태의 군사 행동을 야기하면서 백제 지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처럼 661년의 나·당군과 부흥군의 공방은 어느 한 쪽도 일방적

103) 신은이, 2023, 「나당전쟁의 전개와 보덕국」, 『영남학』 8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28쪽.

으로 승리하지 못한 형세였다. 부흥군은 2만 이상의 신라군을 물리침으로써 남방 지역을 복속하는 등 세력을 확대하였지만 사비와 웅진 등 북쪽은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의 승리로 ‘남방제성(南方諸城)’이 부흥군에 귀부하였더라도 사비와 웅진 등 백제 심장부가 당군의 수중에 있는 한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실패’만 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상황이 뒤집힐 불안함이 ‘백제 땅’에 흘러 넘쳤고, 부흥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였다.



IV. 백제 부흥을 위한 대외적 노력



IV. 백제 부흥을 위한 대외적 노력

1. 661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백제 부흥 세력은 660년 9월 23일에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고, 10월에는 왜국에 사신을 보내 왕자 부여풍의 왕위 계승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661년 3~4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 승리는 백제 부흥 세력에게 세력 기반을 고착시킬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부흥 세력은 부여풍의 조속한 귀국과 등극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대외적 상황도 부흥 세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부흥군과 대립 중인 당이 고구려 정벌로 전략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661~662년 사이에 벌어진 2차 고·당 전쟁¹⁰⁴⁾은 3차례의 양국 간 싸움 중 가장 오랜 준비를 거쳤다. 645년의 1차 고·당 전쟁에서 대참사

104) 김용만, 2004, 「2차 고구려-당 전쟁(661-662)의 진행 과정과 의의」, 『민족문화』 27, 한국고전번역원, 160-161쪽 ; 박경철, 2007, 「나당전쟁의 재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5, 동북아역사재단, 179쪽 ; 정창은, 2016,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신라사학보』 37, 신라사학회, 68쪽.

를 겪으며 철수한 당은 647년부터 장장 14년간에 걸쳐 장기 침공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당은 중국의 역대 왕조가 피지배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주변국과 맺는 형식적 상하 관계에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실상부한 지배·종속 관계를 원했다. 특히 고구려처럼 강력한 병력을 바탕으로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벌을 통해 직접 지배하려는 욕구가 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당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상하 관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신라의 위협 세력인 백제를 정벌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배후 기지를 건설할 계획도 수립되었다.¹⁰⁵⁾

백제는 고구려로 기울어지면서¹⁰⁶⁾ 유연한 동맹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당을 자극하였다.¹⁰⁷⁾ 당의 입장에서 백제 정벌은 한편으로는 원군이 될 신라의 위협을 제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후방 지원을 차단한다는 측면을 갖는다. 나·당의 백제 공략은 고구려 정벌의 사전 연습이었다. 백제 공격 때 당군 규모가 14개 군의 122,711명이었음을 감안하면, 661년의 고구려 정벌 시 14개 군의 2.5배인 35개 행군은 대략 30만 명 이상이라 추정된다. 이 병력과 관련하여 『삼국유사』에는 35만 명¹⁰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동원된 당군 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¹⁰⁹⁾

한편, 신라는 남쪽에서 고구려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과 함께 당군에 대한 군량 보급도 도맡았다. 신라는 661년 6월에 당으로부터 군대

105) 김창석, 2002, 「당의 동북아 전략과 삼국의 대응」, 『군사』 4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43-244쪽.

106) 韓昇, 2004, 「당과 백제의 전쟁: 배경과 성격」,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74쪽.

107) 김수태, 1991,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60쪽.

108) 『삼국유사』 권2, 「기이」, 문무왕 법민.

109) 이민수, 2021,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수군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42쪽.

를 동원했으나, 이에 대응한 병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래서 7월 17일에 문무왕은 김유신 등 9총관과 1대감으로 편성된 군대를 이끌고 사이곡정(始飴谷停)까지 직접 움직였던 것이다.

하지만 2차 고·당 전쟁의 결과는 당군 중 방효태 휘하 옥저도 행군의 전멸, 임아상의 죽음과 패강도 행군의 궤멸, 누방도 행군 정명진의 죽음 등 막대한 손실을 당하였고, 평양도 행군의 소정방도 고구려의 평양성 철벽 방어로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하였다. 당은 철저한 준비와 이에 따른 대량의 군수물자를 동원하였기에 전쟁의 객관적인 조건은 유리하였지만 오히려 다대한 병력 손실만 야기한 채 662년 2월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과거 어느 것보다 심대하여, 이후에는 내부의 민심 안정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당의 고구려 정벌 실패는 백제국의 재건에 중차대한 정치적인 문제이자 외교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백제 부흥 세력과 당 주둔군의 이해 당사자 즉, 양자의 수뇌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구성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부흥 세력은 고구려 정벌로 말미암아 백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당군의 투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는 거꾸로 백제 주둔 당군 역시 본국의 지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탈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관계는 양 세력의 지도부에게 은연중 절충점을 모색할 여지를 주어 백제 부흥 세력과 당 주둔군 사이에 외교적 교섭이 진행되었을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

2. 승리의 파장, 권력 분열의 조짐

지휘 계통의 일원화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전쟁 시에는 더욱 중요하다. 지휘 계통이 통일되지 않으면 여러 곳에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두량이·고사비성 전투 승리(661.4) 후 부흥군은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세력이 양분되어 움직였다.

승려였던 도침은 사찰을 세력을 기반으로 부흥군을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적 지명과 연관되는 충남 부여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를 주목하기도 하지만¹¹⁰⁾ 백제 말기의 큰 사찰이었던 미륵사와 함께 왕흥사가 국왕의 원찰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같은 사찰의 기반 아래 도침은 백제 유민을 모아 부흥전쟁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크다.¹¹¹⁾ 왕흥사는 사비도성을 흐르는 금강의 맞은편에 위치한 사찰인데, 이 시기 왕흥사암성에서 부흥군이 활동했다는 기록과 연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처럼 도침은 왕흥사를 거점으로 거병하였다가 복신과 합치면서 부흥전쟁을 주도하였다. 도침이 초기 사비성 공격에 거점이었던 왕흥사를 중심으로 부흥군을 이끌었다면 도침의 활동은 사비남령에 설책(設柵)한 후 사비성을 공격했던 부흥 세력과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도침이 부흥전쟁의 중심인물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사비성의 당 주둔군에게는 복신보다도 더 이름을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¹¹²⁾ 『구당서』 기록에서 도침이 더욱 강조된 것은 나·당군이 도침의 부흥군을 웅진강구 전투에서 대파한 것과 연관이 있다. 당

110) 성주탁, 1992, 「도침의 사상적 배경과 부흥활동」, 『호서사학』, 19:20, 호서사학회, 24쪽.

111) 심정보, 2007,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156쪽.

112) 김영관, 2005, 앞의 책, 112-113쪽.

의 기록에 도침을 부흥군의 중심 인물로 강조한 이유이다. 부흥군을 처음으로 격파한 당군의 지휘관이 유인궤였다는 점도 도침이 주요 인물로 간주하는 기록을 남기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비성 포위전에 뛰어난 부흥군은 도침 중심의 세력만이 아니었다. 복신도 부흥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구당서』·『신당서』 동이열전은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데 부흥군의 지도자가 복신이라 기록하였다. 『삼국사기』는 웅진강구 전투 지휘를 복신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삼국사기』는 단순히 『구당서』·『신당서』 기록 속의 ‘도침’을 ‘복신’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다. 『신당서』 유인궤전에 사비성의 유인원을 포위한 부흥군의 대표자를 복신으로 본 것까지 고려한 것이다. 『구당서』·『신당서』 동이열전 기록과 달리 『신당서』 유인궤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사비성 포위를 주도한 인물로 복신을 부각한 것은, 그가 부흥전쟁의 중심 인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엇갈리는 기록은 초기 부흥전쟁의 중심적인 인물로 도침과 복신이 거의 호각지세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당서』, 『자치통감』, 『당유인원기공비』에는 도침이 먼저 기록되었고, 반면에 『신당서』, 『삼국사기』에는 복신이 앞서 기록된 것은 복신과 도침이 당 측과 신라 측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였기 때문이다. 즉, 당에서는 부흥군의 지도자 중에 도침이 위협적인 존재였고, 신라에서는 복신이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기에 상반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¹¹³⁾

113) 김영관, 2005, 앞의 책, 121쪽.

이러한 관점은 당시 부흥전쟁을 끌여가는 최고 실력자가 양자(兩者)였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백제국 재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사료 부족으로 그 이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남은 기록을 토대로 가설의 합리적 진전을 유도하여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뿐이다.

초기 부흥전쟁의 지휘 계통이 일원화 되지 못하였고, 그 출신 성분도 각기 승려와 지방관으로 다른 상황이었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권력의 ‘양분(兩分)’이다.

……도침(道琛) 등은 (유)인원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리나 임존성(任存城)을 지켰다. 신라 병사(兵士)들은 군량이 바닥나 돌아갔는데 이때가 용삭(龍朔) 원년 3월이었다. 이에 도침은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자칭(自稱)하고 복신(福信)은 상감장군(霜岑將軍)이라 자칭하며 반란을 하거나 도망한 자들을 불러 모으니 세력이 더욱 커졌다. 사자를 보내 (유)인궤에게 “대당(大唐)과 신라(新羅)가 서약하여 백제인은 노소(老少)를 불문하고 일체(一切)를 죽인 연후에 나라를 신라에 준다고 들었으니,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어찌 싸우다 죽는 것과 같겠는가? 그래서 모여서 스스로 굳게 지키는 것 뿐이다”고 알려왔다. (유)인궤는 글을 써서 화복(禍福)을 모두 설명하고 사자를 보내 달랐다. 도침 등은 무리가 많은 것만 믿고 교만하여 (유)인궤의 사자를 외관(外館)에 둔 채 전달하길 “사절의 관직이 낮다. 나는 일국의 대장이니 만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며, 답서도 없이 돌려보냈다. 얼마 있다가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병사를 합쳤다. 부여풍은 다만 제사만 주관할 뿐이었다.……(『구당서』 199상, 「열전」 149, 동이 백제)

……도침(道琛)은 임효성(任孝城)을 지키며 영군장군(領軍將軍)을 자칭(自稱)하고 복신(福信)은 상감장군(霜岑將軍)을 칭했다. (유)인궤에게 “당(唐)과 신라(新羅)가 조약하여 백제를 깨트리면 노인 아이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나라를 나누기로 했다고 들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죽느니 싸우지 않겠는가” 하고 알렸다. (유)인궤는 사자에게 서신을 보내 답장하며 달랬으나, 도침은 심히 거만하여 사자를 밖에 두고 업신여기며 “(찾아온) 사자의 관직이 낮다. 나는 나라의 대장(大將)인데 예절로 보아도 만남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유)인궤의 무리는 적으니 군대를 휴양(休養)시키고, 신라에게 함께 치자고 요청하였다. 복신이 얼마 후 도침을 죽이고 그 병력을 아우르니 (부여) 풍은 제어하지 못했다.……(『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백제)

위의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에 도침은 부흥군 총수로서 영군장군¹¹⁴⁾, 복신은 상잠장군으로 칭하여졌다. 그런데 정황상 도침은 임존성에, 복신은 주류성 및 고사성 일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흥 세력 또한 각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두 지역으로 나뉘어졌을 것이다.¹¹⁵⁾ 따라서 백제 부흥을 위한 향후 정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지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즉, 도침은 사비와 주변의 임존성을 근거로 당과의 관계를 전담하였고, 복신은 주류성과 남방을 근거로 신라와 왜국에 대한 일을 맡았지 않았나 한다.

또한 위의 기록에 의하면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서 승리(661.4.)한 이후 장군을 자칭한 도침과 복신은 각자의 세력을 늘려갔을 것이다. 부흥 세력은 2만 이상의 신라군을 물리침으로써 ‘남방제성(南方諸城)’으로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사비와 응진을 피탈당한 상태였다. 이는 남쪽 지역이 복신 등의 부흥 세력에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기존의 백제 중심부가 당군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114) 성주탁, 1992, 앞의 논문, 29쪽.

115) 김병남, 2013, 「백제 풍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부흥운동의 전개-도침의 몰락과 복신의 주도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 36, 한국학중앙연구원, 43쪽.

다시 말해 661년 2~4월에 나·당 진압군의 공격을 이겨내고 지역 세력의 호응과 결집이 이뤄지는 등 백제국 재건에 대한 자신감은 커졌지만 신라군의 공격과 퇴각으로 전쟁의 중심에 있던 중방 고사성 일대와 인근의 금마군(익산) 등지가 초토화 되었고, 사비 등 금강 유역 일대에는 여전히 당군이 주둔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부흥 세력의 입장에서 무조건 강공책을 구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나·당군을 완전 축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웅진강구 전투(661.2) 패배가 모든 계획을 새롭게 짜야할 정도의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 본 견해¹¹⁶⁾도 결국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다.

그런 와중인 661년 6월에 백제를 유리하게 만드는 대외적인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다. 우선 신라는 무열왕의 사망과 문무왕의 즉위로 인해 지지기반의 확립과 왕권 안정의 시간이 필요하였다.¹¹⁷⁾ 또한 당은 여전히 고구려 정벌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백제 측에서 적극적으로 당과 외교 교섭을 추진할 수 있었다. 위의 『구당서』에는 “사자를 보내 인궐에게 고하였다(使告仁軌)”라 하여 먼저 당의 유인궐에게 접근한 것이 부흥 세력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외교적 교섭을 추진한 주체가 누구였을까? 아마도 영군장군으로서 자신의 세력권인 사비와 주변을 근거로 한 도침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

116) 양종국, 2008,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 서경문화사, 104쪽.

117) 김수태, 1993,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7쪽.

3. 도침 주도의 외교 교섭

도침이 중심이 되어 당 주둔군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는 복신이 부흥전쟁에 호응한 ‘남방제성’을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기능이 일시에 마비된 백제 지역은 개별적인 독자 생존을 꾀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661년 4월 이후 수도를 대체할 주류성 체제가 현실화되자 나·당의 침략을 비껴간 채로 동향을 관망하던 지역 세력들은 부흥 세력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복신은 남방의 협조·방어를 위한 조직화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각 지역이 연결되면 하나하나 독자적일 때보다 방어 면에서 효과적이어서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된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요구된다. 더욱이 복신의 입장에서 다른 부분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비성과 임존성 사이의 움직임까지 개입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정황은 도침과 복신의 성향에 대한 유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61년 2~4월사이 부흥군과 나·당군의 전투를 되새겨보면, 당시 부흥 세력은 사비를 포위한 후 다가오는 유인궤 주도의 군대에 두 단계로 응전하였다. 우선은 도침 등은 응진 방면에서 기다려 나·당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다. 여기에서 도침 주도 부흥군은 대패를 당하고, 곧바로 후퇴하여 임존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불리한 전황이 전개되자 나머지 부흥군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퇴각을 주도하였던 인물이 복신으로 추정되는 바 두량·고사비·주류성 일대에서 신라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남방제성’이 호

응하면서 부흥전쟁이 일시에 확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웅진강구와 두량이·고사비성 싸움 결과를 놓고 보면 복신이 도침 보다는 군사적 재능이 월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임존성에서 도침과 복신이 함께 궤기하였을 때부터 실제적인 행동은 복신이, 이론적인 부분은 도침이 주도하는 보완적인 상호 관계였던 것이 아닐까?

『유인원기공비』에 백제군이 사비성 주변에 목책을 세우고 영채를 준비하게 늘어놓은 채 당군을 압도하였고, 구름사다리(운제), 포차(발석차) 등의 공성무기를 동원하고 땅굴을 파는 등 조직적인 공세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전개하였던 능력은 복신의 군사적 역량¹¹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백제국을 다시 잇자! [興亡繼絶]’는 선동으로 부흥 세력의 의식을 강화하고, 당 주둔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려 한 것은 도침의 전략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신라의 의상(義湘)이 백제 침공을 위한 군사 동원을 알리기 위해 당에서 급거 귀국하였던 예¹¹⁹⁾처럼 삼국시대에는 승려가 국왕 측근의 전략가로서 역할이 강하였다.¹²⁰⁾ 이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 구조 속에서 최상부의 고급 지식인을 승려라고 본다면, 이를 도침에게 대입해도 큰 무리는 없다.

승려였던 도침은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을 수도 있다. 승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전쟁의 악업에서 벗어나 나지를 못한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보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벗어나 오랜 기간 화평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생구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118)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172쪽.

119) 『삼국유사』 권4, 「의해」, 의상전교.

120) 이도학, 1997,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236쪽.

일이었다, 따라서 ‘침략자와 회담은 필요 없다!’거나 ‘사비성을 백제인의 피로 물들여 수복하자!’는 등의 과격한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침의 사고가 이처럼 유연하였다면, 일찍부터 당군과 접촉 의사가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이는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이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아직 양자 사이에 신뢰 관계도 구축되지는 않았다. 이럴 경우 접촉은 상대가 의혹을 품고 싶어도 품을 수 없는 순수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4. 당 조정의 철수 움직임

661년 2~4월 사이에 부흥군과 나·당군 사이에는 백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였고, 부흥군이 신라군의 공격을 이겨냄으로써 국가 재건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당의 고구려 정벌 개시(661.6)는 부흥 세력과 당 주둔군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당의 고구려 정벌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간에 백제 주둔 당군의 철수가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62) …… 처음에 유인원과 유인궤 등이 웅진성(熊津城)에 주둔했다. 황제가 칙서를 내려 “평양(平壤)의 군대가 돌아온 바, 성(城) 하나를 홀로 지키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마땅히 신라(新羅)로 옮겨야 한다. 만약 김법민(金法敏)이 경(卿)들의 주둔을 의뢰해 오면 머물러도 좋지만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바다를 건너 돌아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서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 이때 백제왕 풍(豊)과 복신(福信) 등이 유인원 등이 고립된 성에서 원조를 받는 징일 없자 사신을 보내 이르길 “대사(大使) 등은

언제 서쪽으로 가시오? (간다면) 마땅히 안내자를 보내 전송하겠소!”라고 말하였다.『자치통감』 200, 『당기』 16, 고종 용삭 2년)

2차 고·당 전쟁(661~662) 패배의 여파는 당이 백제 지역에 주둔한 주둔군의 철수를 논의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¹²¹⁾ 위의 기록처럼 당 조정은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이후 당 주둔군의 공식 철군을 명령하였다. 당 고종은 유인원에게 “부성 하나만 고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一城不可獨固)”, 일단 군대를 안전한 신라 땅으로 옮기고, 만약 신라에서 당군의 주둔을 요구한다면 신라 땅에 머물러 있어도 좋지만 그것도 군사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 돌아와야 한다(宜泛海還)”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660년 12월에 당이 고구려 정벌을 결의하였을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소정방의 백제 원정군이 조속히 귀국한 것도 고구려 공략과 관련이 있었고, 661년 6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고구려전 또한 순조롭지 않아 신라의 참전을 강요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원정 자체가 대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른 전쟁의 후유증은 쉽사리 짐작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하는 조치가 전쟁을 수행하거나 관련된 군사력의 철수 내지 축소임은 동서고금의 전략이다. 백제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한 평양 직공책(直攻策)이 실패하였으므로 당 고종은 고구려 공격에 전력을 집중¹²²⁾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백제 땅을 포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원정과 연동된 백제 주둔 당군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백제, 당, 신라의 관계자라면

121) 이민수, 2022,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고구려발해연구』 73, 고구려발해학회, 146쪽.

122) 김중복, 2010,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78쪽.

이런 정세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다.

실제 당시 기록은 당군의 철군이 불가피 함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664) 겨울 10월 경진(庚辰)에 김교웅진도독(檢校熊津都督) 유인궤(劉仁軌)가 글을 올려 “신이 삼가 보건대, 남아있는 수비병은 피로하여 수척한 자가 많고, 용맹하고 건장한 자는 적습니다. 의복(衣服)조차 떨어져서 오직 서쪽으로 돌아가기만을 생각하며 힘써 공을 세울 마음이 없습니다. 신이 그들에게 ‘지난날 해서(海西)에 있을 때 백성(百姓)들이 사람들마다 응모(應募)하여 종군(從軍)하고자 다투면서 혹 스스로 옷과 양식을 마련해 가겠다고 청하며 ‘의로운 정벌(義征)’이라고 일컬었는데 어찌 오늘의 사졸(士卒)은 이와 같은가?’ 하고 물어보니, 모두 ‘……현경 5년(660) 이래 정벌에 참여한 자들이 여러 번 바다를 건넜으나 관(官)에서는 기록하지 않았고 사망자 또한 (무슨 연유인 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 주현(州縣)에서 매번 백성들을 징발하여 병사로 삼을 때는 건장하고 부유한 자는 돈을 써서 뇌물을 바치고 모두 도망쳐 숨어서 목숨을 면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몸이 비록 늙고 약하더라도 징발되면 곧바로 가야만 했다. 지난번 백제 격파 및 평양 고전(苦戰) 당시 장수들은 호령(號令)하여 공훈과 상을 주겠다고 핏이 그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서쪽 해안에 다다른 뒤부터는 오직 차꼬를 채우고 감금하였으며, 상으로 준 것을 빼앗고 관작을 파하였다. 주현에서도 쫓아 호통만 치니 자존(自存)할 수가 없어, 공사(公私) 간의 괴로움[困弊]이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번 해서(海西)로 출발하는 날에도 이미 도망(逃亡)치거나 자살[自殘]하는 자가 있었으니, 오직 해외(海外)에 이르러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본래 정벌 참여 의무(征役)에 따른 훈급(勳級)을 인해 영예를 누리고자 함인데 해마다 출정하면서 훈관(勳官)으로 하여금 배와 수레를 끌게 하여 노고(勞苦)가 백정(白丁)과 다름이 없었다. 백성이 종군(從軍)을 원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또 ‘예전에는 사졸(士卒)이 5년간 머물러도 오히려 지탱(支濟)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1년이 경과했는데도 왜 이와 같이 고단(單露)한가?’고 물으니, 모두 ‘처음에 짐을 출발할 때

는 오직 1년의 장비를 준비하라고 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미 2년이나 지났지만 돌아갈 기약은 없어서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군사들의 남은 옷을 조사해보니, 이번 겨울까지는 겨우 보충할 수 있으나 내년 가을에 가면 준비가 전무합니다. 폐하께서 해외 머무는 병사로 (오로지) 고려(高麗)를 멸망시키는데 쓰신다면, 백제와 고구려는 예전부터 서로를 성원(聲援)하였고, 왜인(倭人)도 비록 멀리 떨어졌으나 역시 함께 영향(影響)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백제) 주둔 군사가 없다면 도로 일국(一國)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이미 물자를 써 수비병으로 지키고 또 둔전을 설치한 것은 사졸들이 한바음 한뜻이 되어 일한 데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 사이에 이런 의논이 있으니, 어찌 성공을 바라겠습니까!……”고 아뢰었다. 그러자 고종이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자치통감』 200, 「당기」 16, 고종 인덕 원년)

위 기록은 662년 당 조정의 백제 주둔군 철수 명령에 대해 인덕 원년(664) 10월에 유인궤가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비의 당 주둔군은 유지되었지만 이 당시 조사에서도 백제에 머무르는 당 군사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남아있는 수비병은 피로하여 수척한 자가 많고, 용맹하고 건장한 자는 적으며 의복(衣服)조차 떨어져서 오직 서쪽으로 돌아가기만을 생각하며 힘써 공을 세울 마음이 없었다(所存戍兵 疲羸者多 勇健者少 衣服貧敝 唯思西歸 無心展效)”고 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당 본토의 주현(州縣)에서는 백성들을 징발할 때 건강하고 부유한 자는 이미 돈으로 뇌물을 바치고 모두 도망치거나 숨어버렸으나 가난한 자는 몸이 늙고 약하더라도 징발되면 곧바로 가야만 했기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도망치거나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야기되었다. 또 다급한 나머지 장수들은 공훈과 상을 주겠다고 달래거나

아예 정역(征役)을 마친 자까지 끌어내 종군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부조리한 병역 관리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 백제에 도달한 이후에는 감금 상태에서 군역에 종사하였고, 처음 징발 당했을 때는 1년을 기한으로 왔음에도 2년 째 머무르는 등의 불합리가 만연하였기에 “백성들은 종군을 원하지 않는(百姓不願從軍)” 상태였다.

이와 같이 664년에 이르러 누적된 당의 해외 파견군에 대한 불만은 이미 백제 정벌로 주둔하던 초기(660~661)부터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더군다나 661년 당시에 백제 지역은 사비성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이 부흥 세력의 손아귀에 있었고, 신라에서 당 주둔군에 이르는 병참선도 단절된 상태였다. 비록 위의 『자치통감』에는 백제 세력의 대표가 풍왕과 복신 등으로 나타나지만 “고립된 성에서 원조도 없는(孤城無援)” 지경이니, “언제 서쪽으로 가시오?(何時西還)”라고 조롱을 당할 정도였다.¹²³⁾ 따라서 당 주둔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제 부흥 세력과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앞의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에 따르면 백제와 당 주둔군 사이의 교섭은 결국 결렬되었다. 또 위의 기록도 유인계가 주둔군의 철수에 결사반대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렬에 이르기 전의 초기 교섭(661~662)은 서로의 요구와 필요로 진행이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3) 서영교, 2020, 「백제말양전쟁과 김흠순」, 『영남학』 7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78쪽.

5. 백제·당 밀착의 파장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당의 한반도 전략에 일대 전환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역으로 백제 부흥에 유리한 환경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 이에 부흥 세력은 교섭을 통해 백제 주둔 당군의 철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건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은 백제 지역과 연관된 각국에게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중요 이해 당사자인 신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처음 당과 동맹을 맺을 당시 고구려 영토는 당이, 백제 영토는 신라가 확보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백제 영토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신라와 상관 없이 당과 부흥 세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낚새가 여실하였기 때문이다.

당이 백제 정벌 지역에 기미 지배를 하겠다는 의사는 643년부터 제기되었고, 도독부를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지는 나·당 동맹이 추구되던 649년 무렵부터였다.¹²⁴⁾ 그러므로 659년에 당이 세운 ‘선공백제(先攻百濟)’ 전략도 단순히 고구려 정복을 위한 일시적 군사 거점 활용에 그치지 않고 기미부주제 적용을 통한 직접 지배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¹²⁵⁾

이것은 현실의 동맹 관계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여 서로 존중하는 정신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공포를 매개로 하거나 지금으로서는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맺어둔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124) 김덕원, 2022,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5쪽.

125) 최현화, 2006,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160-161쪽.

따라서 신라도 실제적인 행보를 통한 압박과 항변을 강구하였다.

(661, 문무왕 원년) 6월에 당 고종(高宗) 황제가 장군 소정방(蘇定方) 등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하려 할 때 당에 들어가 숙위(宿衛)하던 김인문(金仁問)이 명을 받고 돌아와 시기를 알리며 아울러 출병(出兵)하여 함께 치기를 권유하였다. 이에 문무대왕(文武大王)은 유신, 인문, 문훈(文訓) 등을 거느리고 대병(大兵)으로 고구려를 향해 출발했다. 남천주에 행차(行次)하였을 때 주둔하던 유인원(劉仁願)이 병사를 거느리고 사비(泗水)에서 배를 띄워 해포(鞋浦)에서 내린 후 역시 남천주(南川州)에 진영을 차렸다. 이때 담당 관리가 “앞길에 백제잔적(百濟殘賊) 있는데 웅산성(熊山城)에 주둔하고 길을 막으니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김)유신이 병사를 내보내 성을 둘러싸고 사람을 시켜 성 아래에 가까이 가서 적장에게 “너희 나라가 공손하지 못하여 대국의 토벌을 당하였다. 명령을 따르는 자는 상을 주겠고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지금 너희들은 홀로 외로운 성을 지켜 어찌하고자 함인가? 끝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니 성에서 나와 항복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귀도 기약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게 하니, 적들이 큰 소리로 “비록 조그만 성이지만 군사와 식량이 모두 족하며, 장수와 병졸이 의롭고 용기가 있으니 차라리 죽도록 싸울지언정 맹세코 살아 항복하지는 않겠다”고 외쳤다. (김)유신이 웃으며 “궁지에 몰린 새와 짐승은 오히려 스스로를 구할 줄 안다고 하는데 이 경우를 두고 말 함이다”라 하고는 이에 깃발을 흔들고 북을 쳐 공격하였다. 대왕은 높은 곳에 올라 싸우는 군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격려하니 병사들이 모두 분발해서 공격하여 창끝과 칼날을 겁내지 않았다. 9월 27일에 성을 함락하자 적의 장수를 잡아 처형하고 그 백성은 놓아주었다. 공을 논하여 장수와 병사에게 상을 주었고 유인원도 비단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어, 이에 군사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을 먹인 후 가서 당병과 합치려 하였다.([삼국사기] 42, 『열전』 2, 김유신 중)

위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유인원의 행동반경이다. 익히 알다시피 그는 660년 백제부성인 사비에 주둔하였다. 이후 661년 6월에도 사비에 있었다. 그런 유인원이 위의 기록에는 소정방의 평양성 공격에 관할 부대를 동원해 사비성에서 배를 띄워 혜포(남양만)¹²⁶⁾에 상륙한 후 신라와 함께 남천주(경기도 이천)에 군영을 차렸다는 것이다. 이 행동을 소수 병력에 의한 상징적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¹²⁷⁾ 부흥군과 대치하던 당나라 장군이 일부 부대를 이끌고 진영을 나와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남천주에 나타났다는 기록대로라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만드는 파장은 그리 간단하게 치부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아래의 문무왕 원년(661) 기록에는 신라왕이 여러 장군을 이끌고 시이곡정(始飴谷停)에 이르렀다가 담당 부서의 급보로 백제 웅산성을 쳤다고 하였으니 신라군이 아직 남천주에 이르지 못한 것이 확실하므로 유인원 부대가 남천주에 주둔하였다는 표현도 사실성이 의심스럽다거나,¹²⁸⁾ 이 때 유인원도 남천정(南川停)이 아니라 시이곡정에 와서 신라군과 같이 행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¹²⁹⁾

하지만 662년 2월에도 김유신이 신라군을 거느리고 평양성의 소정방군에게 군량을 조달할 때 신라군 뿐만 아니라 유인원이 이끈 백제부성의 군사들도 참여했다고 나타나는 것¹³⁰⁾으로 보면, 유인원의 군사 활동은 사뭇 활발함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당 주둔군의 활동은 결국 백제(도침 측)와 당(주둔군) 사이에 외교 교섭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반영하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도 있다.

126)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63쪽.

127) 김영관, 2004, 「백제부흥운동의 성세와 당군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35, 한국고대사학회, 175쪽.

128)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2008, 『백제사자료역주집 - 한국편 1-』, 546쪽.

129) 이병도 역, 1990, 『삼국사기』 하, 을유문화사, 305쪽.

130) 『삼국사기』 44, 「열전」 4, 김인문.

이 시기 백제 측은 교섭을 통해 『신당서』 백제전의 기록처럼 “당과 신라가 약조하여 백제를 격파하면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나라를 나누어갓기로 했다고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니 싸우는 게 낫다(聞唐與新羅約 破百濟 無老孺皆殺之 昇以國 我與受死不若戰)”는 봉기 이유를 들고, 다시 『자치통감』 고종 용삭 2년(662) 기록처럼 백제 주둔 당군이 처한 현실을 주지시키며 조속히 “바다를 건너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였을 것이다.

『구당서』 백제전에는 유인궤가 “글을 지어 상세히 화복을 설명하고 사절을 보내 설득하였다(作書 具陳禍福 遣使諭之)”고 한 것을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 당측에서도 상당히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마도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전 준비나 본국과의 협의 등을 빌미로 당 주둔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묵과하는 이면의 양해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김유신 열전에 “주둔하던 유인원이 거느린 군사를 사비에서 배를 태워 헤포에 이르러 하륙시키고 또한 남천주에 진영을 차렸다(鎮守劉仁願 以所領兵 自泗泚泛船 至鞋浦下陸 亦營於南川州)거나 김인문 열전에 ”용삭 원년(661)에……인문은 지키던 유인원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쌀 4천 석과 벼 2만여 가마를 싣고 (평양에) 이르렀다(龍朔元年……仁問與留鎮劉仁願 率兵兼輸米四千石租二萬餘斛 赴之)”고 언급한 것처럼 660~661년 사이에 유인원이 거느린 당 주둔군의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 세력과 당 주둔군의 협상 분위기는 신라 측으로는 상상도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661) 남방제성(南方諸城)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켜 모두 복신(福信)에게 속하니 복신이 승세를 타서 부성(府城)을 다시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웅진(熊津)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소금과 간장이 다 떨어졌다.([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당시 백제부성은 부흥 세력의 포위로 군량 운송로가 차단되어 간신히 신라가 사잇길을 이용하여 물자를 보낼 정도로 고립되었다.¹³¹⁾ 이러한 상황임에도 661년 6월에 신라군의 참전 요청에 따라 문무왕은 7월에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 원정군을 지원하는 길에 나섰던 참이다. 여기에는 대당, 귀당, 상주정, 하주정, 남천주정, 수약주정, 하서주정, 서당, 낭당, 계금당 등 10개 군단이 동원되었고, 대장군 김유신을 필두로 24명의 장군이 출정하였다. 장군 1인당 1,500명을 거느렸다고 볼 경우 병력 수는 36,000명이다. 신라의 대규모 병력 동원 사례에서 치중병 즉 전투지원병 30%를 더하여 계산하면 군사 규모는 46,800명으로¹³²⁾, 이제까지 신라가 동원한 군대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그런 신라 측 앞에 부흥군의 포위로 꼼짝달짝 못하리라 여겨졌던 사비성의 당나라군이 남천주에 주둔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이 전달되었다. 그 순간 신라군의 진격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신라군이 “앞길에 백제의 잔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격 방향을 돌린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나라의 기대와 다르게 신라가 취한 실리적인 행보 보다는 실제적으로 당과 백제의 밀착을 견제할 필요성이 중요하였기에 나타난 행동이었다.¹³³⁾

131) 노종국, 2003, 앞의 책, 226쪽.

132) 이상훈, 2011,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 역사교육학회, 185-187쪽.

133) 김병남, 2013, 『백제 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 42, 전북사학회, 63쪽.

6. 신라의 반격과 도침의 몰락

백제 부흥 세력은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대전 부근에 계족산성, 이현동산성, 장동산성, 성치산성, 질현성, 연축동산성 등을 축조하였다. 당시 부흥 세력이 점거한 곳은 기존에 있던 산성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활동 영역도 백제의 성곽 분포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¹³⁴⁾ 이것은 부흥군이 이들 성곽을 점령하여 신라와 당군 사이의 연결선을 차단하여 사비 등 당 주둔 지역의 고립을 도모하였던 것이다.¹³⁵⁾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진전시켜 보면 당시 신라와 당이 직접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제의 미래 재조정 즉, 국가 재건의 조짐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용산성 전투는 부흥 세력이나 신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투가 될 수밖에 없기에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661) 원년 6월에 당에 들어가 숙위하던 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와 왕에게 “황제께서 이미 소정방을 보내 수군과 육군 35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고, 마침내 왕께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로 응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왕께서] 비록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지만 무거운 황제의 칙명을 어기기는 어렵습니다”고 고하였다. 가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 진주, 흙들을 대당 장군으로, 천존, 죽지,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품일, 충상, 의복을 상주 총관으로, 진흙, 중신, 자간을 하주 총관으로, 군관, 수세, 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술실, 달관,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문훈, 진순을 하서주 총관으로, 진복을 서당 총관으로, 의광을 낭당 총관으로, 위지

134)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500쪽.

135) 서정석, 2004, 『부흥운동기 백제의 군사활동과 산성』,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162쪽.

를 계급 대감으로 삼았다. 8월에 대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정에 이르러 머물렀다. 사자가 와서 아뢰기를 “백제잔적(百濟殘賊)이 웅산성에 응거하며 길을 막아 나아가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대왕이 우선 사람을 보내 타일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9월 19일에 대왕이 웅현정(熊峴亭)에 다다라 모든 총관과 대감을 모이게 하고 친히 가서 맹세케 하였다. 25일에 진군하여 웅산성을 에워쌌다.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사르고 수천 명을 베어 죽이고 드디어 항복시켰다. 전공을 논하여, 각간과 이찬으로서 총관인 사람에게는 검을 주고, 잡찬, 파진찬, 대야찬으로서 총관인 사람에게는 창을 주었으며, 그 이하는 각각 관등 한 등급씩을 올려 주었다. 웅현성을 쌓았다.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산군 태수 대당과 사시산군 태수 철천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우술성을 쳐서 1천 명을 목 베었다. 백제의 달술 조복과 은술 파가가 무리와 더불어 피하여 항복하였으므로 조복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고타야군 태수로 삼았으며,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과 아울러 토지와 집, 옷 등을 내려주었다. 겨울 10월 29일에 대왕이 당나라 황제의 사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원년

웅산성(계족산성)¹³⁶⁾ 전투에 대한 기록은 앞선 김유신전과 함께 위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웅산성은 문의-청주를 거쳐 북상하는 진로를 감시하는 동시에 보은-옥천-회덕-유성-공주에 이르는 웅진도를 차단할 위치여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므로¹³⁷⁾ 상당한 부흥군이 주둔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문무왕 원년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을 베어 죽인(殺數千人)’ 후에야 항복시켰다는 것으로 보아 매우 많은 부흥군이 자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성내에는 “군사와 식량이 모두 풍족하다(兵食俱足)”고

136) 심정보, 1983,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67쪽 ; 이도학, 1999,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122쪽.

137)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2008, 앞의 책, 316쪽.

하여 장기 농성에 대비한 군량에도 충실하였음이 엿보인다. 더불어 주둔군들의 사기도 높았고, 지휘 장군의 마음도 확고한 상태였다. 우술성을 공격했을 때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를 따르는 무리가 항복하였던 것과 달리 웅산성 전투 기록 어디에도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 투항한 이는 없었다. 더하여 웅산성에는 대책(大柵)을 비롯한 여러 목책들이 설치되어 본성의 방어 시설이 견고히 갖추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웅산성은 지정학적인 요충으로서 튼실한 방어 시설, 중앙의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도 풍족한 식량의 자급, 사기가 충만한 다수의 부흥군, 뛰어난 역량의 지휘관 등이 어우러져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것은 웅산성이 백제 부흥 세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동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도 웅산성 공략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661년 9월 19일에 문무왕은 웅현정에서 “전군 지휘관 작전회의[集諸總管大監]”를 개최하고 반드시 이길 것을 맹세토록 하였다. 이 맹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웅산성을 함락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신라에게 웅산성 공격은 전 해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 실패(661.4)를 만회하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당시 2만 이상의 정규군을 동원하고도 비정규의 부흥군에게 패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백제 전 지역에 부흥전쟁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흥 세력은 당 주둔군과 직접 교섭을 진행해 당당히 복국(復國)을 부르짖는 기회를 맞이하였고, 이러한 상황 변화가 신라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라로서는 웅산성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단호하고

비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신라군은 9월 25일에 웅산성으로 진격하여 성을 포위하였다. 대군을 동원한 신라로서는 숫자에서 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싸움 없이 성을 인계받기를 원했겠지만 만반의 준비를 다지고 대항하는 부흥군은 “살아서 항복할 생각[誓不生降]”이 추호도 없는 상태였다. 이후 부흥군은 신라군의 공격을 빈번이 물리침으로써 희생을 강요하고 사기도 떨어트렸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문무왕 다시 신라군을 독려하였다. 문무왕의 “눈물 어린 격려[淚語激勵之]”에 신라군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돌격[士皆奮突 鋒刃不顧]’한 끝에 부흥군의 기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9월 27일에 웅산성의 “대책이 불타며 수천 명의 병사가 참살(先燒大柵 斬殺數千人)”되었고, “성이 함락되면서 부흥군 장수도 잡혀 죽임을 당하게(城陷 捉賊將戮之)”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웅산성 전투는 부흥군이 치른 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장렬한 전투였다.

한편, 위의 문무왕 원년 기록에 따르면 웅산성 함락 이후 신라는 계속해서 우술성마저 공격하였다. 신라군이 웅산성을 함락한 후 우술성을 친 것을 보면 두 성의 거리는 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우술성을 연축동산성(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수척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¹³⁸⁾ 이 성을 지키던 부흥 세력은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 등이었다. 이들이 신라군과 싸울 때가 661년 9월이므로 우술성을 거점으로

138) 심정보, 2006, 『백제의 부흥운동』, 『충청남도지』 4, 490쪽;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501쪽. 한편 계족산성 발굴조사에 ‘우술(雨述)’, ‘우술천국(雨述天國)’ 등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충남대 박물관·대전시, 1998, 『계족산성 발굴조사약보』, 8-9쪽.)되어 우술성을 계족산성으로 보기도 한다.(노중국, 2003, 앞의 책, 182쪽.)

하여 독자적으로 부흥군을 일으킨 후 부흥 세력과 일정한 연계를 맺지 않았을까 한다.¹³⁹⁾

처음 우술성도 신라군의 공격에 강력히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웅산성을 함락시킨 신라군의 공격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조복과 파가 등의 무리는 투항함으로써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조복·파가의 이탈은 부흥군의 저항을 약화시켰고, 우술성도 함락으로 이끌었다. 이때 부흥군 “1천여 명이 참수되었다(斬首一千級)”는 것으로 미루어 우술성에도 많은 군대가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부흥 세력의 중요한 요충인 웅산성과 우술성의 함락은 심한 타격이었다. 직접적으로 두 성의 전사자만 해도 수천 명이었다. 더군다나 이성들을 통해 당 주둔군을 곤란하게 만들던 군량 수송로 차단마저 풀려 버렸다. 이것은 향후 부흥군의 작전 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웅산성·우술성 전투가 낳은 중요한 결과는 따로 있다. 이를 통해 신라가 부흥 세력과 당 주둔군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게 된 것이다. 신라가 당 주둔군에 직접 원조 상태를 복원하여 나·당 동맹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당 주둔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부흥 세력과의 교섭을 방지한 것이다. 웅산성 전투 이후인 10월 29일에 도착한 ‘당의 사신(皇帝使者)’은 달리 생각하면 이를 통해 신라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 조정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백제 측은 풍왕 정권의 수립(661.9)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던

139) 노종국, 2003, 앞의 책, 230쪽.

국가 재건의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당시 백제는 부여풍의 귀환과 등극이라는 일정과 함께 지역 세력의 유기적 협력 구성을 통한 국가 부흥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백제와 당의 교섭 진행과 그에 따른 신라의 반발은 유기적 지역 연결망이 공고해지기도 전에 한 부분을 와해시키고 말았고, 나아가 지역 부흥 세력의 일부가 다시 신라에 투항하는 인적 구조의 결속마저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술성의 조복과 파가의 투항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문무왕 2년(662) 2월에 탐라국주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신라에 항복한 것¹⁴⁰⁾도 이와 연결되는 것이다. 문무왕 2년 3월에 문무왕이 죄수를 크게 사면하면서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담당 부서는 큰 잔치를 베풀라(既平百濟 命所司設大飮)”¹⁴¹⁾고 지시한 것도 부흥 세력을 더 이상 위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¹⁴²⁾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전개는 결국 부흥전쟁의 초반을 주도한 도침의 정국 운영에 총체적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이 도침의 몰락을 야기하고 복신의 부흥 세력 주도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도침과 복신의 불화는 서로 영군장군과 상삼장군이라 자호하는 가운데 부흥군에 대한 지휘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그동안 도침의 제거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661년 2월의 웅진강구 전투에서 도침이 당군에게 대패한 일이 좋은 빌미가 되어 복신이 패배 책임을 물어 도침을 제거하였다고 보았다.¹⁴³⁾ 이에 대해서는 웅진강구 전투의 때문이 아니라 패배 이후에도 도침이 여전히

140)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2월.

141)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3월.

142) 이도학, 1997,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26쪽.

143) 김영관, 2003, 『백제부흥운동의 실패 원인』, 『선사와 고대』 19, 한국고대학회, 287쪽.

히 최고 사령관 행세를 하였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곤 견해도 있다.¹⁴⁴⁾ 또 복신은 부여풍을 상징적인 존재로 무시하였지만 도침은 군신의 예를 갖추자 자신의 입지를 우려해서 유인궤와 외교 교섭을 한 것을 이적 행위라는 명분으로 살해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¹⁴⁵⁾

하지만 웅진강구 전투의 패배는 뒤이은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의 승리로 반전되었고, 이후 정국을 도침이 주도하는 기록으로 보아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라 판단된다. 여러 과정들로 인해 불신이 쌓였겠지만 오히려 661년 4월의 두량이·주류성 전투 승리 이후 661년 6월의 신라 무열왕 사망과 문무왕의 즉위, 당의 고구려 정벌이라는 유리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상실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한다. 즉, 대내적으로는 흩어진 여러 세력을 불러 모아 국가의 부흥을 공식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부여풍의 귀환을 통한 왕권의 완성이라는 체계적 국정 운영 방안이 모두 어긋나버린 것에 있는 것이다. 『구당서』 기록에 스스로 도침이 ‘일국의 대장(一國大將)’이라 호언하며 외교적 교섭을 주도하는 사이 두량이·주류성 전투의 승리를 발판삼아 진행하려던 재건 노력을 지지부진하게 하였고, 이 사이에 신라가 용산성·우술성 전투(661.9)를 승리하여 당과의 연결을 복원함으로써 부흥 세력의 미래가 반전되었던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복신 중심의 부흥 세력이 도침 제거를 실행한 계기는 이 연장선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44) 노중국, 2004,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101쪽.

145) 심정보, 2007,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4쪽.



V.
부흥백제국의 수립과 실패



V. 부흥백제국의 수립과 실패

1. 엇갈리는 귀환 시점

『일본서기』 제명 6년(660) 10월 기록에 따르면 복신 등의 부흥 세력이 “왕자(부)여풍장을 돌려 줄 것을 요청(乞王子余豐璋)”한 것으로 나온다. 이 시기는 백제 각 지역에서 부흥전쟁이 개시되는 중이었다. 복신, 도침, 정무, 여자진 등은 부흥전쟁을 주도하며 침략군을 몰아내고 단절된 왕통을 이어 국가의 존속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당시 백제 인들은 ‘위험한 국가 상황을 다시 안정시켜 유지’한다는 사고 방식을 보였다. 따라서 의자왕이 항복한 660년 7월 18일로부터 두 달 만인 9월 23일에 수도인 사비성을 되찾고자 노력하였고, 10월에는 왜국에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부여풍의 귀환이 성사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었다.

6개월 후인 제명 7년(661) 4월 기록에는 다시 복신이 “왕자 규해를 맞이하기를 요청(乞迎其王子紉解)”하였다고 나온다. 기록 상 ‘여풍장’

과 ‘규해’라는 인명은 판이하다. 하지만 660년 10월과 661년 4월에 부흥 세력이 왜국에 요청 인물의 특성상 부여풍(풍장)으로 여겨지는 왕자 규해(紇解)¹⁴⁶⁾의 송환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두량이·고사비성 전투(661년 3~4월)의 승리로 백제국 부흥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이었다. 부흥 백제국의 열망은 ‘남방제성(南方諸城)’이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정도로 높았던 상태였다. 당시 백제 지역은 중앙 정부와 지배층이 일순간에 사라진 공백 상태였기에 각 지역은 독자적 생존이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661년 4월의 승리 소식은 사비 정부를 대체할 주류성 체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기에 당 주둔군과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정국을 관망하던 지역 세력들은 부흥군에 호응하였던 것이다.

복신은 국가적 방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세력의 복속에 주력하였다. 이들을 더욱 밀착시켜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면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정치 일정을 보여야만 했다. 따라서 왕의 추대와 즉위를 통해 백제의 지속을 실행하는 의지와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그 시작은 부여풍의 조기 귀환에 있었다. 그러나 부여풍의 귀국은 여전히 불투명하였다.

그리고 부여풍의 환국(還國)과 관련해서는 다시 3개월 후인 661년 9월에야 기록이 보인다.

(661) 9월 황태자가 나가쓰노(長津宮)에 가서 백제 왕자 풍장(豐璋)에게 직관을 주고, 또 오오노오미코모시키(多臣蔣敷)의 누이를 아내로 삼도록 했다. 그

146) 김영관, 2005, 앞의 책, 122쪽. 이와는 달리 부여풍의 동생으로 보기도 한다.(노종국, 2003, 앞의 책, 255쪽.)

리고 대신하(大山下) 사이노무라치아치마사(狹井連檜柳)·소산하(小山下) 하타노미야츠코노다쿠쓰(秦造田來津)을 파견하여 군사 5천여 명을 거느리고 본국까지 호위해 보내게 하였다. 이에 풍장이 입국할 때 복신(福信)이 맞이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라의 정사를 모두 맡겼다.([『일본서기』 27, 천지 즉위 전])

(662) 여름 5월 대장군 대금중(大錦中) 아즈미노히라부노무라치(阿曇比羅夫連) 등이 수군 170척을 거느리고 풍장(豐璋) 등을 백제국(百濟國)에 보낸 후 칙서를 내려 풍장 등이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또한 복신(福信)에게 금책(金策)을 줄 때 등을 어루만지면서 작록(爵祿)을 포상으로 주었다. 이때에 풍장 등은 복신과 더불어 머리를 조아리고 칙서를 받으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위의 『일본서기』에는 부여풍이 풍장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의 귀국 시기가 661년 9월과 이듬해인 662년 5월이라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 중 상단의 661년 9월 기록에는 백제 왕자 풍장(豐璋, 부여풍)을 “군사 5천명에게 호위하게 하여 본향으로 보냈다(率軍五千餘 衛送於本鄉)”고 나오는데, 하단의 662년 5월 기록에도 “수군 170척을 보내면서 풍장 등을 백제국에 보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일본서기』는 부여풍의 귀국에 두 가지 시기를 병기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같은 부여풍에 대한 기록임에도 귀국 시기가 다른 적힌 것은 『일본서기』의 찬술(撰述)에 사용한 원 자료가 달랐기 때문이다. 661년 9월 기록은 부여풍을 호위하여 따라간 하타노미야츠코노다쿠쓰(秦造田來津) 즉 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와 관련된 가기(家記)가 참고되었고,

662년 5월 기록은 아츠미노히라부노무라치(阿曇比羅夫連)의 활약상과 관련된 자료가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귀국 시기는 착오가 아니라 참고 자료 때문이며, 『일본서기』 편찬자가 원 자료를 그대로 적었던 것이다.¹⁴⁷⁾ 이것은 두 기록에 모두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부여풍의 백제 귀국 시점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부여풍은 661년 9월에 치쿠시(筑紫)로 와서 나카노오에(中大兄) 황자로부터 책봉을 받은 후 바다를 건널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이듬해 5월에야 5천의 구원군이 실린 170척의 선단과 함께 귀환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¹⁴⁸⁾

하지만 이 두 기록 중 부여풍의 귀국 시기와 관련하여 하나만을 연관시키지 않고, 그의 귀환 시점과 이후 백제왕 즉위 시점에 대한 것으로 보면 어떨까? 부여풍은 부흥 세력의 요청 시점으로부터 1년 여만인 661년 9월에 귀환을 시작되었지만 백제 땅에 도착한 이후 부흥 세력 내부의 정치적 요동으로 정식 즉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였던 것이다.

분명한 점은 『구당서』 백제전에 따르면 “이 때는 용삭(龍朔) 원년 3월이다……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군대를 아우르니 부여풍은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다”고 하여 적어도 661년 3월 이후에는 부여풍이 백제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게 한다. 『일본서기』 제명 6년 10월 기록에도 “왕자 풍장과 처자를 그의 숙부 충승 등과 함께 보냈다. 그를 정식으로 보낸 때는 7년에 보인다(送王子豊璋及妻子 與其叔

147) 박재용, 2007, 『『일본서기』에 인용된 도헌의 『일본서기』』, 『한국고대사연구』 47, 한국고대사학회, 130쪽.

148) 이도학, 1997, 앞의 책, 240쪽; 심정보, 2007, 앞의 논문, 200쪽.

父忠勝等 其正發遣之時 見于七年)”고 하여, 부여풍이 백제 귀환 시기를 제명 7년(661)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부여풍의 귀국이 661년 9월 이후로 파악하게 한다.

그렇다면 662년 5월이란 귀국 시기는 무엇일까? 이것은 기록의 앞쪽에 “부여풍 등을 백제국에 보냈다(送豐璋等於百濟國)”는 부분 보다는 “풍장 등에게 그 위를 잇게 했다(以豐璋等使繼其位)”는 부분에 주목하여 보면 이해가 쉽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정식 즉위식을 통해 백제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부여풍,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부여풍이 왜국을 떠난 시점은 언제였을까? 앞에 인용된 『일본서기』 661년 9월 기록에 따르면 부여풍은 떠나기에 앞서 몇 가지 의식과 행사를 치렀다. 우선 왜국의 ‘직관(織冠)’을 수여받는 의식이 있었다. 이는 대화개신(大化改新, 647)에 의해 제정된 왜국의 19단계 관위(官位) 중 최고 관직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왜국에서 부여풍을 신하의 위치에 두려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¹⁴⁹⁾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런 의식 수행에 따르는 일정 소요 기간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부여풍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행사이다. 부여풍이란 인물이 왜국에 간 것이 643년의 일임을 고려하면 20년이란 세월을 거주한 것이 된다. 연령을 고려할 경우 당연히 혼자 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고국 귀환에 즈음하여 다시 혼인이 성사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

149) 이성범 역(도야마 미쓰오 저), 2002, 『우리가 몰랐던 왜국의 백제파병 이야기-백촌강전투』, J&C, 162쪽.

다. 하지만 이런 정략 결혼의 배경이나 의미 등은 생략토록 하고, 이 사실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그로 인한 파생된 일정과 시간이다.

국가의 관직 수여나 왕실의 혼인 행사 등은 각종 의식 절차로 인해 상당한 노고와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할 당사자인 부여풍과 일행이 왜국을 떠나는 시기는 빨라야 9월 하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왜국의 제명(齊明) 여왕이 661년 7월 24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국상 기간(8~9월)¹⁵⁰⁾에 부여풍이 참석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¹⁵¹⁾ 이러면 그의 귀국 시기는 더욱 늦어져 10월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여풍은 부흥 세력의 거점인 주류성(부안)에 언제 도착했을까? 즉, 부여풍이 출발한 현재의 후쿠오카(福岡)의 나가쓰노(長津宮)에서 부안 해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도달했을까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항해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유사한 내용을 감안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것이다.

(659) 『이길련박덕서(伊吉連博德書)』에는 …… 2척의 배로 오당(吳唐)의 길을 이용하여……8월 11일에 치쿠시[筑紫]의 오오쓰우라[大津浦]를 출발하였다. 9월 13일에 백제(百濟)의 남단에 있는 섬에 이르렀는데 섬의 이름은 명확히 알 수 없다. (9월) 14일 인시(寅時)에 2척의 배가 연이어 대해(大海)로 접어들었다.……(『일본서기』 26, 제명 5년 7월)

150) 변인석, 1994, 『백강구 전쟁과 백제-왜 관계』, 한울아카데미, 44쪽.

151) 심정보, 2007, 앞의 논문, 197쪽.

위는 2년 전 왜국의 견당사 파견 때의 항로를 적은 것으로, 당시 견당사는 북큐슈(北九州)를 출발하여 절강성의 괄주(括州)를 거쳐 낙양에 이르는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출발점인 오오쓰우라(大津浦)가 현재의 후쿠오카 하카다(博多) 만이다. 따라서 부여풍의 출발지인 후쿠오카(福岡)의 나가쓰노(長津宮)와 동일한 곳이었다.

당시 견당사의 배는 '오당지로(吳唐之路)'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북큐슈를 출발하여 한반도 남서부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의 강남 지역으로 직행하는 항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백제 남단의 섬에 이르렀고, 이어 대해로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후쿠오카에서 제주 남쪽을 지나 동중국해로 나가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7월 하순~8월 하순은 동중국해의 기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남동 내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견당선은 대개 여름에 출발하였다. 삼국시대의 항해에는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라에서 왜국으로 갈 때는 겨울 계절풍을 이용하기 때문에 10~12월 사이에 집중되는 반면에 왜국에서 신라로는 봄~초여름~가을에 걸쳐 남풍 계열의 바람을 이용해야만 순조롭다.¹⁵²⁾

661년 9월 부여풍 일행은 661년 9월 기록에 나오는 나가쓰노(長津宮)를 기점으로 출발하였다면 백제 남단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비록 600년 이후지만 고려 원종 15년(1274)에 여·일 연합군의 일본 원정 때도 25,600명의 군사와 900척의 전함이 동원되어 10월 3일에 함포(마산포)를 출발→10월 5~6일에 대마도 기슭→10월 14일에 일기도 공격→10월 19일 하카다[博多]만에 다다른 순으

152) 윤명철, 2000, 「신라하대의 해양활동연구」, 『국사관논총』 91, 국사편찬위원회, 208-209쪽.

로 마산~하카다의 항해 기간이 보름 이상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하카다에서 거제 앞바다까지 겨울의 역풍 속에서 진행되었을 부여풍 선단의 항해 기간은 생각 이상으로 길었을 것이다.

또한 부여풍이 이용한 항로는 왜국의 견당사 항로와 다르게 남해의 리아스식 해안을 지나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서해를 따라 부산 해역까지 이르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항로에는 도서(島嶼)들이 많아 운항의 안전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특히 한반도 서남해안은 조류(潮流)의 영향력이 크고, 흐름의 방향도 지역 편차가 심해 신경을 써야 한다. 더하여 낮밤으로 해풍과 육풍의 변화에다가 그 바람이 주위 지형과 부딪혀 흐름도 변한다. 이러한 기상과 항해 등의 제반 조건은 선박의 운항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일정도 계속 늘어나기 쉬웠다.

더군다나 659년의 왜국 견당사는 2척에 불과했지만 661년 9월 부여풍 일행은 5천의 군사까지 함께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각종 장비와 무기·군량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규모는 662년 5월의 표현처럼 수군 170척이 동원될 정도였던 것이다. 6~7세기 왜의 병선(兵船)은 본질적으로는 수송선인데 크기는 길이가 10m가 약간 넘고 20명 정도¹⁵³⁾가 탑승한다. 이럴 경우 부여풍의 군사 5천이 170척에 나눠 타면 1척당 29~30명이 되어 승선 인원 초과가 된다. 하지만 『일본서기』 효덕 백치 원년(650)의 ‘백제선(百濟船)’ 건조 사실은 대형 선박도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명나라 말기 모원의(茅元儀)가 지은 『무비지(武備志)』 단계에서도 ‘왜인

153) 변인석, 1994, 『백강구 전쟁과 백제-왜 관계』, 한울아카데미, 196쪽.

(倭人)의 배는 매우 허약하여 대선은 300명, 중선과 소선은 50~100명을 수용할 정도이나 배 밑이 평평하고 돛이 하나라 순풍에만 사용하고 폭풍이나 미풍(迷風)을 만나면 돛이 넘어지고 노가 흔들려 대양을 건널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비록 중대형의 선박이 있더라도 제조와 운항 기술의 미흡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¹⁵⁴⁾

이렇게 되면 부여풍과 5천 군사를 실은 선단의 이동 속도는 더욱 떨어진다. 오늘날처럼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가 달리지 않은 전근대 이전 선박의 경우 순전히 사람과 바람의 힘을 이용해야 만이 항해가 가능하였기에 속도 또한 생각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838년 일본의 견당사 파견 때 참여한 엔닌(圓仁)의 기록에는 6월 13일의 출발 때 “바람이 불지 않아 사흘을 머물렀다”거나 6월 17일에도 “바람이 없어 닻새 동안 머물렀다”는 등 항해에 바람의 영향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⁵⁾

더불어 원활한 식량·식수의 공급도 문제였다. 660년 백제의 붕괴에 따라 서남해안 일대 지방 행정 체계도 무너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럴 경우 아무리 부여풍이라도 각 지역의 원활한 해상 보급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엔닌이 “사람마다 설사로 고생하여 배의 출발이 한결같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불결하고 비좁은 공간의 전염병 발생도 빈발하여 육지에 수시로 정박했음을 짐작케 한다. 여기에다가 『일본서기』 천지 2년(663) 8월의 백강구 전투에 “기상 미관찰(不觀氣象)”과 “뱃머리와 고물의 선회를 못함(艫舳不得廻旋)”이 패배 원인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

154) 정진술 외, 2007,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해군사관학교, 307-308쪽.

155) 신복룡 역, 1991, 『입당구법순례행기』, 정신세계사, 19쪽.

면 항해 중에 진법 훈련까지 때때로 수행하여야 했을 것이므로 여러 이유로 항해 기간과 거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다면 왜국 견당사의 움직임보다 적어도 두 배인 60일 이상은 잡아야 주류성 근방에 도달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부여풍이 661년 9월 말에 후쿠오카에서 출발하였다고 가정하면 부안 일대에 아무리 순조롭게 도달하여도 거의 11월 말인 것이다. 하지만 삼국이나 왜국보다 더 발달된 선박과 항해술을 지녔을 수·당도 바다를 건너 한반도로 오는 작전 때에는 선박 파손과 병사의 익사라는 거대한 손실을 왕왕 입을 정도로 바다에서의 항해는 언제나 예측불허였다.¹⁵⁶⁾ 따라서 풍장 일행은 더욱 늦은 12월이 되어야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¹⁵⁷⁾

(661) 이 해에……또 일본이 고려군(高麗軍) 장수 등을 구원하기 위해 백제(百濟) 가파리빈(加巴利濱)에 정박하여 불을 피웠다. 재가 변해 구멍이 되어 명적(鳴鑼) 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이 “고려와 백제가 끝내 망할 징조인가”라고 말하였다.『일본서기』 27, 천지 즉위 전)

『일본서기』에는 661년 9월의 부여풍 출발 기록에 이어 12월에 고구려와 당 사이의 평양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위의 기록을 적었다. 이것은 “이 해(是歲)”가 12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적은 것을 뜻한다.

종래 위의 기록은 ‘고구려 구원군(救高麗軍)’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156) 胡戟, 2000, 『中國水軍과 白江口 戰鬪』,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54쪽.

157) 김병남, 2013,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정치적 변동』,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쪽.

인정하여 왜국과 고구려 사이의 정보 교류와 군사적 연계 가능성에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⁵⁸⁾ 이 시기의 『일본서기』에는 왜국의 군대 파견이 백제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662) 이 달에 당인(唐人)과 신라인(新羅人)이 고려(高麗)를 쳤다. 고려가 국가(國家)에게 구원을 요청하니 장군을 보내 소류성(疏疏城)을 점거하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당인들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서쪽 보루를 빼앗을 수 없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3월)

(663) 여름 5월 계축삭에 이누카미노미코(犬上君)[이름이 빠졌다]가 달려가 병사(兵事)의 일을 고려(高麗)에게 알리고 돌아왔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위의 기록들은 왜국이 ‘고구려를 구하러 갔다’거나 ‘고구려가 구원을 요청하여 장수를 보냈다’거나 ‘군사에 관한 일을 고구려와 상의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신뢰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와 왜국 사이에 군사적 연합이 추진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일본서기』 기록들을 자세히 음미할 때 드는 의문은 만일 고구려에 대한 구원군이었다면 왜 종착점이 하필 가파리 해변이나 소류성에서 끝나는가 하는 점이다. 661년에 고구려를 구원하고자 온 왜군이 도착한 곳은 가파리 해안이라 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전북 부안 개화(皆火)로 추정하는 곳이다.¹⁵⁹⁾ 또 662 3월에도 고구려의 구원 요청에 왜군이 응거한 곳은 소류성 즉, 주류성이었다. 그리고 663

158) 연민수, 2007,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34쪽.

159)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335쪽.

년 5월의 ‘병사를 아뢴다(告兵事)’는 것도 고구려 구원을 위한 군사 논의였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오히려 왜군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출병한 일(兵事)’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고려를 구원하는 군대(救高麗軍)’라는 표현은 고구려 보다는 백제와 연관하여 보는 것이 맞아 보인다. 당시 부여풍과 동반한 왜군은 백제 가파리 해안에 정박하였을 때는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계속된 항해로 지친 상태였다. 더군다나 물에 올라 진을 친 후에도 날카로운 화살소리 같은 한 겨울 해안가의 바람을 맞으며 견뎌야 했고, 잠시나마 휴식을 위해 피운 따뜻한 불기운마저도 곧바로 재가 될 정도로 어려웠다. 이처럼 백제 땅에 돌아왔음에도 당장 백제 구원군이 지속해야 할 조건은 매우 가혹하였다.

이처럼 부여풍 일행의 귀환은 무려 3개월, 대략 70일 이상이 소요된 험난한 여정이었다. “백제가 끝내 망할 징조인가(百濟終亡之徵乎)”라는 혹자의 탄식은,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선단의 바닷길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기에 원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체득한 넋두리였던 것이다.

부여풍의 백제 귀환에 대해 기존에는 661년 9월이나 662년 5월 중의 하나로 파악하였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관련 기록들을 조합하면 부여풍이 백제로 귀환하기 위해 출발한 것은 661년 9월이 맞지만 목적지인 백제 주류성 근방에 도착한 것은 만 2달 이상의 험난한 항해 끝인 661년 12월이었다.

3. 복신 주도 아래의 부흥백제국

부여풍은 귀환하려는 당시의 백제 땅은 부흥 세력, 당, 신라가 함께 얽힌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지 않은 절반의 승리와 실패를 반복하는 불안한 전쟁터였다. 공교롭게도 부여풍 일행과 5천 군대가 왜국을 출발한 9월 말에 백제 땅에서는 신라와 부흥군의 향방을 좌우할 웅산성·우술성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부흥 세력 중심부의 정치적 변동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복신에게는 661년 9월의 상황 전개가 백제 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복신과 세력에 의한 도침 제거라는 정치적 변동이 야기되었다. 부여풍이 간신히 가파리 해변에 정착한 12월보다 앞서 부흥 세력 내에서는 복신의 정권 장악이 발생했다. 백제 땅에 발을 디딘 부여풍과 일행, 나아가 파견 왜군 관료 및 장수들에게는 당황스러운 현상이었다.

이제 부여풍에게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 부여풍의 귀환 요청은 복신과 도침 뿐만 아니라 국가 재건에 참여한 세력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존재 가치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것은 도침과 복신이 부흥 세력을 사실상 양분한 상황에서도 양자 조정과 부흥전쟁의 동요 방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의 여지가 충분하였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귀환이 늦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백제의 정치적 변동은 ‘본향(本郷)’에 돌아온 부여풍에게 입지 보장 토대를 사라지게 하였다. 부흥 세력은 복신 주도의 체제가 출발한 상태였다. 처음 귀환 요청 시기(660.10)와는 달라진

환경은 부여풍에게 새로운 입장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다.

부여풍의 귀환을 적극 요청한 복신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제 부여풍이란 존재는 권력 행사와 국정 운영에 걸림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661년 9월의 '부여풍이 입국할 때(豐璋入國之時)'에 영접하려 온 복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국정을 받들어 모두 위임하였다(奉國朝政 皆悉委焉)"는 기록은 '실권자가 형식상 군주를 맞이한 것'을 뜻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권력을 나눌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여전히 도침과 복신이 권력을 양분한 상태였다면 양자가 서로를 견제하거나 자신의 정책 추진에 협력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라도 갖지만 복신에게 집중된 권력 상태에서 국왕의 자리는 권력자의 의도를 자칫 방해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관계 역전은 부여풍의 귀환 이후 기록들을 통해 십사리 살펴볼 수 있다.

(662) 봄 정월 신묘삭 정사에 백제 좌평(佐平) 귀실복신(鬼室福信)에게 화살 10만개, 실 500근, 솜 1,000근, 포 1,000단, 무두질한 가죽 1,000장, 뽕씨 3,000곡을 주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662) 3월 경인삭 계사에 백제왕(百濟王)에게 포 300단을 주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만약 부여풍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위의 1월 기록에 나오는 내용은 복신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왕이라 표현된 부여풍에게는 3월에 가서

야 포 300단만이 주어졌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도 부여풍의 위상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백제에 지원한 전쟁 자금이 복신 수중에 들어갔다. 이 물자를 부여풍이 귀환하면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별도 왜국의 지원인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월의 물자가 복신에게 귀속된 것은 확인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 물자가 만일 시기상으로 부여풍 귀환과 함께 선단에 실려 온 것이라면 더욱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과도한 의미 부여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데에는 부여풍의 향후 위상을 고려할 때 부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부여풍의 최종 귀환 시점(661.12)은 복신이 도침을 제거하고 정국을 주도하던 이후였다. 그런 와중인 이듬해 1월에 왜국에서 보낸 전쟁 물자마저도 부여풍은 빼앗긴 것이다. 권력 유지 자금이 중요성은 동서고금이 불문이다. 더욱이 백제의 당시 상황은 전시로 물자의 소비가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물자는 부여풍의 활동 자금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나 귀환한 백제 땅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에 애초 구상한 계획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662년 1월에 물자가 복신의 차지가 된 것, 두 달 후인 3월에 부여풍에게는 300단의 포만 주어진 것의 사료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부여풍과 복신의 관계가 급속히 역전되어간 상태를 느낄 수 있다.

한편, 662년 3월 기록에 부여풍이랑 인명 대신에 ‘백제왕’이라 표현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양자 사이의 위상에 대한 절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복신 측과 부여풍 측의 합의로 부

여풍을 명목상의 왕으로서 추대하는 대신에 복신의 실제적 국정 운영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구당서』에 “부여풍은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라는 표현은 결국 백제의 이러한 상황을타국도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662년 5월에 이르러 부여풍은 정식 ‘위를 이은(繼其位)’ 것이다. 계승 의식은 국가 재건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그동안의 피와 땀 그리고 노고에 대한 결실에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흥전쟁과 관련하여 즉위식에 참여한 백제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달랐다. 왕위 계승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주류성에 도착하였음에도 반쪽짜리를 간신히 넘겨받은 부여풍과 측근에게는 짙은 회한의 눈물이었고, 부흥전쟁 초기부터 봉기하여 나·당군의 압박을 물리치며 국가 재건과 정국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복신 무리에게는 환희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4. 나·당의 반격과 백제국의 위기

662년 5월에 부흥 세력은 부여풍의 왕위 계승을 통해 백제국의 부흥을 선포하였다. 이후 백제국은 정국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복신 세력의 능력에 따라 달리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 국가 수립 후의 복신 정권은 내부 체제를 다지기도 전에 외부의 충격으로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662) 가을 7월 …… (유)인원·(유)인궤가 방비가 없음을 알고 갑자기 출격(出擊)하여 지라성(支羅城) 및 윤성(尹城), 대산책(大山)·사정책(沙井柵)을 빼앗았다. 죽이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현성(眞峴城)이 험준한 요충지라 병사를 더해 지켰다. (유)인궤가 그들의 방비가 해이해진 것을 엿보고는 신라병을 이끌고 밤에 성 아래에 다가가 풀을 잡고 기어서 올라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였다. 드디어 신라의 군량 수송로가 통하였다.〔『자치통감』 200, 「당기」 16, 용삭 2년〕

위의 기록처럼 풍왕 즉위 2개월 만인 662년 7월에 나·당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당군은 주둔지인 웅진(공주) 동쪽의 지라성(대전 대덕구 비래동 질현성), 윤성, 대산책, 사정책(대전 중구 사정동 사정성) 등을 공격하였다. 이곳은 일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호 연계된 형태를 이루었던 것 같다. 그리고 “죽이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殺獲甚衆)”는 것으로 보아 백제군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듯 하나 당군의 공격에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다. 이것은 백제국 성립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투쟁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침략자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이런 자신을 보호해줄 국가의 재수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상황에서 다시 권력을 위한 암투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 향방을 가리기 위한 긴장과 불안 그리고 허탈감 등이 사방을 뒤덮은 상황이다. 백제국 상층부에서 감지되는 권력 투쟁은 알게 모르게 부흥전쟁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부정적인 영향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전선의 긴장 이완에 따른 방어 소홀을 불러와 웅진 동쪽의 주요 지역들이 나·당군에게 타격을 받게 되었다.

백제는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병력을 진현성(대전 서구 봉곡동 흑석동산성)으로 집결시켰다. 지형학적으로 진현성은 오늘날 대전에서 연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신라와 당 주둔군 사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하는 곳이었다. 중요한 성들의 위치가 대부분 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높고 험해서 지키기에도 쉬운 곳이었지만 백제군은 어둠을 틈타 나·당군이 성 밑까지 접근하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날이 밝을 무렵의 공격에 함락당하고 말았다.

『구당서』에는 성이 함락당하고 백제군 “800명이 참수되었다(斬首八百級)”고 한 것을 보면, 주둔 병력은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요충지인 진현성을 복신 등은 지켜내지 못함으로서 신라와 당 주둔군 사이를 차단하던 보급이 재개되는 등 주둔군 축출에 필요한 조치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662) (유)인원이 군사를 더해 줄 것을 주청(奏請)하자 조서로 치주(淄州)·청주(靑州)·내주(萊州)·해주(海州)의 병사 7천인을 징발하고, 좌위위장군 손인사(孫仁師)에게 무리를 통솔하여 바다를 건너 웅진으로 보내 (유)인원의 무리를 증원시켰다.(『구당서』 199 상, 「열전」 149,동이 백제)

연이은 승전으로 고무된 당 주둔군 수뇌부는 병사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주둔군의 완전 철수까지 명령했던 당 정부도 방침을 변경해서 산둥(山東) 지역에서 징발한 7천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라성, 진현성 등 함락으로 타격을 크게 입은 백제는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해 내사지성을 근거로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662) 8월에 백제 잔적(殘賊)이 내사지성(內斯只城)에 주둔하며 나쁜 짓을 저지르므로 흠순(欽純) 등 19장군을 파견하여 쳐 깨뜨리게 했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위의 기록은 중국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당시 당 주둔군이 관계되지 않은 백제와 신라의 전투로 추정되는데, 신라의 관점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作惡)”고 한 것을 보면 내사지성의 백제군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음을 추측케 한다.

내사지성(대전 서구 월평동)도 대전-공주 간 요충지 중의 하나로, 신라는 김흠순 등 ‘19장군(十九將軍)’을 동원하여 공격하였다. 이 신라 장군의 숫자는 661년 3~4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 동원된 11명의 장군보다 많다. 이는 신라의 공격이 대규모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바이기에 내사지성 주둔 백제 병력의 규모도 이에 대응하는 규모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662년 7월에 백제 거점인 지라성·윤성·대산책·사정책 및 진현성 등이 나·당군에 의해 함락된 상황에서 다시 8월에 또 다른 거점인 내사지성마저 신라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빼앗김으로써 부흥백제국은 금강 이동에 존재하던 대부분의 전략 거점을 상실한 꼴이 되었다. 이것은 백제 지역 중 오늘날의 충남권역이 거의 당군과 신라군에게 빼앗겼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5. 주류성은 방어하고 싸울 장소

662년 7월과 8월 사이 나·당군의 공세와 백제군의 패퇴는 복신 정권의 위상에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인간이란 동물은 언제나 승리를 갈망한다. 그런 무리에 둘러싸인 지도자, 특히 치세를 시작한 권력자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승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징조라 받아들이고, 비록 어려움이 닥쳐도 따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처음부터 비틀거리면 따르는 무리도 의기소침해지기에 그 후의 통치는 몇 배나 어려워진다.

‘일국대장(一國大將)’을 자부하는 도침을 제거하고 시작된 복신 정권은 순조로웠다. 더구나 부여풍마저도 굴복시켜 형식적인 왕좌에 머

[그림 2] 개암사에서 바라본 주류성(울금바위) 전경 © 허철희



물게 할 정도였다. 또 662년 3월에는 부여풍을 따라온 왜군을 소류성 [주류성]에 투입하자 “당인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서쪽 보루를 빼앗을 수 없었다(唐人不得略其南堺 新羅不獲輸其西壘)”고 할 만큼 전선도 안정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복신이 주도하는 백제국은 전시 상태였다. 전쟁이란 주도권을 먼저 잡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면 이후 진행될 싸움은 유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주도권을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성과가 없고, 안 좋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일거에 반전시키고자 모든 힘을 투여하여 승부를 보고자 하여도 그것마저 결정적인 승리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복신 정권은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다. 따라서 유리한 정국 반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 결과가 천도라는 정책의 제시이지 않을까 한다.

(662) 겨울 12월 병술삭에 백제왕 풍장(豐璋)과 그 신하 좌평 복신(福信) 등은 사이노무라치(狹井連)[이름이 빠졌다]·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와 의논하여 “이 주유(州柔)라는 곳은 농지와 멀리 떨어졌고, 토지는 메마른 자갈땅이라 농상(農桑)을 할 땅이 아니고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여기에 오래 머문다면 백성들이 굶주릴 것이니 이제 피성(避城)으로 옮겨야 한다. 피성은 서북으로 떠를 두르듯 고련단경(古連旦涇)이 흐르고 동남으로는 깊은 늪과 커다란 제방이 막고 있다. 주위가 밭으로 둘러져 있고 도랑을 파서 빗물을 모을 수 있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니 삼한(三韓)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이다. 의식(衣食)의 근원이니 천지 사이에 깊이 굽어 들어간 곳이다. 비록 저지(低地)이지만 어찌 옮기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에치노다쿠쓰가 홀로 나아가 “피성과 적이 있는 곳과의 거리는 하룻밤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매우 가까우니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

입니다. 무릇 굽주림은 나중의 일이고 존망이 먼저입니다. 지금 적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하는 것은 주유가 산이 험한 곳에 있어 모두 방어 시설이 되며, 산이 높고 계곡이 좁아 지키기 쉽고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지에 있었다면 어찌 견고히 지킬 수 있으며 동요 없이 지금까지 이르렀겠습니까”라고 간언하였다. 드디어 간언을 듣지 않고 피성으로 도읍하였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위의 기록은 622년 7월의 지라성, 진현성 등과 662년 8월의 내사지성 등을 빼앗긴 후 4개월 만에 백제 국정 회의에서 공식적인 천도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류성에 “오래 머물면 백성이 굽주릴 것(此焉久處 民可飢饉)”이란 논리였다. 그런데 부흥전쟁 초기 주류성이 주목된 이유는 결국 성의 크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현재 조사된 주류성(부안 우금산성)의 둘레는 3,960m로 임존성보다 크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 서부의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고대 성곽의 현황을 보면, 만경강 유역에 36개, 동진강 유역에 31개가 조사되었다. 우선 만경강 유역은 완주군 고산면과 화산면 일대,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천 일대, 전주시 일대, 익산 미륵산 일대, 군산 임피읍성 일대, 옥구읍성 일대, 만경읍성, 사창산성 등 크게 8개 권역에 집중 분포한다. 그 중에서 초축(初築) 시기가 백제로 추정되는 것을 나열하면 완주 지역의 삼례토성(590m), 배매산성(526m), 구역리산성(983m), 상삼리산성(986m), 화심리산성(341m), 소향리산성(347m), 읍내리산성(762m), 이전리산성(3670m), 전주 지역의 동고산성(1712m), 서고산성(764m), 원당리산성(595m), 익산 지역의 선인봉산성(213m), 천호산성(669m), 용화산성 주성(435m), 용화산성 부성

(189m), 금마 도토성(369m), 익산토성(690m), 학현산성(700m), 김제 지역의 사창산성(540m) 등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만경강과 소양천이 합류하는 충적지 주변 일대에서 처음으로 백제 성곽이 축성되었고, 사비 도읍기 무렵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지배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다음 동진강 유역은 김제시의 성산, 김제 벽골제 남쪽(명금산성, 백산리산성), 김제 금구면과 금산면 일원(월전리산성·금구산성·금산사성지), 부안군과 계화면 일원(상소산성, 역리산성, 염창산성), 부안군 주산면 일원(우금산성, 사산리산성, 소산리산성, 부곡리산성), 줄포면 일원(영전리토성, 유천리토성, 장동리산성), 정읍 고부면과 영월면 일원(고사부리성, 은선리토성, 두승산성, 우덕리산성), 정읍시 일원(초

[그림 3] 주류성 전경 © 허철희



산성, 죽림동산성), 정읍 칠보면 일원(산성리산성, 평사리산성, 행단산성), 고창군 흥덕면의 흥덕읍성, 아산면 일원(서산산성, 예지리토성), 고창 상하면의 장사산성 등 크게 12개의 권역에 분포한다. 이 중에서 백제시대에 초축된 성곽은 김제 지역의 성산성(559m), 정읍 지역의 고사부리성(1054m), 은선리토성(680m), 고창 지역의 예지리토성(361m), 장사산성(703m), 서산산성(730m) 등인데 동진강 유역도 만경강 유역과 마찬가지로 마을이나 교통로 또는 평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축성되었다.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고대 성곽은 최대 둘레가 1,000m 내외이며, 성곽 주변의 평지나 교통로로부터 20분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입지한다. 반면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성곽의 규모도 커지고 험준한 산봉을 배경으로 축성된 산성이 등장한다.¹⁶⁰⁾ 이러한 고대 성곽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비록 백제 시기의 유물이 미흡하지만 주류성은 대단한 규모의 산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곽의 크기도 주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벽에서 산성 안쪽을 보면 모두 비탈과 계곡으로 마을은 고사하고 사찰 하나 세울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이 성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없고, 전이나 비상시에만 이용할 곳이었다. 그래서 기록에도 주류성의 장점은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좁으니 지키기 쉽고 치기 어렵다(山峻高而谿隘 守易而攻難之)”고 표현된 것이다.

현재의 주류성에서 내려다보면 경지정리로 가꾸어진 들판을 보게 되어 “농지와 멀리 떨어졌고 토지는 메마른 자갈땅이다(遠隔田畝 土

160) 박영민, 2023, 「만경강·동진강유역 고대 성곽의 변천」, 『전북사학』 68, 전북사학회, 65쪽.

地礪确)”는 기술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오랜 기간 간척으로 만들어진 평야이다. 일제시기 1/5만의 지도에는 들판의 절반이 경작지와 황무지로 섞여 있다. 또 바닷가 쪽에 길게 표시된 인공 독을 제거하면 고대부터 거의 바다와 갯벌 그리고 메마른 자갈밭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당시에 주류성은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고 방어하고 싸울 장소(非農桑之地 是拒戰之場)”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점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 피성은 ‘의식(衣食)’을 해결할 곳

662년 12월에 백제국은 근거지인 주류성에서 피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같은 해 5월에 백제국 재건을 선포한 지 7개월 만이었다. 피성이란 지명은 이렇게 부흥전쟁 시기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백제국의 천도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성’이란 지명은 『일본서기』에만 나오므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삼국사기』 뿐만 아니라 관련 지명에 ‘피성’을 찾을 수 없기에 이 기록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성이란 지명의 의미와 위치에 대해 자세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고사주(古四州)는 원래 고사부리(古沙夫里)로 5개 현이다. 원래 고사부촌(古沙夫村)이었던 평왜현(平倭縣), 원래 대시산(大尸山)이었던 대산현(帶山縣), 원래 벽골(辟骨)이었던 벽성현(辟城縣), 원래 상두(上杜)였던 좌찬현(佐贊縣), 원래 두나지(豆奈只)였던 순모현(淳牟縣)이다.(『삼국사기』 권37, 「잡지」 제6, 지

리 4. 당령백제)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백제의 항복을 받은 후에 당이 웅진도독부 7주의 지방 체제를 구상하였음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고사주의 5 현에 벽골(벽성현)이 나온다. 고사주는 바로 백제의 중방인 고사성(전북 정읍시 고부면) 일대를 가리키고 고사부촌(평왜현)은 고사주의 치소이다. 대시산(대산현)은 신라 9주(州) 중 전주 대산군(大山郡)의 백제 때 이름이 대시산이라 하였고 고려 때 태산군(泰山郡), 조선 초에 인의현(仁義縣)과 합쳐져 태인현이 되는 오늘날의 정읍 태인면이다. 상두(좌찬현)는 전주 고부군 상질현(尙質縣)의 백제 때 이름인 상칠현(上柒縣)의 다른 표현으로, 고려 후기에 장덕(章德)·흥덕(興德)이라 불린 오늘날의 고창 흥덕이다. 그리고 두나지(순모현)도 전주 김제군 만경현의 백제 때 이름인 두내산현(豆乃山縣)을 달리 쓴 것이다.¹⁶¹⁾ 이처럼 고사주(古四州)의 고사부촌(평왜현), 대시산(대산현), 상두(좌찬현), 두나지(순모현)가 오늘날의 정읍, 김제(만경), 고창 등인 바 벽골(벽성현)도 이들과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제군(金堤郡)은 본래 백제 벽골군(碧骨郡)이다. 『삼국사기』 권36, 「잡지」 제 5, 지리3, 전주)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벽골’을 김제군이라 하였다. 다만 ‘벽성’과 ‘피성’이 같은 곳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벽성현의 ‘벽

161) 『삼국유사』 4, 「의해」 5, 진표에는 ‘도나산촌(都那山村)’으로 나온다.

(辟)’이란 글자에는 음(音)이 ‘벽’과 함께 ‘피(避)’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음을 따를 경우 ‘벽성(辟城)’은 ‘피성(避城)’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일본서기』에서는 ‘벽’을 ‘피’로 읽어 벽성을 피성으로 표기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¹⁶²⁾

한편, 이처럼 피성을 벽성 즉 벽골(김제)과 같은 곳으로 본다면¹⁶³⁾, 지역적 연원이나 기반은 단순하지가 않다. 오늘날의 경기도, 충청도 및 전라도 일대에 해당하는 마한 지역에 54개의 정치체 중의 하나인 ‘벽비리(辟卑離)’를 김제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¹⁶⁴⁾ 이는 김제 지역이 이미 백제 건국 이전부터 마한의 일원으로 성장·활동하였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 벽비리국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있었는지는 다른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마한의 일원으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한 채 존속하였다고 추정된다.

이후 피성(김제)과 관련된 것은 익히 알려진 벽골제 축조(330) 기록이다.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369년에 근초고왕·근구수 부자가 이끄는 군대와 백제 장군 목라근자 등의 원정군이 함께 만난 곳을 ‘의류촌’이라 하였는데 당시 백제왕은 ‘벽지산(辟支山)’과 ‘고사산(古沙山)’에 올라 승리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였다. 이 의류촌(意流村)이 ‘주류수지’인 바 이는 주류성이고, 벽지산과 고사산은 각각 김제와 정읍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삼국지』·『삼국사기』·『삼국유사』·『일본서기』 등의 여러 기록 속에 나타나는 벽비리, 벽골지, 벽중, 벽지산 등이 모두 벽성(벽골)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162) 노중국, 2003, 앞의 책, 186쪽.

163)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2008, 『백제사자료역주집-일본편』, 185쪽 ; 연민수 외, 2013, 앞의 책, 337쪽 ; 김주성, 2018, 「벽골제의 기능, 『백제문화』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18쪽.

164)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412-413쪽.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이어진다.

(495) 건무 2년에……이제 임시로 사법명(沙法名)을 행(行) 정로장군(征虜將軍) 매라왕(邁羅王)으로, 찬수류(贊首流)를 행 안국장군(安國將軍) 벽중왕(辟中王)으로 삼고, 해례곤(解禮昆)을 행 무위장군(武威將軍) 불중후(弗中侯)로 삼고, 목간나(木干那)는 전의 군공(軍功)이 있는 데다 또 성문과 신박을 쳐서 빼앗았으므로 행 광위장군(廣威將軍) 면중후(面中侯)로 삼았다……(『남제서』 58, 「열전」 39, 동남이, 동이, 백제)

위의 동성왕 17년(495) 기록은 전승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매라, 벽중, 불중, 면중 지역에 왕·후를 책봉·파견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모두 전복과 관계되는 곳으로, 도성인 사비와 일정 거리에 있는 주요 거점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또한 그 지역의 물산 또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관리를 시도한 것을 의미한다.¹⁶⁵⁾ 그런데 이 지명 중의 벽중이 『일본서기』 신공 49년의 벽중과 동일하다면, 만경강 이남과 원평천 유역의 김제인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모악산 기슭인 금산면 일원의 장흥리에서 사비 시기 능산리식 석실분 10여 기와 금산면 금성리와 공덕면 공덕리 등에서 사비기의 황혈식 석실분이 확인되는 것을 백제 편입 이후 유력 세력에 의한 고분군 형성을 의미한다고 보면¹⁶⁶⁾,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왕·후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던 이유와 맥락이 닿는다. 그러므로 이후 김제는 ‘꽃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삼한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華實之毛 則三韓之上腴焉)’이라는 표현처럼 부흥전쟁기에는 백제의 ‘의식

165) 박운우, 2021, 「백제 사씨 세력의 부상과 세력 기반」 『백제학보』 35, 백제학회, 18-19쪽.

166) 김낙중,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8쪽.

의 근원(衣食之源) 즉, 경제적 문제를 해결¹⁶⁷⁾해주는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성(김제) 천도가 갖는 의미는 부흥전쟁기 백제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의미한다.

7. 피성 천도의 주도 세력

피성 천도를 주도한 것은 누구일까? 나라의 도읍 이전에는 그에 수반되는 공식적인 사유에 못지않게 내재된 각종의 요구와 고려가 교차 작용을 한다. 천도로 얻는 이익이 무엇이며, 누가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등등의 문제로 이해 당사자들이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피성 천도에도 이러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을 텐데, 종래에는 천도의 주체를 풍왕으로 파악하였다. 실제 662년 12월의 기록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풍왕의 주도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를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¹⁶⁸⁾ 또 복신이 근거지인 주류성에서 피성으로 천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풍왕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백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고, 설혹 피성으로 옮기더라도 그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자신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¹⁶⁹⁾

어찌 보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럴 경우 가장 큰 이유인 풍왕과 내부의 의견 불일치를 알 수 없게 된다. 천도에 반대한 에치노다

167) 김병남, 2019, 「부흥백제국의 피성 천도 배경과 결과」, 『백제학보』 27, 백제학회, 17-18쪽.

168) 정효운, 1991, 「7세기대의 한일관계의 연구(하) -백강구전예의 왜군파견 동기를 중심으로」, 『고고역사학지』 7, 동아대학교 박물관, 215쪽.

169) 노종국, 2003, 앞의 책, 252쪽.

쿠쓰[朴市田來津]는 왜국에서 함께 온 인물이다. 달리 말해 친왕파이다. 풍왕의 천도 주장에 대척점에 있는 권력자인 복신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사전 조율하였다고 봐야 할 왕의 근신(近臣)은 극력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오히려 에치노다쿠쓰의 발언에 주목한다면, 처음부터 풍왕은 천도에 반대한 것이 타당하다. 왜일까? 답은 그의 반대 논리 속에 있다. 풍왕은 비록 실권은 없더라도 백제국을 대표한다. 그는 왜국에서 간난고초 끝에 백제로 돌아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런데 안전한 주류성이 아니라 적과 가까운 피성으로 옮긴다면 그와 추종 세력은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들을 지원할 왜군은 아직 도착되지 않았고, 그들이 데려온 군사 5천도 급박한 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위할 무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천도 후 ‘예기치 못한 일(若有不虞)’이 생기거나 존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굴욕보다도 더 큰 위협이 초래될 수 있었다. 현재의 굴욕은 시간 경과와 함께 살아만 있다면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한 것이다.

기록은 풍왕이 주도한 것처럼 서술되었지만 소위 어전회의란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료로 남은 내용이 모두 왕의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당시는 복신이 권력을 독점한 상황이었기에 천도를 강행할 사람도 복신 뿐이다. 따라서 피성 천도 또한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게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순리적이다.¹⁷⁰⁾ 그것은 앞선 7~8월에 이어진 나·당군의 반격으로 실추된 복신의 정국 대응에 대

170) 김병남, 2014, 「백제부흥전쟁기 복신의 활동과 좌절」, 『한국인물사연구』 21, 한국인물사연구회, 280-281쪽.

한 반전 노림수였다.

결국 부흥백제국의 ‘피성 천도’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였다.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외세의 공격으로 엄습하는 불안감을 해소하여 백제국 내부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할 조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3년 째 지속되는 전쟁 상태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즉 식량 수급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도 함께 작용하였다. 따라서 662년 12월에 복신 세력은 피성 천도를 공식화하였다. 이에 대해 풍왕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정국을 장악한 복신의 의도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 천도 실패와 풍왕의 정변

피성 천도는 백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어울려 진행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장기화되는 외세 축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는 백제국의 실제적인 권력을 쥔 복신의 곤란한 처지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663) 2월에 흡순·천준이 병사를 이끌고 백제 거열성(居列城)을 공격해 빼앗고, 700여 명을 참수(斬首)하였다. 또 거물성(居勿城)·사평성(沙平城)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또 덕안성(德安城)을 공격하여 1,070명을 참수하였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663) 봄 2월……신라인이 백제 남반사주(南畔四州)를 불태우고, 아울러 안덕(安德) 등의 요지(要地)를 취하였다. 이에 피성(避城)은 적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머물기가 어려운 형세가 되어 곧 주유(州柔)로 거처를 돌아왔다. 다쿠쓰

〔田來津〕가 헤아린 바와 같았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위의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은 내용상 동일한 사건으로 추정되는데, 시기상 1년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부흥전쟁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663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언급된 거열성(경남 거창)·거물성(전북 남원)¹⁷¹⁾·사평성(전북 임실)¹⁷²⁾은 661년 4월의 두량윤·고사비성 전투에서 부흥군이 신라군을 물리치자 호응한 ‘남방제성(南方諸城)’의 일부이다. 특히 거열성은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 수도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곧장 신라 중심부를 겨냥할 요지였고, 신라 입장에서도 백제 지역인 전주와 무주(광주)로 뻗어나갈 시작점이었다. 통일신라기 간선교통로 중 경주에서 시작되는 동서 관통로는 북과 남에 두 노선인데 거창(거열성)에서 합쳐졌다가 다시 하나는 진안을 거쳐 전주 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남원(거사물)–순창을 거쳐 무주(광주) 쪽으로 이어진다.¹⁷³⁾ 그러므로 663년 2월에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 당한 백제 ‘남반사주(南畔四州)’ 즉, 거열성·거물성·사평성 등은 위치로 보면 거창–남원–임실로 이어지는 부흥 백제국의 남방 주요 거점이 일시에 침탈당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남반사주는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할 왜국 본대 2만 7천명의 필수적인 중간 기착지의 배후지로 파악된다.¹⁷⁴⁾

또 위의 기록에는 백제가 신라군에 덕안성(논산 연무)까지 빼앗겼

171) 백승총, 2000, 『6세기 전반기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68쪽; 곽장근, 2013, 『임나 사천과 기문의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19쪽.

172) 김태식, 1983, 『가야연맹사』, 일조각, 123쪽; 박지현, 2013,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5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96쪽.

173)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왕경과 주차-소경 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169-173쪽.

174) 서영교, 2015, 『백강전투와 신라』, 『역사학보』 226, 역사학회, 56쪽.

다고 나오는데 이곳은 백제 5방 중의 하나인 동방성으로 당의 덕안도 독부가 설치되었던 군사·행정의 '요지(要地)'였다. 덕안성의 함락은 백제국의 새로운 수도인 피성(김제)의 방어력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밖에 없었다. 비록 피성의 주위에 금마(익산), 고사(정읍 고부) 등이 남아 있었지만 이 지역들은 661년 2~4월 사이에 신라의 침탈을 당해 본 곳이었다. 즉, 신라군도 작전 지역으로 경험한 바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신라군의 진군을 덕안성에서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백제군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빼앗김으로써 피성도 신라군의 공격에 쉽사리 노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백제의 조야를 감쌌을 것이다. 그 충격은 663년 2월에 결국 주류성으로 회귀하는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또다시 백제의 위기이자 복신의 정국 운영 실패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피성 천도의 실패는 정치적 후폭풍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굳건하던 복신의 입지에는 균열을 주고, 유명처럼 숨죽이던 풍왕은 서서히 수면 위로 부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서기』에는 이미 662년 말부터 “백제를 구하기 위해 무기를 수리하고 선박을 갖추며 군량을 비축하는(爲救百濟 修繕兵甲 備具船舶 儲設軍糧)” 등의 조직적인 지원 태세가 이뤄졌고, 다시 피성 천도(662.12)가 실패로 끝나고 주류성으로 복귀(663.2)한 지 한 달 후에 “신라를 치기 위한(打新羅)” 백제 구원군 27,000명이 파견되었다.

이에 따라 복신 대신에 풍왕이 직접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음에도 나·당군과의 싸움에서 밀리자 풍왕이 정국 운영에 개입할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점

차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렸다.

(663) 여름 5월 계축삭에 이누카미노키미(犬上君)[이름이 빠졌다]가 달려가 병사(兵事)의 일을 고려(高麗)에게 알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규해(亂解)를 석성(石城)에서 만났다. 규해는 복신(福信)의 죄를 말하였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이러한 분위기는 위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부여풍 즉, 풍왕으로 추정되는 규해가 직접 왕궁인 주류성(부안)이 아니라 충남 부여 석성면으로 추정되는 지역까지 가서 왜국의 사신을 만났던 것이다.

어쨌든 당시 왜국 사신의 임무는 고구려와 ‘군사적 문제(兵事)’를 협

[그림 4] 주류성 제1굴실(복신굴) 전경 © 허철희



의하는 것이었다. 그런 왜국 사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풍왕에게 고구려와 왜 사이의 논의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군사적인 사안은 복신이 관장할 문제였다. 그런데도 풍왕이 직접 최전선에 해당하는 석성까지 가서 만남을 가졌던 것이다. 이것은 663년 2월에 남반4주와 덕안성의 함락, 그리고 피성에서 주류성으로의 귀환 등 일련의 백제국 상황이 강력한 복신의 정국 장악력을 훼손시켜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던 풍왕에게 정치적 언행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회견 중에 풍왕이 “복신의 죄(福信之罪)”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풍왕 개인의 언사라고 치부하기가 어렵다. ‘복신의 죄’라는 것의 범주는 도침을 살해하고 그의 군사를 임의대로 합병한 것, 불필요한 천도 단행을 밀어붙인 것, 왜국 및 고구려에 대한 원조 요청을 반대한 것 등이 거론된다.¹⁷⁵⁾ 그렇다면 공식 석상의 의사 표현은 풍왕 세력의 정제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으며, 그런 행동 자체가 동조 세력의 확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백제국내의 정치적 변화는 복신 세력에서도 감지할 수 부분이다. 따라서 민감한 상황 변화를 일거에 역전시킬 방안을 또 다시 모색하였을 것이다. 복신측은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반의 마음은 즉각적이었을 수도 있다. 『구당서』 백제전에는 풍왕을 제거하기 위해 병력을 움직이는 대신에 “복신이 병든 체 굴실(窟室)에 누워 부여풍이 문병을 오는 것을 기다리다 습격하여 죽이려고(福信稱疾 臥於窟室 將候扶餘豐問疾 謀襲殺之)”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175) 심정보, 2007, 앞의 논문, 200쪽.

“부여풍이 알고 심복들을 거느리고 복신을 급습하여 죽였다.(豊知之帥親信掩殺福信)”고 하였고, 『일본서기』에는 “참수하고 머리로 짓갈을 담았다(斬而醢首)”고 할 정도 가혹한 형벌을 내렸으니 바로 663년 6월의 일이었다.

부흥백제국은 662년 5월에 풍왕이 즉위하면서 왜국의 구원군과 복신이 이끄는 부흥군의 연합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형식상 이 연합의 최고 책임자는 백제왕 부여풍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풍왕은 왜국에서 지나긴 인질 생활을 겪으면서 왜군에 더욱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신 등의 부흥군에 대한 지휘 한계에 따른 제·왜 연합 세력은 항시적인 불화의 가능성이 내포되었다. 또 663년 5월 기록을 보면 부흥 세력과 고구려 사이에 상호 연계 고리가 형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어 풍왕이 부흥군보다는 여·왜군을 동원하여 나·당군을 상대하려 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¹⁷⁶⁾ 이처럼 풍왕과 복신의 불화 원인은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배경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주류성에서 피성으로 천도하는 과정에 대한 의견의 차이와 이후 벌어진 나·당군의 대응 실패가 개재되었지만 부흥군과 도래 왜군의 연합이란 이질적인 구성이 백제국에 내재된 문제점이기도 했다.¹⁷⁷⁾

결국 661년 12월에 풍왕이 백제 땅에 도착한 후 발생한 내부적 권력 투쟁은 663년 6월에 친위정변으로 종말을 보게 되었다.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자의 천성은 항시 타국이나 타인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찌 보면 풍왕도 마찬

176) 이재석, 2013,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16-217쪽.

177) 송완범, 2007, 『백촌강싸움과 왜-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5, 한국고대사학회, 78쪽.

가지였다. 물론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면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할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흥백제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도권 다툼에 소비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한 가한 대내·외적 상황을 보장받지 못했다. 모든 사건에 양극의 요소가 함께 주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풍왕의 친위정변에 ‘플러스’적 요소는 왕으로써의 정통성과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였다는 자존감이겠지만 ‘마이너스’적으로는 북으로 당 주둔군, 동으로 신라군이란 이중 공세에 대항하기 바빴던 백제에게 이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9. 주류성은 어디인가?

백제국의 내분은 또다시 나·당 점령군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신라는 주류성을 공략할 계획을 세운다.

(663) (문무)왕은 유신(庾信) 등 28명[혹은 30명이라고도 한다.]의 장군(將軍)을 거느리고 (당군과) 함께 두릉[양(良)으로도 쓴다.]윤성(豆陵尹城), 주류성(周留城) 등을 공격하니 여러 성들이 모두 함락되었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663) 8월……무술(17일)에 적장(賊將)이 주유(州柔)에 이르러 왕성(王城)을 둘러쌌다. …… 9월 신해 그믐 정사(7일)에 백제(百濟) 주유성(州柔城)이 마침내 당(唐)에 항복하였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663) 7월 17일에 정벌에 나섰다. 웅진주(熊津州)에 지나며 진수(鎭守) 유인원

의 병사와 합세하여 8월 13일에 **두솔성(豆率城)**에 이르니 백제인(百濟人)과 왜인(倭人)이 나와 진을 쳤다. 아군이 힘써 싸워 크게 패배시키니 백제인과 왜인이 모두 항복하였다.(『삼국사기』 42, 「열전」 2, 김유신 중)

위의 기록들을 보면 663년 6월 이후 신라는 주류성을 공략하기로 결정하고, 7월에 문무왕이 김유신 등 28~30명의 고위 장군을 거느리고 친정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만한 숫자의 장군이 한꺼번에 출정한 예는 없었다. 신라는 이번이 부흥한 백제국을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여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던 것이다. 663년 8월 13일에 나·당군이 주류성(두솔성)으로 진격해 오자 제·왜군이 출진(出陣)하여 싸움을 벌였다. 4~5일간에 걸쳐 양군 사이에는 몇 차례의 공방이 있었으나 백제군은 승기를 잡지 못하고 패한 듯 하다. 그래서 제·왜군은 다시 주류성으로 들어갔고, 뒤따라온 나·당군은 8월 17일에 주류성을 포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8월 28일에 백강 해전에서 제·왜 수군이 대패하였고, 풍왕이 몇몇 배를 타고 고구려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9월 7일에 왕자 충승 등이 왜군과 함께 항복하면서 주류성은 함락되고 만다.

이처럼 위의 기록들에는 주류성이 백제국의 왕성(王城)이라고 표현되었다. 이는 660년 사비성의 함락이 백제의 멸망을 뜻하는 것처럼 주류성의 항복은 재건된 백제국의 종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성 자체가 부흥백제국의 시작과 끝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주류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기되었고, 그 위치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견해가 제기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부흥 백제국 수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명인 주류성

의 위치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부흥전쟁의 거점으로 나오는 ‘주류성(周留城)’ 관련 원문 기록은 아래와 같다.

[표 11] 주류성 관련 원사료

내용	출전
武王從子福信 嘗將兵 乃與浮屠道琛 據周留城叛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百濟僧道琛·舊將福信 率衆據周留城以叛	『구당서』, 백제전
璋從子福信 嘗將兵 乃與浮屠道琛 據周留城叛	『신당서』, 백제전
百濟僧道琛 故將福信 聚衆據周留城	『자치통감』, 용삭 원년

관련 기록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 『삼국사기』의 내용은 『신당서』 백제전 기록을 전재하였고, 『자치통감』의 내용은 『구당서』 백제전을 그대로 따른 것이 보인다. 다른 부분이라고 해 봐야 『삼국사기』와 『신당서』는 ‘무왕(武王)’을 ‘장(璋)’이라고 표현한 것뿐이고, 『구당서』와 『자치통감』 또한 뜻이 다른 글자를 취하거나 어조사를 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의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여러 기록이 백제 부흥전쟁의 거점을 주류성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백제의 여러 성에서 몰래 부흥을 도모할 때 우두머리는 두솔성을 거점으로 하였다(百濟諸城 潛圖興復 其渠帥據豆率城)”고 나타난다. 주류성과는 별개의 거점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솔성은 발음 자체가 주류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의 [표 11]과 『삼국사기』 무열왕 8년(661) 기록을 대조해 보면 동일한 사건의 서술임을 알 수 있어 두솔성이 결국 ‘주류성’의 다른 표

[그림 5] 우금암도 (강세황 작)



현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주류성에 대한 이칭이 여럿 등장한다. 우선 천지 원년(662) 12월과 천지 2년 8~9월 기록의 ‘주유(州柔)’는 음의 유사성으로 보아 ‘주유(류)성’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천지 원년 12월에 “주유는 농지(田畝)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도 척박하여 농사를 할 땅이 아니고 싸움을 막을 장소”라는 지리적 조건을 설명하였고, 천지 2년 9월에서는 주유성이 항복한 것에 대해 ‘백제의 이름이 끊겼다(百濟之名絕)’고 하여 부흥전쟁에서의 위치를 짐작해 볼 만한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천지 원년 3월 기록의 ‘소류성(疎留城)’과 제명 6년(660) 9월 기록의 ‘도도기류산(都都岐留山)’도 모두 주류성과 동일하게 본다.¹⁷⁸⁾

이와 함께 『일본서기』의 또 다른 기록인 신공 49년(369)에 근초고왕 부자와 백제 정벌군이 의류촌에서 회동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의류

178)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2008, 앞의 책, 178-184쪽 ; 연민수 외, 2013, 앞의 책, 309-336쪽.

촌이 달리는 ‘주류수지’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주유(州柔), ‘주류(州流)’가 모두 ‘주류(周留)’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¹⁷⁹⁾ 이럴 경우 주류성은 부흥전쟁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곳이 아니라 백제가 4세기 중엽 금강 이남의 만경강 및 동진강 일대의 마한 세력을 복속시키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부안 행안면 역리 옥여 분구묘의 축조 시기가 5세기 전반~중반으로 추정되고, 보안면 하입석리에서도 5세기 무렵 조성된 분구묘가 확인되면서 이 일원의 마한 기층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¹⁸⁰⁾ 따라서 주류수지가 바로 주류성의 기원이라면, 그 위치는 백제 왕이 올랐던 벽지산(벽중=碧骨縣=김제), 고사산(古四=古沙夫里=정읍 고부)과 연계된 주변 지역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지역이 대두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던 곳은 충남 서천 한산면의 견지산성이었다.¹⁸¹⁾ 그러나 한산의 견지산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는 백제 말기와 동떨어진 고려시대에 축성¹⁸²⁾된 것으로 밝혀졌다. 입지 조건 자체가 백제 산성과 차이를 보이고, 성 내에서 수습한 유물들의 대부분도 고려시대 일부와 대부분 조선시대 기와 조각인 점¹⁸³⁾은 부흥전쟁기 주류성으로서의 타당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179) 이도화, 2013, 『영산강 유역 마한제국의 추이와 백제』, 『백제문화』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20쪽.

180) 이문형, 2020, 『전북지역 후기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 전북연구원, 101-102쪽.

181) 이병도 역, 1983,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115쪽; 정효운, 1995, 『고대 한일 정치교섭사 연구』, 학연문화사, 185쪽;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84쪽.

182) 서천군-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한산 견지산성』, 82쪽.

183) 유원재, 2007, 『백제시대 서천지방의 견지산성』, 『공주교대논총』 44-2,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연구원, 15쪽.

[그림 6] 우금산성 전경 © 허철희



다음으로 세종시 일대에서 찾는 견해의 경우 일찍이 신채호가 현재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의 진의리 산성(옛 충남 연기의 원수산성)¹⁸⁴⁾을 주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의리 산성은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합류하는 합수 지점에 위치하여 산성은 험준하기는 하나 주변에 넓은 들판을 갖춘 평야 지대이므로 『일본서기』에 기록된 주류성의 입지와는 사뭇 다르다. 또 한때 주류성이라 주목된 전동면의 운주산성은 몇 차례의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실상은 드러나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수습된 토기 조각이나 기와 조각으로 백제 시대까지 소급할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성벽이 통일신라시대에 축조¹⁸⁵⁾된 성으로 판

184) 신채호, 1987, 『조선상고사』, 『단체신채호전집』 상, 형설출판사, 342쪽.

185) 서정석, 2004, 『웅진·사비시대 백제 석성의 현단계』, 『호서고고학』 10, 호서고고학회, 33쪽.

명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웅진(공주)의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6세기 전반에 신라의 영역이 된 청주¹⁸⁶⁾와 접경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운주산성은 백제 무왕 때인 63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백제가 신라나 고구려의 침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로 축성하였다는 선에서 의미를 부여할 뿐¹⁸⁷⁾이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홍주(洪州)를 “본래 백제의 주류성(本百濟周留城)”이라 서술한 것을 근거로 홍성 장곡면 일대의 학성산성(鶴城山城)과 장곡산성(長谷山城, 石城, 얼방성) 등을 주류성이라고 보기도 하지만¹⁸⁸⁾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 ‘사시량(沙尸良)’ 혹은 ‘사라(沙羅)’라 새겨진 명문 기와가 출토되어 백제의 사시량현(沙尸良縣)¹⁸⁹⁾ 또는 통일신라 신량현의 치소¹⁹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류성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임존성과의 관련성¹⁹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부여군 충화면(忠化面)의 주봉산성(周峰山城)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주류’의 훈(訓)이 ‘두루(turu)’, ‘돌(tor)’과 유사하여 충화면과 서천 마산면 경계의 옛 성터로 추정하였던 것이다.¹⁹²⁾ 하지만 음운학적으로 비슷하여 주봉산성이라 추정하는 것은 발상이 너무 일차적일 뿐더러 성내에서 ‘류(留)’로 읽힐 명문 기와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자체가 백제의 것인지 의심스럽다.¹⁹³⁾

186) 양기석, 1999,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381쪽.

187) 정운용, 2019, 「세종시 백제 운주산성의 축조와 운용」, 『선사와 고대』 59, 한국고대학회, 135쪽.

188) 박성홍, 1994, 『홍주주류성고』, 홍성군, 17쪽.

189) 상명여대박물관, 1998, 『홍성 석성산성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134-137쪽.

190) 서정석, 2008, 「홍주 석성산성에 대한 고찰」, 『백제문화』 3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71-74쪽.

191) 서정석, 2012, 「홍성지역 산성과 백제의 군현」, 『백제문화』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68쪽.

192) 輕部慈恩, 1971, 『百濟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149쪽.

193) 서정석, 2014, 「輕部慈恩의 백제 성곽 연구」, 『백제문화』 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21쪽.

한편, 일각에서는 주류성을 지라성이라고 파악하기도 한다.

[표 12] 지라성 관련 기록

내용	출전
지라성(支羅城)[달리는 주류성(周留城)이라고 불린다.]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삼국유명미상지분
(용삭) 2년 7월에 인원(仁願)·인궤(仁軌) 등이 복신(福信)의 무리를 웅진(熊津) 동쪽에서 대파하고, 지라성(支羅城) 및 윤성(尹城), 대산(大山)·사정(沙井) 등의 목책을 빼앗았다.	『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자왕
인원이 드디어 인궤와 그 방비하지 않은 틈을 공격하여 지리성(支離城) 및 윤성, 대산·사정 등의 목책을 빼앗았다.	『책부원구』 366, 장수부 기략(機略) 업(業) 6, 유인원

위의 기록처럼 『삼국사기』 지리 4의 삼국유명미상지분 항목에 지라성(支羅城)을 달리 주류성(周留城)이라고 한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지라성은 662년 7월에 나당군에게 함락 당했다고 나오는데 반해 주류성은 『삼국사기』 김유신전, 『일본서기』 천지 2년 9월 기록 등에 의하면 663년 9월까지 백제 부흥 세력의 중심지로 여전히 존속하였기 때문에 지라성이 곧바로 주류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¹⁹⁴⁾ 오히려 『삼국사기』의 지라성 등 함락과 동일한 내용이 전하는 『책부원구』에는 ‘지리성’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지라-지리-질’로의 음운 변화를 고려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 회덕현 산천에 나오는 질현(迭峴)¹⁹⁵⁾이라고 추정되면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질현성¹⁹⁶⁾일 수 있다.

이처럼 지라성을 주류성과 동일 장소라고 볼 수 없다면 백제 부흥 전쟁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주류성은 금강 이북 보다는 이남 지역에서

194) 노중국, 2003, 앞의 책, 192쪽.

195) 迭峴[在縣東十二里]

196) 심정보, 1983,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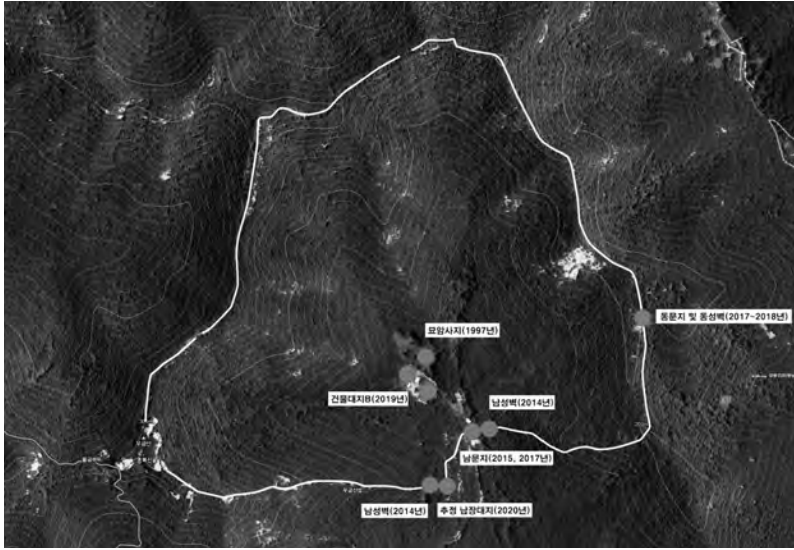
찾아야만 한다. 663년 9월의 주류성 함락을 일컬어 『삼국사기』 문무왕 11년의 ‘대왕보서(大王報書)’에는 “남쪽 지방이 평정되자 군대를 돌려 북쪽 지방을 정벌했는데 임존성 한 곳만 고집스럽게 항복하지 않았다(南方已定 廻軍北伐 任存一城 執迷不降)”고 표현하였다. 이는 남방의 주류성을 점령했으니 군대를 돌려 북방의 임존성을 쳤다는 뜻이다. 따라서 남방의 기준은 백제 영역을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금강임을 알 수 있다.¹⁹⁷⁾

결국 『일본서기』의 천지 원년(662) 12월과 천지 2년(663) 8월의 주유(州柔), 신공 49년(369)의 주류(州流)를 토대로 할 경우 이미 4세기 이전 마한 소국 중 하나인 ‘벽중’과 연관된 주류성(주류수지)은 백제의 남방 정벌(369)로 편입된 이후 중방 고사성의 일부로서 기능하다가 660년 부흥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중심 거점으로 주목되어 백제국의 수도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기록들은 주류성의 위치가 벽중, 고사 등과 연결된 지역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럴 경우 부안의 우금산성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금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20호)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65-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우금산(해발 340m) 정상부와 여러 개의 봉우리를 포함하여 남쪽의 계곡부를 감싸는 포곡식 석성이다. 산성의 평면 형태는 남벽이 넓고 북벽이 좁은 사다리꼴이며, 성곽의 둘레는 3,960m, 면적은 123,444m²로 부안 지역 성곽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성벽은 남벽과 북벽, 서벽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붕괴되었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외벽과 내벽을 할석을 이용하여 먼저 쌓아 올

197) 이도화, 2017, 『백강전투의 위치 확인에 대한 접근』, 『한국고대사탐구』 2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401쪽.

[그림 7] 우금산성 조사지역 위치 (다음지도, ©팍스도)



리고 그 사이를 할석과 흙을 이용하여 막채움하는 협축법으로 쌓아 올렸으며, 경사가 급한 일부 구간은 경사면에 내탁하여 축조하였다.

우금산성에 대한 현황은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산성의 규모 및 형태, 성곽시설물, 성벽과 문지의 규모와 형태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부안 우금산성 조사 현황

조사유형	조사연도	조사내용 및 성과	조사기관
지표	1994	산성의 규모 및 내부시설 등 확인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발굴	1997	총 6동의 건물지조사, '묘암(妙岩)'명기와와 '천순(天順)'명 암막새 등 출토	전주대학교박물관

지표	2005	성곽의 규모, 성곽시설(문지 4개소, 압문지 1개소, 치 1개소 등), 성 내부시설 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시굴	2014	체성(남벽) 축조방법 확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	2015	남문지 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	2017	남문지, 동문지 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	2018	동문지 주변 동성벽 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시굴	2019	건물대지B 조사, 기와가마1기 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우금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전영래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금산성과 그 주변 지역의 현지 답사와 문헌 사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삼국 통일기의 무대가 전북 부안의 우금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진반도 일대라는 주장을 내세워 우금산성을 주류성으로 추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우금산성 보존·정비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된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축조 방법, 성곽 시설과 성 내부 시설물 등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우금산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백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1997년도에 이루어진 우금산성 내 건물지 발굴조사 당시 백제시대 삼족토기편이 수습된 점으로 보아 삼국(백제) 시대의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¹⁹⁸⁾

한편, 고부천 맞은편으로는 우금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 편에 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확인된 산성 모두가 토성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규모도 대부분 작은 규모이

198) 광스도, 2021, 「우금산성 발굴기」, 『부안이야기』 25, 부안역사문화연구소, 96-97쪽.

[그림 8] 우금산성 동문지 발굴조사 전경 (©전북문화재연구원)



다. 이중 역리토성과 상산토성 중 하나는 백제시대 때 개화현의 치소 성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도 6개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어 밀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분포양상을 통해 볼 때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비중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방성과 주류성이 방어성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축조 시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백제 부흥 전쟁기 주류성이 중심지로 형성되면서 이후 주류성의 방어를 위하여 목책 성처럼 빠른 시일 안에 새롭게 축성된 산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¹⁹⁹⁾

199) 지원규, 2022, 앞의 논문, 62쪽.

10. 백(촌)강 전투와 주류성의 함락

주류성의 위치를 부안으로 파악한다면, 천지 2년(663) 8월 기록에 나오는 ‘백촌강’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백촌강을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서는 ‘백강(白江)’이라고 표현하였다.

[표 14] 660년 백강 관련 기록

내용	출전
백강(白江)[혹은 기벌포(伎伐浦)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
기벌포[곧 장암(長岩)인데 손량(孫梁)이라고도 하고, 지화포(只火浦) 또는 백강(白江)이라고도 한다]	『삼국유사』 1, 『기이』 1, 태종 춘추공
장군 소정방, 김인문 등은 연해를 따라 기벌포로 진입했다	『삼국사기』 42, 『열전』 2, 김유신 중

그리고 이 백강은 660년 7월 소정방의 당군 상륙지와 연관되어 나온다. 당시 소정방의 목표가 사비성 함락이었기에 백강은 오늘날의 금강과 연결하여 이해되었다. 이럴 경우 백강의 위치는 명확한 것이 된다. 바다를 건넌 당군이 백제 땅에 상륙할 지점은 사비성이 있는 금강 하구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백강과 기벌포의 위치 파악은 소정방의 백제 침공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후 663년에 부흥백제·왜 세력과 신라·당 세력 사이에 벌어진 주류성과 백촌강 전투를 규명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660년 당군의 침공로와 663년 주류성 함락을 위한 백강 전투가 얽히면서 백강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었기에 그 번잡한 견해를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다.²⁰⁰⁾ 다만 제기된 견해를 요약

200) 김영관의 논문을 참조(김영관, 2007, 『백강구 전투와 주류성』, 『군사』 6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1-137쪽.)

해 보면, 크게 ㉠ 웅진강과 백강은 동일한 강으로 금강 하구이므로 기벌포는 주변의 해안인 서천·장항·군산 등으로 볼 경우, ㉡ 웅진강과 백강은 별개이고, 그 중 백강은 동진강으로 기벌포는 동진강 하구의 계화도로 볼 경우, ㉢ 660년 사비성을 함락시킬 때의 백강은 웅진강 하구이며 기벌포는 금강 하류의 장항으로, 663년 주류성을 함락시킬 때는 금강 이남의 동진강·만경강·줄포나 금강 이북의 내포·두포천·아산만·안성천 하구 등으로 볼 경우, ㉣ 사비(부여) 앞을 흐르는 강을 백강으로 보고, 기벌포는 석성천과 금강이 만나는 고다진으로 볼 경우, ㉤ 백촌강은 후대의 명칭이고 백강은 어느 한 곳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고 볼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⁰¹⁾

어쨌든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 웅진강, 백강, 기벌포의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또 그 백강마저도 여러 곳에 존재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이 짐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웅진강과 백강을 동일하게 보아 금강으로 보거나(㉠), 663년 주류성 함락 시의 백강마저도 금강 이북에서 찾으려는 노력(㉡) 등의 견해 제기가 결국 백제 부흥전쟁의 전개·확산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찍이 신채호가 백제의 부흥전쟁을 대부분 오늘날의 금산, 예산 대흥면, 홍성, 부여 임천면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등 충남 지역에서 일어난 것²⁰²⁾으로 파악한 이래 백제사를 지역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려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자칫 부흥전쟁의 역사성을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201) 이재준, 2017,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81쪽.

202) 신채호, 1987,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전집』 상, 형설출판사, 341-342쪽.

[표 15] '남방(南方)' 관련 기록

내용	출전
(현경) 6년(661)……주류성(周留城)을 포위하니 적은 우리 병사가 적은 것을 알고 공격하여서 병마는 크게 손실하고 이로움을 잃으며 되돌아가자 남방제성(南方諸城)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켰다.	『삼국사기』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대왕보서
용삭 3년(663)……주류(周留)는 용기를 잃고 곧 항복하니 남방(南方)이 평정[己定]되자 회군(廻軍)하여 북벌(北伐)했으나 임존성(任存城) 하나만 고집스럽게 항복하지 않았다.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사기』 문무왕 11년 기록에는 661년 2~4월 사이에 벌어진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대패하자 부흥 운동에 참여를 주저하던 백제의 남방이 호응하였다고 나온다. 또 663년의 주류성 항복에 대해서도 남방 평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주서(周書)』 백제전에 언급된 사비시대 5방 체제 아래 '남방'이라고 보더라도 백제의 부흥전쟁은 충남 뿐만 아니라 중방의 전북과 남방의 전남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로 확산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²⁰³⁾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 또한 663년에 발발한 주류성 공략과 백강 전투의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백강의 이해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203) 김병남, 2022, 「백제부흥운동 관련 '전북지역' 지명의 재검토」, 『전북사학』 64, 전북사학회, 26쪽.

[표 16] 663년 주류성·백강 관련 기록

내용	출전
<p>복신을 엄살(掩殺)하였다. 사신을 고구려·왜국에 보내 군사를 요청해 당병(唐兵)을 막고자 했다. 손인사가 도중에 맞아 격파하고 마침내 (유)인원의 무리와 합치니 사기가 크게 올랐다. 이에 모든 장수가 항할 바를 의논하였다. 어떤 자가 “가림성(加林城)이 수륙의 요충이니 먼저 합격(合擊)해야 한다”고 말하니, (유)인궤가 “병법에는 ‘실(實)한 곳을 피하고 허(虛)한 곳을 쳐라’고 했는데 가림성은 험하고 튼튼하니 공격하면 병사들이 상하고, 지키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 (반면에) 주류성(周留城)은 백제 소굴로 무리가 모여 있으니, 만약 (쳐서) 이기면 여러 성은 저절로 항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손)인사·(유)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리고 진격하고, 유인궤 및 별수(別帥) 두상(杜爽)·부여웅은 수군 및 군량선을 거느리고,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구(白江口)에서 왜인(倭人)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00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덮고 바닷물도 붉게 되었다.……오직 지수신(遲受信)만이 홀로 남아 임존성에서 웅거하며 항복하지 않았다.</p>	<p>『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자왕</p>
<p>용삭 3년(663)에 이르러 총관 손인사(孫仁師)가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부성을 구원할 때, 신라의 병마도 역시 정벌에 참여하였다. 행군이 주류성(周留城) 아래에 이르렀을 때 왜국의 수군이 와서 백제를 도우려 했다. 왜선 1천 척이 백사(白沙)에 머물렀고, 백제의 정예 기병들이 강가에서 배를 지켰다.</p>	<p>『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대왕보서</p>

위의 663년 백강 및 주류성 함락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내용은 『구당서』 유인궤전 및 백제전, 그리고 『자치통감』 등 여러 중국 사서에서 인용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²⁰⁴⁾ 단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백사(白沙)’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사(沙)’자와 ‘강(江)’자를 놓고 봤을 때 『삼국사기』 편찬자의 오기재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삼국사기』에는 모두 ‘백강(白江)’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4)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452쪽.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의 유사성을 유념하며 내용을 보면 우선 당 주둔군과 신라군의 수뇌부의 주류성 공략 결정하였다. 나·당군은 주류성 공략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제기된 방안은 다수의 장수들이 동의한 대로 기존과 같이 차근차근 백제 지역을 공략하는 방법에 따라 가림성을 먼저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가림성(임천)은 금강에 연한 지역으로 부흥 세력의 양대 거점인 주류성과 임존성을 연결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남반4주와 동방 덕안성 함락처럼 가림성을 공략함으로써 부흥 세력을 양단하는 것은 향후 주류성 함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인궤만은 소수 의견으로 점진적인 백제국의 공략이 아니라 일시에 궤멸시키는 방안으로써 주류성 직공을 강하게 제안하여 채택시킨 것이다. 그래서 수륙 병진책에 따라 백제부성이 있는 웅진에서 출발하여 웅진강을 거쳐 백강 어귀에 1차 집결을 하게 되었고, 나·당군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획득한 백제 또한 백촌에서 대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의 상황으로 염두에 두면 나·당군과 제·왜군이 벌인 해전 지역은 적어도 금강 하구에서 서해안 일대²⁰⁵⁾에 걸친 곳에서 있었을 가능성을 높다. 특히 위의 『삼국사기』 의자왕 기록이나 『자치통감』에 백강구 전투를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다(海水爲丹)’거나 ‘바닷물이 모두 붉었다(海水皆赤)’고 묘사한 것은 통설화된 백강=금강설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205) 이상훈, 2021, 『신라의 통일전쟁-백제 멸망에서 고구려 멸망까지』, 민속원, 119쪽.

(663) 가을 8월 임오삭 갑오(13일)에 백제왕이 자기의 훌륭한 장수를 죽였으므로, 신라는 곧바로 백제로 쳐들어가 먼저 **주유(州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백제왕이 적의 계략을 알고 장군들에게 “지금 들으니 대일본국의 구원군 장수 이호하라노기미오미[盧原君臣]가 용맹한 군사[健兒]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 장군들은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나는 **백촌(白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접대하리라”고 말하였다. 무술(17일)에 적장이 **주유**에 이르러 **왕성**을 에워쌌다. 대당의 장군이 전선 170척을 이끌고 **백촌강**에 진을 쳤다. …… 9월 신해삭 정사(7일)에 백제 **주유성**이 당에 항복하였다. 이때 나라사람들이 서로 “**주유**가 항복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끊어졌다……”고 말했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위의 663년 백촌강 전투에 참전하는 왜군 1만 명이 규슈를 출발하여 대한해협을 건너고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다시 그 남단을 거쳐 북으로 서해안으로 오는 고된 항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륙 지점은 남쪽²⁰⁶⁾으로 잡는 게 유리하다. 이보다 앞서 『일본서기』에는 661년 9월에 백제 왕자 부여풍을 수군 170척에 군사 5천명을 호위하여 보냈다고 나오는데 그 기항지가 가파라빈인 바 이를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개화(皆火)와 연결하여 전북 부안²⁰⁷⁾으로 보고 있다. 또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삼국사기』 지리지의 당령 백제 고사주(古四州) 소속 5현 중 하나인 평왜현(平倭縣)이 왜군과의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름으로 해석되므로 백강 전투를 의미²⁰⁸⁾한다

206) 변인석, 1994, 『백강구전쟁과 백제-왜 관계』, 한울아카데미, 59쪽.

207) 전용신 역, 1989,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486쪽 ; 연민수 외, 2013, 앞의 책, 335쪽.

208) 조대연, 2020,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의 활용과 문화유산의 창출-백제부흥운동의 경로복원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347쪽.

는 점을 염두에 두면 당시 백강은 동진강²⁰⁹⁾ 일대의 서해안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9) 이도학, 2018, 『삼국통일 어떻게 이루어졌나』, 학연문화사, 398쪽.



VI.
부흥백제국과 '전북지역'의 역할



VI. 부흥백제국과 ‘전북지역’의 역할

1. 부흥전쟁 관련 지명 현황

백제 부흥전쟁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확산 및 종료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나·당과 부흥세력 사이의 접전 지명을 통해 660년 7월 이후 663년 9월에 이르기까지의 부흥전쟁의 전개 지역과 확산 범위를 짐작해 보자. 나아가 백제 부흥전쟁과 관련하여 백제에 속해 있던 오늘날의 지역별 가담 정도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관련 기록에 나오는 지명들을 끌어 모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7] 백제부흥전쟁 관련 지명

연번	관련지명	연도	출전
1	주류성(周留城)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신당서』 백제, 『자치통감』
2	주유(州柔)	662.12	『일본서기』 천지년
3	소류성(疏留城)	662.1	『일본서기』 천지년

4	도도기류산 (都都岐留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5	두솔성(豆率城)	663.8	『삼국사기』 김유신
6	임존성(任存城)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7	임존대책 (任存大柵)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8	임효성(任孝城)	661	『신당서』 백제
9	임사기산 (任射岐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10	북임서리산 (北任鉸利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11	남잠(南岑)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12	두시원악 (豆尸原嶽)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13	사비남령오책 (泗比南嶺五柵) 사비남령군책 (泗比南嶺軍柵)	660.9 660.10	『삼국사기』 무열7년
14	이례성(伊禮城)	660.10	『삼국사기』 무열7년
15	왕흥사잠성 (王興寺岑城)	660.11	『삼국사기』 무열7년
16	중부구마노리성 (中部久麻怒利城)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17	탐라(耽羅)	661.5 662.2	『일본서기』 제명6년 『삼국사기』 문무1년
18	웅진강구양책 (熊津江口兩柵)	[661]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19	두량윤성 (豆良尹城)	661.3	『삼국사기』 무열7년
20	고사비성 (古沙比城)	661.3	『삼국사기』 무열7년
21	고사(古泗)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자치통감』
22	갈령도(葛嶺道)	661.3	『삼국사기』 의자21년, 『자치통감』
23	빈골양(賓骨壤)	661.4	『삼국사기』 무열7년

24	각산(角山)	661.4	『삼국사기』 무열7년
25	금마군(金馬郡)	661.6	『삼국사기』 무열7년
26	남방제성 (南方諸城)	{661}	『삼국사기』 문무11년
27	옹산성(甕山城)	661.8	『삼국사기』 문무1년
28	우술성(雨述城)	661.9	『삼국사기』 문무1년
29	가파리빈 (加巴利濱)	661.12	『일본서기』 천지즉위
30	지라성(支羅城)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신당서』 백제, 『자치통감』
31	윤성(尹城)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32	대산책(大山柵)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33	사정책(沙井柵)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자치통감』
34	사병(沙井)	662.7	『구당서』 백제
35	진현성(眞峴城)	662.7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신당서』 백제, 『자치통감』
36	정현(眞峴)	660.8	『삼국사기』 무열7년
37	가림성(加林城)	663.9	『삼국사기』 의자21년, 『구당서』 유인궤, 『자치통감』
38	노수리산 (怒受利山)	660.9	『일본서기』 제명6년
39	내사지성 (內斯只城)	662.8	『삼국사기』 문무1년
40	피성(避城)	662.12	『일본서기』 천지1년
41	안덕(安德)	663.2	『일본서기』 천지2년
42	거열성(居列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43	거물성(居勿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44	사평성(沙平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45	덕안성(德安城)	663.2	『삼국사기』 문무1년

46	백제남반사주 (百濟南畔四州)	663.2	『일본서기』 천지2년
47	석성(石城)	663.5	『일본서기』 천지2년
48	테례(禮禮)	663.9	『일본서기』 천지2년
49	백촌강(白村江)	663.8	『일본서기』 천지2년
50	백강(白江)	663.9	『구당서』 유인궤, 『구당서』 백제, 『자치통감』
51	침복기성 (枕服岐城)	663.9	『일본서기』 천지2년
52	모테(牟沓)	663.9	『일본서기』 천지2년

위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 부흥전쟁 시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열거해 보면 약 50개 이상이 나타난다. 물론 이 중에는 동일 지명에 대한 다른 명칭도 포함되지만 일단 명칭이 다르게 표현된 것을 모두 모아 보면 위와 같다는 것이다.

2. 부흥전쟁기 관련 지명의 이해

그렇다면 부흥전쟁 관련 지명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재의 권역별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

[표 18] 백제 부흥전쟁 관련 지명 추정

권역	지명	위치	비고
충남	임존성(任存城)	예산 대흥	임존대책(任存大柵), 임효성(任孝城), 임사기산(任射岐山), 북임서리산(北任敍利山)
충남	남잠(南岑)	부여 임천	
충남	두시원악(豆尸原嶽)	정산	

충남	사비남령오책(泗南嶺五柵)	부여 인근	사비남령군책(泗南嶺軍柵)
충남	이례성(禮城)	논산 연산	
충남	왕흥사잠성(王興寺岑城)	부여 규암	
충남	중부구마노리성 (中部久麻怒利城)	공주 인근	
충남	웅진강구양책(熊津江口兩柵)	공주 인근	
충남	웅산성(甕山城)	대전계족산성	
충남	우술성(雨述城)	대전 대덕	
충남	지라성(支羅城)	대전 대덕	
충남	윤성(尹城)	청양계봉산성	
충남	대산책(大山柵)	부여 홍산	
충남	사정책(沙井柵)	대전 중구	사병(沙井)
충남	진현성(眞峴城)	대전흑석동산성	정현(貞峴)
충남	가림성(加林城)	부여성홍산성	
충남	노수리산(怒受利山)	논산 연산	
충남	내사지성(內斯只城)	대전유성산성	
충남	안덕(安德)	논산가야곡면	덕안성(德安城)
충남	석성(石城)	부여 석성	
전북	주류성(周留城)	부안	주유(州柔), 소류성(留城), 두솔성(豆率城), 도도기류산(都都岐留山)
전북	두량이성(豆良伊城)	완주 이서	
전북	고사비성(古沙比城)	정읍 고부	고사(古泗)
전북	갈령도(葛嶺道)		
전북	빈골양(賁骨壤)	정읍 태인	
전북	각산(角山)	임실	
전북	금마군(金馬郡)	익산	

전북	가파리빈(加巴利濱)	부안	
전북	피성(避城)	김제	
전북	거물성(居勿城)	남원	
전북	사평성(沙平城)	임실	
전북	백강(白江)	금강~동진강하구	백촌강(白村江)
전남	남방제성(南方諸城)		
전남	테례(禮)	보성	
전남	침복기성(枕服岐城)	강진	
경남	모테(牟)	남해	
경남	거열성(居列城)	거창거열산성	
제주	탐라(耽羅)	제주도	

위의 [표 18]과 같이 백제 부흥전쟁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정리하면 총 38개로 충남권 20개(53%), 전북권 12개(32%), 전남 3개(8%), 경남 2개(5%), 제주 1개(2%)로 나타난다.²¹⁰⁾ 대부분의 지명이 충남·대전권과 전북권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충남·대전권은 나·당군의 침공과 점령지가 사비(부여)와 웅진(공주)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백제 부흥세력이 당 주둔군의 축출을 통해 백제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 사비와 웅진의 탈환을 위해 충남 지역이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이 많은 지명을 나타내게 한 것이다.

210) 김병남, 2019, 『백제의 부흥운동과 전북지역의 역할』, 『전북학연구』 31,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22쪽.

3. 백제국 재건과 '전북지역'의 역할

백제 부흥전쟁의 최종적인 목적은 잠시 끊어진 국가의 연속성 계승하는 것이었다. 부흥 세력은 나·당 침략군을 백제 지역에서 몰아내고 왕통을 이어 국가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새로운 국가의 시작'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의 안정'이 목표라 할 수 있다. 660년 9월 23일에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되찾기 위해 포위·공격하고, 10월에 왜국에 있는 왕자 부여풍의 귀환 및 왕위 계승 요청은 이러한 사고의 실행이었다.

백제 부흥전쟁은 660년 7월 18일에 백제가 항복하는 순간부터 살아남은 각처의 백제 세력들이 왕권의 새로운 수립을 위해 움직인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부흥전쟁'은 그 자체가 정치 행위이므로, 국가 부흥 실행의 바탕 즉, 왕통 회복과 국정 재건이란 내부 문제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재건을 위해 부흥 세력은 나·당 주둔군의 축출이 급선무였다. 660년 7월의 사비성 함락 이후 부흥군의 최우선 노력은 도성을 수복하여 국가의 연속성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비성은 나·당군의 수중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전쟁은 탄력을 받아 '금강 서쪽(江西)'에서 점점 금강 동쪽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부흥전쟁이 일부 세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는 두 세기 전 고구려의 침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왕마저 죽은 상황에서 새롭게 국가를 재건한 바 있다. 따라서

사비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모색된 것은 그러한 경험의 발로였다. 이럴 경우 가장 우선시 할 것은 침략이 비켜간 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 무왕이 천도를 계획하던 금마저(익산)나 백제 5방 중 하나인 중방 고사성 등이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중에 중방 고사성은 옛 마한 지역의 지배 거점으로서 백제가 전북 지역을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곳이다. 『일본서기』 신공 49년의 고사 지역 점령과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때의 고사부리성의 축조 이후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까지 마한 지역의 정벌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은 당시 백제의 인식 속에서 고사부리성이 마한의 최종 결절점으로 인식된 것을 뜻한다.²¹¹⁾ 전북 지역의 마한이란 존재는 백제의 정복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복 이후에 양자의 조화야말로 백제란 국가의 최대 과제인 것이다.

더구나 고사 지역은 해상과 육상의 양 교통로로 영산강 일대로 진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였다. 한성기 백제가 처음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할 때에는 고흥 길두리 고분이나 고창 봉덕리 고분에서 보듯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 지배 방식을 고수하였다. 근초고왕 때의 침미다례 또한 유사하리라 짐작된다. 즉, 영산강 일대 대한 지배는 직접 지배보다는 지역 세력을 이용한 간접 지배 방식이었으며,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지배 방식이었다. 고사 지역의 점령과 고사부리성의 축조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선후가 바뀌어 기록되어 있지만 매우 연관된 서술임은 분명하다.

211) 김영심, 2019,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0쪽.

나아가 더욱 더 주목할 점은 신공기 49년의 고사 지역은 점령이 아닌 항복에 의해 병합되었다는 것이다. 침미다례는 도륙했지만, 고사 지역을 포함한 전북의 다른 소국들은 순수 항복으로 백제에 편입되었다. 백제의 입장에서 새롭게 편입된 영역에 강제로 병합된 곳의 반발을 감수하기 보다는 항복을 통하여 순순히 협조해 주는 지역을 거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역 지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고사부리성의 축조는 마한의 점령과 지배 과정에서 이 지역을 우대해 준다는 의미와 함께 마한의 중심지라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백제는 웅진기에 이르러 전북 일대를 직접 지배 영역으로 편제하면서 담로를 설치하였고, 고사부리성은 거점성이 되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직접 지배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사비기까지 잔존되어 이 지역이 백제의 중방성으로 편제되었다. 5방성 중 중방성이 남쪽에 치우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방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구 마한 지역의 백성들을 백제의 입장에서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지방 제도 상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적 선물이었다. 백제는 이른 시기부터 5방 관념이 백제 사회에 존재하였으며, 중앙을 매우 중시하였다. 따라서 마한 지역에 방성을 설치하고 이를 중방성으로 명명한 것은 여전히 옛 마한인들을 포섭하고 활용하기 위한 백제의 치밀한 전략이 백제 지방 제도에 반영된 것이다.²¹²⁾

이러한 중방 고사성 일대가 부흥 세력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충남·대전권에서 사비성을 대체할 지역을 찾았을 수도

212) 지원구, 2022, 앞의 논문, 72-74쪽.

있다. 하지만 충남은 나·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이고, 또한 당 주둔군이 존재하여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었다. 더불어 적의 수중에 있는 사비성으로 인해 금강 유역의 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과의 수상 통로 확보도 필요했다. 이 경우에도 중방 고사성 지역은 왜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교섭에도 유리한 해상의 길목이며, 중국·왜의 선박이 드나들던 부안 죽막동 유적 등도 항구를 확보할 강점을 지녔기에 부흥전쟁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백제와 나·당군의 전쟁이 일시에 끝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식량 확보와 보급 등 경제적인 유지는 매우 필요한 문제였다. 당시 부흥백제군과 대립하던 당 주둔군은 자체적인 조달이 없이 일체를 신라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현경 5년(660)에서 용삭 2년(662)까지 백제 주둔 당군의 군량 지원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 주둔군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백제국 또한 그 군사력 유지에 비례하여 군량의 획득과 소모가 엄청났을 것이므로, 식량을 생산·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당서』 유인궤전에는 “처음 백제는 복신의 난을 지나면서 서로 싸워 쇠락해져 시체가 즐비하였다(初百濟經福信之亂 合境凋殘 殭屍相屬)”고 하여 당 주둔군과 백제 부흥 세력 사이의 전쟁으로 어려웠음을 짐작케 한다. 자급자족에 의존하던 전근대 시기임을 고려하고, 전시로 인해 경작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임과 함께 행정체계의 와해로 공급마저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을 것을 감안하면 좀더 유효하고 적극적인 식량 자원 마련과 공급을 위한 대안 체제 구축이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방 고사성으로 대표되는 전북권역은 이를 지탱할 화수분 같은 곳이었다. 『일본서기』 천지 원년 기록에 ‘꽃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삼한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華實之毛 則三韓之上腴焉)’이라는 표현은 중방 고사성 권역인 정읍, 부안, 김제, 고창 흥덕 등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의식의 근원(衣食之源)’ 즉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지역이 없이는 부흥전쟁은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세 축출이라는 저항운동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백제 부흥전쟁의 성패에서 전북 지역의 역할과 비중은 역사적·경제적·지리적인 여러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전북 지역의 경우 나·당군과 백제 부흥군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흥전쟁의 안전한 지원을 위한 배후 기지의 역할과 아울러 탈환하지 못한 사비성을 대체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주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661년 2월 이후 백제 부흥군은 남하하여 이원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부흥전쟁의 중심지는 전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백제 부흥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초기 부흥전쟁의 시작 이후에는 부흥전쟁의 중심 지역이 전북 지역으로 옮겨와 그 끝을 장식하게 된다. 그 중심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두량이(완주), 고사성(정읍), 주류성(부안), 피성(김제), 금마(익산) 등과 함께 남원, 임실 그리고 동진강 일대까지 뻗어 있었다.²¹³⁾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과정과 결과의 정확한 인식과 잘못 형성된 통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역사학이 추구하는 필연적 의무이다. 이와

213) 김병남, 2019, 앞의 논문, 123쪽.

관련하여 660년 7월에서 663년 9월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백제의 자주적인 부흥국가 건설 노력인 ‘부흥전쟁’은 역사적 통설의 재음미라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백제의 부흥전쟁 또한 전체적인 밑그림에서는 대강의 역사적 의미와 이해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 상태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기본적인 사료를 활용하여 구성된 부흥전쟁의 해석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보인다. 특히 부흥전쟁의 전개 지역과 관련하여 일찍이 신채호가 오늘날의 금산, 예산 대흥면, 홍성, 부여 임천면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등 충남 지역에서 대부분 전개되었다고 본 이래 부흥전쟁의 규모는 금강 유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통설화 되면서 비록 백제의 부흥전쟁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충남 일부에서 전개된 지역사적 규모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부흥전쟁의 중심을 임존성과 사비·웅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나머지 관련 지명들을 모두 이에 맞춰서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고사성(古沙城)은 고사비성(古泗泚城, 부여)으로, 주류성은 건지산성으로, 백강은 웅진강으로 보아 부흥전쟁의 범위를 충남 일원으로 한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흥전쟁이 충남 이외의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갔음을 유추할 수 있는 지명 기록들이 여럿 보인다.

연도	지명	동명이칭	위치	지역
661.3	주류성 (周留城)	주유(州柔), 소류성(留城), 두솔성(豆率城), 주류수지(州流須祗), 의류촌(意流村), 도도기류산(都都岐留山)	부안	전북
661.3	두량이성 (豆良伊城)	두이현(豆伊縣), 이성(伊城)	완주 이서	전북
661.3	고사비성 (古沙比城)	고사(古泗), 고사부리(古沙夫里), 고묘부리(古夫里), 고사부촌(古沙夫村), 고사성(古沙城), 구소(狗素), 고사읍(古四邑), 고사산(古沙山)	정읍 고부	전북
661.3	갈령도 (葛嶺道)			전북
661.4	빈골양 (賓骨壤)	빈굴현(賓屈縣)	정읍 태인	전북
661.4	각산(角山)	각산성(角山城)	임실	전북
661.12	가파리빈 (加巴利濱)		부안	전북
662.12	피성(避城)	벽비리(卑離), 벽골(碧骨), 벽성(城), 벽중(中), 벽지산(支山)	김제	전북
663.2	거물성 (居勿城)		남원	전북
663.2	사평성 (沙平城)		임실	전북
663.9	백강(白江)	백촌강(白村江)	금강~ 동진강 하구	전북

이에 따르면 660년 부흥세력이 사비 탈환에 실패한 이후 661년부터 부흥전쟁의 지속성 감당하는 대체 지역으로 전북 지역이 부상하였던 것이다. 즉, 661년 2월~4월 사이에 백제군이 두량·고사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을 격퇴한 후 부흥전쟁이 확산되었고, 이후에는 다시 두량(완주), 고사성(정읍), 주류성(부안), 피성(김제) 등이 부흥백제국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여기에 동진강 일대의 전북 서부권만이 아니라 동부권인 남원, 임실도 부흥백제국의 중요한 거점

으로 활동하였던 것도 확인된다.

이처럼 전북 지역의 부흥전쟁 거점들은 부흥전쟁이 백제 고지(故地)의 일부 지역, 즉 사비와 웅진을 둘러싼 금강 유역 일대에 국한된 소규모가 아니라 전 지역을 아우르는 백제 유민들의 총력전이란 의미를 갖는 것을 보여줘서 인식을 대전환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백제사에서 부흥전쟁과 백제국 재건이 갖는 역사성의 보완을 위해서도 촘촘하게 작지만 미묘한 지점에 대한 세부적 의미를 재구성하여 부흥전쟁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고려사』
 - 『광개토왕릉비문』
 - 『구당서』
 - 『남제서』
 - 『당유안원기공비』
 - 『대당평백제비문』
 - 『대동지지』
 - 『동사강목』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삼국지』
 - 『송고승전』
 - 『신당서』
 - 『신증동국여지승람』
 - 『양직공도』
 - 『일본서기』
 - 『자치통감』
 - 『주서』
 - 『진서』
 - 『책부원구』
 - 『통전』
 - 『한원』
 - 『후한서』
-
- 輕部慈恩, 1971, 『百濟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2004,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 곽소도, 2021, 『우금산성 발굴기』, 『부안이야기』 25, 부안역사문화연구소.
 - 김수태, 1993,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 김승욱 외, 2010, 『상운리』 1, 전북대학교 박물관.
 - 김영관, 2005,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 김용섭, 2019, 『한국고대농업사』, 지식산업사.
 -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 일조각.
 -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1, 일지사.
 -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 노중국, 2004,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인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 박노자, 2010, 『거꾸로 보는 고대사』, 한겨레출판.
 - 박성홍, 1994, 『홍주주류성고』, 홍성군.
 -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 방향숙, 1994, 『백제고토에 대한 당의 지배체제』, 『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 상, 一潮閣.
 - 변인석, 1994, 『백강구 전쟁과 백제-왜 관계』, 한울아카데미.

- 상명여대박물관·홍성군, 1998, 『홍성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서정석, 2004, 『부흥운동기 백제의 군사활동과 산성』,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 서지은 외, 2009, 『임실 성미산성』, 전북문화재연구원·임실군.
- 서천군·충청대장문화재연구원, 2001, 『한산 건지산성』.
- 서현주, 2013,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한성백제박물관.
- 신복룡 역, 1991, 『입당구법순례행기』, 정신세계사.
- 신재호, 1987,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전집』 상, 형설출판사.
- 심정보, 2006, 『백제의 부흥운동』, 『충청남도지』 4,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 심정보, 2007, 『부흥군의 붕괴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심정보, 2020,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 주류성』, 『스러져간 백제의 함성-한국사 최초의 국권회복운동 '백제 부흥운동'』, 주류성.
- 양종국, 2008,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엿보기』, 서경.
-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13, 동북아역사재단.
- 이도학, 1997,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 이도학, 1999,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 이도학, 2018, 『삼국통일 어떻게 이루어졌나』, 학연문화사.
- 이문형, 2020, 『전북지역 후기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병도 역, 1983, 『삼국사기』 상·하, 을유문화사.
- 이상훈, 2021, 『신라의 통일전쟁-백제 멸망에서 고구려 멸망까지』, 민속원.
- 이성범 역(도야마 미쓰오 저), 2002, 『우리가 몰랐던 왜군의 백제파병 이야기-백촌강전투』, J&C.
- 이재준, 2017,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 이종욱, 2002, 『신라의 역사』 2, 김영사.
- 이호영, 1997, 『신라삼국통일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도서출판 온샘.
-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 전덕재, 2021, 『삼국사기 잡자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정을 고사부리성』.
- 전영래, 1990, 『백제최후 항쟁사연구』, 전주문화원.
- 전영래, 2003, 『전북 고대산성조사보고서』, 전라북도·한서고대학연구소.
- 전용신 역, 1989,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 전용신, 1993, 『한국고지명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인보, 1946, 『조선사연구』 상, 서울신문사.
- 정진술 외, 2007,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해군사관학교.
- 정효운, 1995, 『고대 한일 정치교섭사 연구』, 학연문화사.
-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 최기인, 2016, 『부안의 옛길을 따라-상술재 넘어 염소로와 가아개동진개』, 『부안이야기』 14, 부안역사문화연구소.
- 최병은 외, 2000, 『전북역사문화헌자료집(삼국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 전라북도.
- 충남대학교 박물관·대전시, 1998, 『계족산성 발굴조사약보』.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2008, 『백제사자료역주집-일본편』.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2008,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
- 한성백제박물관 편, 2013, 『(도록)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 韓昇, 2004, 「당과 백제의 전쟁: 배경과 성격」,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 胡戟, 2000, 「中國 水軍과 白江口 戰鬪」,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 맹소희, 2017, 「한성백제기 화성-오산지역 고고학적 변화양상 연구-분묘유적과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정지은, 2019, 「3~4세기 백제의 동이교위와의 교섭과 주변세력 통합양상」,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지원구, 2022, 『백제 오방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강봉룡, 2006, 「신라 말~고려시대 서남해지역의 한중 해상교통로와 거점포구」, 『한국사학보』 23, 고려사학회.
- 강유나, 2020, 「군산 지역의 고대 사회」, 『백제문화』 6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곽장근, 2012, 「새만금해역의 해양문화와 문물교류」, 『도서문화』 3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곽장근, 2013,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 권오영, 1995, 「삼한 국읍의 기능과 내부 구조」, 『역사와 경계』 28, 부산경남사학회.
- 권정혁, 2022, 「백골제-눌제-황등제의 기능 재검토」, 『호남고고학보』 70, 호남고고학회.
- 김경화, 2022, 「인천-김포지역 분묘군과 마한」, 『한국학연구』 6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규정, 2016, 「마한의 성장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2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 김기욱, 2012, 「한강하류역 마한 분묘군 일고찰」, 『경남연구』 7, 경남발전연구원.
- 김낙중,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비리백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 김낙중, 2016, 「서남해안 일대의 백제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검토」,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 김덕원, 2021, 「백제 초기 소국의 존재와 실제-한강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덕원, 2022,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덕원, 2022, 「나당동맹의 전개 과정」, 『한국전통문화연구』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김병남, 2004, 「신라의 삼국통일 의식과 그 실제」, 『한국사상과 문화』 24,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병남, 2003, 「백제 동성왕대의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병남, 2012, 「백제 부흥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한국학』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병남, 2013, 「백제 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 42, 전북사학회.
- 김병남, 2013, 「백제 풍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부흥운동의 전개-도침의 몰락과 복신의 주도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 36-1,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병남, 2013,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정치적 변동」,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병남, 2022, 「백제부흥운동 관련 '전북지역' 지명의 재검토」, 『전북사학』 64, 전북사학회.
- 김병남, 2014, 「백제 부흥전쟁기 복신의 활동과 좌절」, 『한국인물사연구』 21, 한국인물사연구원.
- 김병남, 2019, 「백제의 부흥운동과 전북지역의 역할」, 『전북학연구』 31,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소.
- 김병남, 2019, 「부흥백제국의 피성 천도 배경과 결과」, 『백제학보』 27, 백제학회.
- 김상현, 2009,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 김수미, 2006, 「백제부흥의 실제와 웅진도독부 체제로의 전환」, 『역사학연구』 28, 호남사학회.
- 김수태, 2010,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수태, 1991,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김영관, 2013, 「대당평백제국비명예 대한 고찰」,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 김영관, 2007, 「나당연합군의 백제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충청문화재단연구원.
- 김영관, 2007, 「백강구 전투와 주류성」, 『군사』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영관, 2004, 「백제부흥운동의 성세와 당군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35, 한국고대사학회.
- 김영관, 2003, 「백제부흥운동의 실패 원인」, 『선사와 고대』 19, 한국고고학회.
- 김영관, 2009, 「의자왕의 압송과정과 당에서의 행적」, 『백산학보』 85, 백산학회.
- 김영심, 2019,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동지양상」, 『마한-백제문화』 3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학회.

- 김용만, 2004, 「2차 고구려-당 전쟁(661-662)의 진행 과정과 의의」, 『민족문화』 27, 한국고전번역원.
- 김종복, 2010,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 김주성, 2015, 「백골제의 축조와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2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주성, 2016,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중방성」, 『백제문화』 5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주성, 2018, 「백골제의 기능」, 『백제문화』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중엽, 2015, 「고창 봉덕리 1호분의 축조와 공간활용에 관한 검토」, 『마한·백제문화』 2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학회.
- 김창현, 2002, 「당의 동북아 전략과 삼국의 대응」, 『군사』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나용재, 2022, 「근초고왕 24년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검토」, 『동양학』 8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노도양, 1979, 『백제 주류성고』, 『명대논문집』 12, 명지대학교 출판부.
- 노중국, 2011,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유역 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6, 백제학회.
- 노중국, 2010, 「백제의 수리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보』 4, 백제학회.
- 노중국, 2015, 「한국고대 수리시설의 역사성과 의미」, 『신라문화』 45,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 박경철, 2007, 「나당전쟁의 재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5, 동북아역사재단.
- 박순발, 2016, 「백제의 해상교통과 기항지」,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 박승범, 2014, 「7세기 전반기 신라 위기의식의 실상과 황룡사9층목탑」, 『신라사학보』 30, 신라사학회.
- 박영민, 2023, 「만경강-동진강유역 고대 성곽의 변천」, 『전북사학』 68, 전북사학회.
- 박윤우, 2021, 「백제 사씨 세력의 부상과 세력 기반」, 『백제학보』 35, 백제학회.
- 박재용, 2007, 「『일본서기』에 인용된 도헌의 『일본세기』」, 『한국고대사연구』 47, 한국고대사학회.
- 박종욱, 2016, 「602년 아막성 전투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 박종욱, 2019, 「660년 백제의 영역과 加耶故地」, 『백제학보』 29, 백제학회.
- 박지현, 2013,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5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박찬규, 2013, 「문헌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소국의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 백승충, 2000,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서영교, 2015, 「백강전투와 신라」, 『역사학보』 226, 역사학회.
- 서영교, 2020, 「백제말망천전쟁과 김흥순」, 『영남학』 7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서정석, 2004,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백산학회.
- 서정석, 2004, 「웅진·사비시대 백제 석성의 현단계」, 『호서고고학』 10, 호서고고학회.
- 서정석, 2008, 「홍주 석성산성에 대한 고찰」, 『백제문화』 3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서정석, 2012, 「홍성지역 산성과 백제의 균형」, 『백제문화』 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서정석, 2014, 「靑部慈恩의 백제 성곽 연구」, 『백제문화』 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서현주, 2016, 「마한 토기의 지역성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50, 한국고고학회.
- 성주탁, 1992, 「도침의 사상적 배경과 부흥활동」, 『호서사학』 19-20, 호서사학회.
- 송만영, 2021, 「한강 하류 분구묘 분포권 지역정치체의 동향과 성격」, 『송실사학』 47, 송실사학회.
- 송완범, 2007, 「백촌강싸움과 왜-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5, 한국고대사학회.
- 신은이, 2023, 「나당전쟁의 전개와 보덕국」, 『영남학』 8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임정보, 1983,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양기석, 1999,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연민수, 2007,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 우재범, 2010, 「백제 서해안지역 죽막동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왜인의 흔적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33, 한국고고학회.
- 유원재, 2007, 「백제시대 서천지방의 건지산성」, 『공주교대논총』 44-2,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연구원.
- 윤경진, 2014,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천하관과 역사·사상·심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 고찰」, 『사림』 49, 수선사학회.
- 윤경진, 2014, 「삼한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신라의 천하관」, 『동방학지』 1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윤명철, 2000, 「신라하대의 해양활동연구」, 『국사관논총』 91, 국사편찬위원회.
- 윤무병, 1976, 「김제 백골제 발굴보고」,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윤용구, 2019, 「마한諸國의 위치재론」,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 이근우, 1997,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도학, 2017, 「백제전투의 위치 확인에 대한 접근」, 『한국고대사탐구』 2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이미경, 2015,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 대구사학회.
- 이민수, 2021,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수군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이민수, 2022,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고구려발해연구』 73, 고구려발해학회.
- 이상훈, 2011,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 역사교육학회.
- 이성호, 2012, 「3세기 후반 진고구려술산신인과 고구려의 대서진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67, 한국고대사학회.
- 이상웅, 2018, 「신라 진평왕 시기 백제 관계와 서동 설화」, 『신라사학보』 44, 신라사학회.
- 이재석, 2013,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호원, 2022, 「백제부흥운동 전개 과정을 통해 본 주류성 위치 비정」, 『백제연구』 7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임동민, 2020, 「백제와 송의 교섭 배경과 항로」, 『역사와 현실』 117, 한국역사연구회.
- 임동민, 2018, 「진서」 마한 교섭기사의 주제와 경로」, 『한국고대사연구』 89, 한국고대사학회.
- 임영진, 2017, 「마한토기의 기원 연구-분구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5, 호남고고학회.
- 임영진, 2010,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백제학보』 3, 백제학회.
- 장창은, 2016,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신라사학보』 37, 신라사학회.
- 정동준, 2019, 「문헌사료로 본 백제의 마한 통합과정」, 『백제연구』 2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정동준, 2015, 「백제시대 망국의 리더십」, 『내일을 여는 역사』 58,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한국고대사학회.
-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왕경과 주차-소경 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 정운용, 2019, 「새종서 백제 운주산성의 축조와 운용」, 『선사와 고대』 59, 한국고대학회.
- 정재윤, 2001, 「위의 대한정책과 기리영 전투」, 『중원문화논총』 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정재윤, 2002, 「신라의 백제고지 점령 정책-완산주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8, 국사편찬위원회.
- 정재윤, 2009, 「미륵사 사리불안기를 통해 본 무왕-의자왕대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 정재윤, 2022, 「문헌 속 호남 지역의 마한과 백제」, 『호남고고학보』 72, 호남고고학회.
- 정호섭, 2023,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과 고구려의 대응」, 『선사와 고대』 72, 한국고대학회.
- 정효은, 1991, 「7세기대의 한일관계의 연구(하) -백강구전예의 왜군파견 동기를 중심으로」, 『고고역사학지』 7, 동아대학교 박물관.
- 조대연, 2020, 「실크로드피아(Silkroadpia)의 활용과 문화유산의 창출-백제부흥운동의 경로복원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조재우, 2017, 「유인원기공비의 해석과 당조의 백제고토 지배방식」, 『사람』 61, 수선사학회.
- 최범호, 2010, 「백제 온조왕대 강역확정 기사의 제설 검토」, 『백산학보』 87, 백산학회.
- 최범호, 2017, 「완산주 설치와 관련한 전주의 지정학적 배경」, 『전북사학』 51, 전북사학회.
- 최완규, 2016, 「전북지역 마한-백제 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 18, 백제학회.
- 최현화, 2006,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 하일식, 2017, 「삼국통일후 신라 지배체제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23, 한국고대사학회.
- 한준수, 2023, 「7세기 후반 신라의 지배질서 정비와 여제 유민의 대응」,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전북학 총서 16

부흥백제국과 주류성

초판 1쇄 인쇄 | 2023년 12월 31일

초판 1쇄 발행 | 2023년 12월 31일

지은이 | 김병남

발행인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전화 | 063-280-7212

홈페이지 | <http://jnstudies.re.kr>

제작 및 디자인 | 더이룸(김정현) 063-251-3080

ISBN 978-89-6612-513-5

ISBN 978-89-6612-452-7 (세트)

전북학총서

16

부흥백제국과 주류성

전북학연구센터

비대문
94910



9 788966 125135

ISBN 978-89-6612-513-5

ISBN 978-89-6612-452-7 (세트)